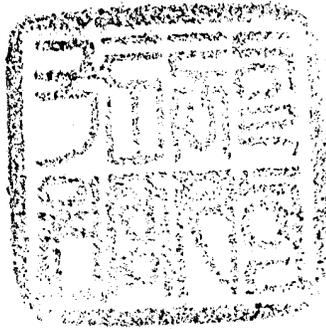


3361  
309.0911

# 北 韓 實 態

1984



309.0911  
" 76211  
" 1121221  
" 1121221  
" 714  
" 812

国 土 統 一 院  
統 一 研 修 所



# 北 韓 實 態

I. 北韓의 政治 .....	3
II. 北韓의 經濟 .....	53
III. 北韓의 社會・文化 .....	115
IV. 北韓의 教育.....	175
V. 北韓의 軍事・外交.....	211



# I. 北 韓 의 政 治

李 禎 秀

(統一研修所 教授)



# 目 次

1. 序 言 .....	7
2. 北韓共產政權의 形成 .....	8
가. 8.15 解放當時의 北韓 .....	8
나. 金日成의 登場 .....	10
다. 共產化의 3段階過程 .....	11
3. 北韓共產體制의 變遷過程 .....	15
가. 第1期(1945~1958年): 金日成權力 形成期 .....	16
나. 第2期(1959~1965年): 金日成唯一體制 構築期 .....	20
다. 第3期(1966~1972年): 金日成唯一體制 強化期 .....	24
라. 第4期(1973~現在): 權力世襲化期 .....	27
4. 統治理念: 主體思想 .....	29
가. 統治理念의 造作過程 .....	29
나. 主體思想의 背景 .....	31
다. 主體思想의 內容 .....	33
라. 主體思想의 活用實態 .....	35
5. 統治機構 .....	37
가. 勞動黨의 機能 .....	38
나. 社會主義憲法 .....	40

다. 最高人民會議 .....	42
<b>6. 金正日世襲體制 構築 .....</b>	<b>43</b>
가. 權力構造의 改編狀況 .....	44
나. 金正日의 行跡 및 活動狀況 .....	45
다. 金正日의 偶像化實態 .....	47
<b>7. 結 語 .....</b>	<b>49</b>

## 1. 序 言

우리 국토와 민족이 둘로 갈라지면서 北韓에서의 共產支配下에 들어선 지도 벌써 39年이 경과하고 있다.

그동안 北韓에서는 金日成을 비롯한 소위 혁명세대들이 통치해 왔고, 70年代初부터는 金正日을 내세워 父子世襲體制를 구축하여 왔다.

그러나 이같이 權力の 中心이 金日成에서 金正日에게로 옮겨지는 변화 속에서도 그들의 志向과 目標은 변함없이 革命一邊倒로 北韓에서의 「3大革命」, 그리고 「南朝鮮革命」인 것이다.

이러한 北韓의 暴力革命路線은 같은 共產圈에서도 極端的이며 好戰的이란 점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金日成은 北韓地域에서 소련占領軍의 앞잡이로 등장하여 民族主義勢力을 탄압하고 6.25 戰爭을 일으키는 등 南北間에 敵對關係를 심화시켰고, 70年代以後에는 金日成의 「抗日遊擊隊式으로」라는 口號下에 住民의 生活樣式과 行動 모두를 異質化시켰다. 또한 金日成은 集團主義方式으로 人間의 個性과 創意性을 壓殺하는 등 反民族的이고 非人間的 속성을 드러내고 말았다.

金日成은 그의 唯一獨裁體制를 유지할 목적으로 한편으로는 社會를 閉鎖化시켜 住民을 완전 통제하면서 온갖 선전수단을 동원하여 北韓住民들로 하여금 金日成帝治下나 6.25 동란 후의 참담했던 처지와 비교토록 하여 現狀에 만족하고 자위하도록 현혹시키고 있다.

그리고 북한보다도 못사는 아프리카, 中南美 등 未開發國家들에게 地上天國인양 선전하는가 하면, 비교적 온건한 東歐共產社會의 實態만을 알고 있는 一部 自由世界 사람들이나 北韓實情에 어두운 一部 海外同胞들에게 손을 뻗쳐 그들의 지지기반 확보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한마디로 北韓共產體制는 唯一한 이데올로기, 唯一한 共產黨, 唯一한 獨裁者와 唯一한 後繼者의 支配를 最高規範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全體主義的 獨裁體制라 할 수 있다.

本 教材에서는 민족의 진정한 統一을 위해 ① 統一의 對象으로서의 北韓共產體制는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② 金日成 1人獨裁體制는 어떤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고 ③ 北韓의 主體思想 및 統治機構의 특징은 어떠한가, 그리고 ④ 金正日 등장 이후 政權內部의 狀況과 南北關係 變化를 中心으로 考察하려 한다.

## 2. 北韓 共產政權의 形成

### 가. 8.15 解放 當時의 北韓

1945年 해방 당시 북한에는 共產主義運動의 확고한 組織體系가 없었으며 소수의 共產主義者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들도 제대로 훈련받고 組織活動을 한 자들은 아니었다.

平壤을 中心으로 한 西北地方에는 基督教思想이 일찌기 들어와 있었던 만큼, 民族主義勢力과 宗教勢力이 절대다수였다.

따라서 北韓人口 940萬名中 基督教人口가 370萬이었으며, 金日成 자신도 1945年 12月 朝鮮共產黨北朝鮮分局 第3次 擴大會議에서 북한에 있는 共產主義者는 4,530名이라고 말한 바 있다.<sup>1)</sup> 이러한 근거에서 보더라도 北韓이

註 1) 김일성저작선집 1, (평양, 1967), p. 10.

自生的으로 共產化될 素地가 희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방 당시 북한내의 政治的 版圖는 曹晩植先生을 중심으로 한 民族主義勢力과 宗教勢力이 주축이 된 「平南建國準備委員會」가 있었고, 共產主義者들의 活動은 고작 土着共產主義者로 알려진 玄俊燦중심의 「朝鮮共產黨 平南地區委員會」가 있을 뿐이었다.

소련은 第2次世界大戰의 參戰과 더불어 소련군 第25軍 司令官 치스차코 프大將이 이끄는 소위 解放軍(20~30萬名)이 1945年 8月 9日부터 行動을 개시하여 즉각 咸鏡北道 慶興과 雄基로 진격하였으며 계속해서 羅津, 淸津을 점거하였고 8月 22日에는 平壤에 진주하였다. 한편 8月 23日에는 로마넵코少將이 政治·行政요원을 이끌고 元山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왔으며 8月 25日, 平壤에 駐屯軍司令部를 설치하여 8月末까지 北韓全域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이러한 소련의 占領은 日帝의 식민통치지역을 분할 인수하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 스탈린의 의도는 占領地域에 親소정권을 세우는 것이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1946年 3月 13日, 처칠의 「對소政策演說」에 대한 스탈린의 반응에서 나타났다. 즉 “소련은 自己 將來의 安全을 保障하기 위하여 이들 여러나라(占領國家)에서 소련의 忠誠된 政府의 存在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sup>2)</sup> 스탈린은 將來의 安全保障을 위해서 東歐뿐만 아니라 소련에 接境해 있는 北韓에도 「忠誠된 政府」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다. 결국 北韓共產主義는 스탈린의 팽창주의 산물이다.

註2) 梁好民, 「北韓의 이데올로기와 政治」I, 亞細亞問題研究所, 1973, p. 66 再引用.

## 나. 金日成의 登場

스탈린은 北韓地域의 共產化를 위해 그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먼저 金日成을 선정하여 北韓地域에 보내는 동시에 共產化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一團의 韓人 2世들을 中心으로 한 소련派를 투입시켰다.

스탈린은 共產化를 주도할 인물을 선정하는데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기준은 東歐 共產化過程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첫째, 점령지역의 非 共產主義者는 물론 「부르조아民族主義」에 감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土着 共產主義者까지도 가능한 限 배제하고 둘째, 소련에 亡命하여 정치훈련을 받은, 그리고 크레믈린에 盲目的으로 복종하는 철저한 스탈린主義者를 선정하였다. 예컨대 2次大戰後에 등장한 체코의 코트발트(K. Gottwald), 루마니아의 안나파우게르(Anna Pauker), 東獨의 피이크(W. Pick), 울브리트(W. Ulbricht), 폴란드의 비에루트(Bierut), 그리고 콤민테른의 書記長을 지낸 불가리아의 디미트로브(Dimitrov) 등은 이런 기준에서 선정된 것이다.

그러면 金日成은 어떻게 선정되었는가?

스탈린은 北韓地域에 親소政權을 세울 人物을 추천토록 外務省과 內務省에 지시했다. 內務相인 베리아는 金日成을 추천하였으며, 外務相인 모로토프는 京城(서울)의 마지막 公使인 샤브신 파라사노브에 의하여 선정된 朴憲永을 추천하였는데<sup>3)</sup> 스탈린은 선정기준에 따라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金日成을 선택하였다고 한다.

소련은 이같이 선정된 金日成을 民族的 英雄으로 분장시키기 위하여 「將軍」의 칭호를 붙여 共產化의 괴뢰로 철저히 활용하였다. 1945年 8月末頃

註 3) 林隱, 「金日成正體」, 경향신문, 1982.3.31.

점령군과 함께 北韓땅에 들어온 金日成이 주민들 앞에 公式的으로 나타난 것은 1945年 10月 14日에 있는 平壤群衆大會이다.

또 一團의 소련派는 소련의 우즈베키스탄(Uzbekistan)과 카자카스탄(Kazakastan)에서 살던 韓人 2世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許哥而, 朴昌玉, 南日, 朴義完 등이 이에 속하며, 이들은 크레믈린에 盲目的으로 복종하는 철저한 스탈린主義者들로서 抗日獨立運動이나 土着共產主義勢力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국내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자들이다.<sup>4)</sup>

이런 점에서 오늘의 金日成政權은 共產主義 革命運動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소련軍에 의해서 실려온 「貨車政權」 또는 「軍用 보따리政權」(Baggage Train Government)에 불과하다.<sup>5)</sup> 따라서 北韓政權은 民族主義의 性向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다.

#### 다. 共產化의 3 段階過程

소련은 東歐 점령지역에서 대체로 다음의 3 단계, 즉 첫째, 純粹聯立 단계 둘째, 似而非聯立 단계 셋째, 民族統一戰線의 단계를 거쳐 「人民委員會」(소비엠틀)와 共產黨을 만들어 共產化作業을 추진하였다. 북한에서도 이같은 3 단계를 거쳐 人民政權과 勞動黨이 출현하였다.

소련군은 1945年 8月 26日, 우선 民族主義者인 曹晚植先生을 중심으로 한 「平南建國準備委員會」와 土着共產主義者인 玄俊嫻 중심의 「朝鮮共產黨 平南地區委員會」를 합쳐 「平南人民政治委員會」(委員長: 曹晚植)를 만들고

註 4) Dae-Sook Suh, "Preconceived Formular for Sovietization: The Communist Takeover North Korea" in Thomas T. Hammond (ed.), The Anatomy of Communist Takeover (1971), pp. 477~8.

5) 上揭書, p. 486.

이를 앞세워 共產化作業을 위한 政治·經濟·社會的 기초를 구축해 나갔다. 북한의 「平南人民政治委員會」는 소련의 「소비엘」과 같은 것이다. 다만 소련의 「소비엘」은 土着勢力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나 북한의 「소비엘」은 소련占領軍에 의해서 강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소련軍은 第1 단계로 民族主義勢力과 共產主義勢力들로 하여금 聯立하여 「平南人民政治委員會」를 만들게 하였는데 원래 이 機構는 共產陣營幹部 16人和 民族陣營幹部 16人으로 構成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14 : 18로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民族陣營幹部로 선정된 金洸鎭·洪基曠를 共產陣營쪽에서 미리 포섭했기 때문이다.

또한 소련군은 소위 「反日民主主義政黨」의 결성을 의도적으로 권장하여 1945年 11月 3日, 曹晩植先生을 黨首로 하는 「朝鮮民主黨」을 발족케 하면서 共產陣營의 崔庸健과 金策을 각각 副黨首職과 書記長 겸 政治部長職에 임명하였다.<sup>6)</sup>

이같은 聯立政府 形態는 共產主義者들만의 조직으로는 광범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할 수 없었던 初期에 등장하며 共產主義의 戰略·戰術에서 보면 이것은 人民民主主義革命단계로서 同盟 및 戰術的 타협의 단계이다. 북한의 경우도 그 당시 共產主義者들이 적었으므로 共產主義者들만으로 統治하기는 어려웠으므로 非共產主義者와의 연합이 불가피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共產主義者들의 간계와 기만을 엿볼 수 있으며, 또한 共產主義者들이 즐겨 사용하는 「聯立」, 「聯合」, 「聯邦」, 「合作」 등을 어떤 시기에 내세우는가를 유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 또 이 聯立政府時期에는 共產主義者들이 共產社會 건설이니 社會主義社會 건설이라는 말보다는 「民族的獨立」,

---

註 6) 梁好民, 前掲書, p. 94, 註 38 참고.

「民族主義」, 「民主社會」, 「土地均配」, 「勞動階級の地位向上」, 「男女平等」 등 극히 현실적이고 국민 대다수가 공명할 수 있는 口號 또는 政策을 제시한다.

이처럼 소련軍은 첫단계에서 민족진영과 공산주의세력이 聯立形態로 共存하도록 해놓은 다음 非共產主義者들을 서서히 제거하면서 第2段階인 似而非聯立段階로 넘어갔다.

우선 1945年 11月, 北韓地域의 各道人民委員會代表를 召集하여 5道人民委員會聯合會議를 갖고 北朝鮮 5道行政의 統一的인 지휘관리를 위한 「5道行政局」(委員長: 曹晚植)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共產主義者들이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曹晚植先生에 대한 제거작업에 착수하여 매마침 「모스크바三相會議」(1945年 12月)에서 결정된 信託統治案을 曹晚植先生이 끝까지 거부하자 그를 제거시켰다. 또한 「5道行政局」을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로 개편하여 金日成을 委員長으로 등장시키고 朝鮮民主黨의 黨首도 崔庸健으로 代替하여 실제로 共產主義勢力이 지배토록 했다.

金日成은 1946年 2月 8日, 「政黨, 社會團體, 5道行政局, 各道·市·郡人民委員會 擴大會議」에서 “이 회의는 소련의 努力으로써 開催되었음”을 말한 다음 북한에서 “中央政治機構의 結여가 北朝鮮의 統一된 발전에 대한 주요한 장애”라고 지적하고 祖國統一까지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구성이 必要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후에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母胎가 된다.

그러면 上記한 人民委員會 形成段階와 관련해서 共產黨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1945年 10月 10日에 있는 「朝鮮共產黨 西北5道 責任者 및 熱誠者大會」

에서 최초로 「朝鮮共產黨北朝鮮分局」이 발족되었다. 이때 黨第1秘書에는 金鎔範(소련派), 第2秘書에는 武亨(延安派)과 吳琪燮(國內派)이 聯立形式으로 선임되었다.

이 당시 金日成은 배후에서 權力을 독점, 확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즉 金日成은 1945年 12月 17일에 개최된 「朝鮮共產黨北朝鮮分局 第3次 擴大會議」에서 소련軍의 비호하에 독자적인 黨權을 확립하기 위해서 「分局」을 「北朝鮮共產黨」으로 黨의 名稱을 변경하였으며 여기서 黨의 責任秘書로 선출되었다.

政權機關과 共產黨이 점차 金日成 중심의 共產主義者들에 의해서 장악되면서 마지막 3단계로 넘어 갔다. 즉 人民共和國의 政權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로서 모든 政黨·社會團體·人民委員會 등을 共產黨 주위에 규합하는 統一戰線段階이다.

1946年 7월에 金日成의 제의에 의하여 4個 政黨, 15個 團體를 합하여 「北朝鮮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委員會」를 만들었다. 여기서 4個 政黨이란 金日成의 北朝鮮共產黨(1945.12.27), 崔庸健이 장악한 朝鮮民主黨(1945.11.3) 그리고 金料奉의 朝鮮新民黨(1946.3.30), 金達鉉의 天道教靑友黨(1946.2.1)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소위 「民戰」은 내부적으로 共產化된 政黨·社會團體로써 결성되어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北朝鮮人民委員會」로 전환되었으며 오늘의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北朝鮮人民委員會」를 거쳐 1948年 9月 9일에 創建되었다.

北朝鮮共產黨은 1946年 8月 28日, 金料奉의 朝鮮新民黨(1946.3.30)과 合黨하여 「北朝鮮勞動黨」이 되었다. 「北朝鮮勞動黨」은 1949年 6월에 一國一黨 원칙에 입각해서 서울에서 越北한 朴憲永의 南勞黨集團과 합당하여 오늘의

「朝鮮勞動黨」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이 합黨大會에서 委員長 金日成, 副委員長 朴憲永, 秘書로 許哥而, 李承燁을 선출하였다. 南勞黨總責이었던 朴憲永에게 黨에서 副委員長, 內閣에서는 副首相 겸 外務相의 지위를 주고 金日成은 朝鮮共產黨中央指導部를 평양에 설치하려던 욕망을 충족시킨 것이다.

이렇게 하여 북한에는 소련軍政을 배경으로 하는 공산당과 공산정권의 下向的 권력체계가 구축되어진 것이다.

以上에서 소련 占領軍의 힘과 공산주의의 戰略·戰術이 북한지역을 공산화하는데 절대적 요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소련軍이 점령한 지역 중에서 戰前의 유일한 植民地였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른 占領地域은 勝戰國(폴란드, 헝가리, 체코)과 敗戰國(루마니아, 불가리아, 東獨)의 차이는 있었으나 그런대로 독립국이었으며 戰前부터 통치경험 및 정치조직 세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북한에는 朝鮮朝 時代와 日帝 植民統治 기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정치경험이나 정치조직 세력이 없었으므로 日本의 항복과 더불어 힘의 공백이 생겼다.

이러한 상황은 소련軍의 절대적 지원을 받은 金日成이 비교적 빠른 時日內에 북한을 공산화할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가 된다.

### 3. 北韓共產體制的 變遷過程

북한 공산체제는 바야흐로 金日成체제에서 金正日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 현재 북한은 스스로 「首領의 지도체제」와 「指導者의 지도체제」가 혼합된 過渡體制라고 표방하고 있다. 金日成은 그의 권력체제의 永久化를 위해 金正日을 내세워 세습토록 하고 있다. 金日成은 이같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繼續革命을 주장하고, 金日成이 바라는 혁명과업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金正日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金正日 등장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

金日成은 당면 문제가 무엇이기에 繼續革命을 부르짖는가?

金日成의 계속혁명의 주장은 북한 내부에 여전히 抵抗要因이 도사리고 있음을 말해 준다. 북한 내부에 어떠한 抵抗要因이 있는지를 統治過程의 변천 속에서 적출해 볼 수 있다.

### 가 . 第 1 期 ( 1945 ~ 1958 年 ) : 金日成權力 形成期

金日成은 소련 占領軍의 지원하에 당과 정권기관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나서 南朝鮮革命을 위한 民主基地路線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산당의 지배체제 강화를 추진했다. 즉 남조선 혁명을 위한 혁명적 민주기지 강화의 저해요인을 제거한다는 구실하에 정치적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社會經濟的으로는 사회주의적 改造를 단행한 것이다.

우선 金日成은 1945年 9月末에 「부르조아民主主義」를 주장했던 土着 공산주의자인 玄俊熾를 張時雨를 시켜 암살케 했다. 玄俊熾의 암살은 권력투쟁과 이데올로기鬪爭의 결과였다. 玄俊熾는 “정치적 문제처리에 있어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勞動者나 貧農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할 것이 아니라 이 단계에 있어서는 민족문제 해결과 독립국가 건설에 유용한 識見과 經綸을 가진 인사들에 의하여 階級과 黨派를 초월한 정치세력을 형성하자”고 했다.<sup>7)</sup> 그러나 이것은 프롤레타리아트를 核心으로 하여 革命을 수행하려고 하는 소련軍政當局 및 金日成의 주장과는 거리가 먼 右

註 7) 金昌順, 「北韓 15 年史」, 서울, 1961, 66.

傾的 路線이었다. 또 玄俊熾은 북한을 남한과 분리하여 소련의 공산위생국으로 만들려는 金日成의 民主基地路線을 동의하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金日成은 이데올로기 투쟁과정에서 공산당내의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하여 마침내 玄俊熾을 암살하였다.

두번째로 金日成一黨은 모스크바三相會議에서 결정된 反民族主義的 信託統治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46年 2月을 전후하여 古堂 曹晩植先生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勢力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번째로 1953年을 전후하여 金日成은 가장 위협적 존재였던 朴憲永을 중심으로 한 南勞黨系 (李承燁, 李康國, 林和 등)의 除去作業을 벌였다. 당시 南勞黨派는 黨과 政權機關에 自派勢力을 부식하기에 광분하였으나 要職은 金日成一派에게 빼앗겨 버림으로써 權力爭取의 기회만을 노리는 처지에 있었다. 또한 6.25 戰爭이 실패로 돌아가고 북한 全地域이 져 더미로 화하자 金日成에 대한 주민들의 不平不滿이 더욱 고조되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金日成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 南勞黨一派에게 美帝의 雇傭 間諜, 反黨行爲者란 누명을 씌우고 6.25 戰爭의 실패에 대한 責任을 그들에게 轉嫁시켜 숙청해 버렸다. 金日成에 의하면 “一次 攻擊時 朴憲永은 우리를 속였다. 朴憲永은 南朝鮮에 20萬 黨員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南朝鮮에 黨員이 20萬은 고사하고 千名만이라도 있어서 釜山쯤에서 罷業을 하였더라면 정세는 달라졌을 것”<sup>8)</sup>이라고 하면서 6.25의 敗北책임을 朴憲永에게 轉嫁하였다. 또한 이 내용에서 6.25 戰爭을 누가 일으켰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金日成이 朴憲永一派를 숙청한 또다른 중요한 이유는 1920 ~ 30年代의 共產主義運動의 傳統을 宗派主義의 歷史로 묘

註 8) 「南朝鮮革命과 祖國統一에 대하여」, (평양, 1969), p. 117.

사하여 이 運動에 참가했던 朴憲永의 權威를 말살하고 어디까지나 金日成 1人支配下에 통일된 黨을 구축하는데 있었다.

네번째로 소련 및 延安派의 肅清이다.

金日成은 북한을 民主基地로 강화하기 위하여 經濟建設을 해야 하며 북한 住民의 생활수준을 向上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金日成은 民主基地強化를 내걸고 重工業에 역점을 두어 經濟計劃을 수립하였다. 1954년에 제시했던 3個年計劃도 輕工業보다는 重工業에 역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소련으로부터 받은 원조로 주로 軍事力增強과 관련, 鐵鋼부문의 重工業에 투자했다. 그러나 重工業分野는 그런대로 再建이 되었으나 일반주민의 생활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消費物資의 缺乏과 食糧難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갔다. 그래서 延安派(金料奉派)와 親소派(朴昌玉派)에서는 輕工業을 強化하고 重工業을 약화시키며 농업부문을 發展시킬 것을 원했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스탈린」格下의 영향을 받아 金日成의 長期執權 企圖를 비판하고 불평을 하던 중 金日成의 東歐訪問을 계기로 음모를 벌였다. 그러나 이것이 누설되어 급히 귀국한 金日成은 8月 全員會議(1956.8)를 소집하여 延安派인 金料奉, 崔昌益, 武亭, 朴一禹 등과 소련派 朴昌玉 등을 「宗派分子」로 몰아 숙청하였다. 이것을 「8月宗派主義事件」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金日成은 黨內에서 그의 權力體系를 형성하기 위해 방해되는 敵對者, 異端者, 競爭者를 숙청하였다. 이렇게 놓고 보면 金日成의 權力體系의 根幹은 金日成의 빨치산勢力들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時期에 金日成은 制度改革을 통하여 권력체계의 基礎를 구축했다. 즉 金日成은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를 통해서 民主改革을 표방하면서 土地改革(1946.3), 主要産業의 國有化(1946.8), 貨幣改革 등을 단행했다.

즉, 1946年初 당시 金日成은 5町步以上の 땅을 가진 者를 大地主로 규정하였다. 大地主數는 44,000名<sup>9)</sup> 정도로 되어 있으며 이들로부터 土地를 빼앗아 貧農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土地改革 이후 3個月後 (1946.6.3)에 公布된 農業現物稅制와 休戰直後부터 강행된 農業集團化政策 (1953.8) 때문에 북한 농민들의 個人所有에 대한 기쁨은 새로운 失望으로 바뀔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金日成은 政治權力的 장악뿐 아니라 社會經濟的 기반구축을 위해 1954년부터 農村에서 個人農을 완전히 폐지하고 強制로 集團化하였으며 都市에서는 1953년부터 각종 協同組合을 창설하여 個人商工業 및 手工業者들을 義務的으로 加入시켜 商工業의 共有化를 강행하였다. 이러한 社會主義的 改革은 1958년까지 계속되었다. 金日成은 1956年末 소위 「黨事業總和報告」에서 북한 全地域에서의 農業의 集團化와 商工業의 社會主義的 改造가 완료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農民들은 「協同農場員」이 되고, 都市의 중소상공업자와 수공업자는 國營企業所에서 일하는 勞動者내지는 일부 事務員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金日成은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으로 獨裁할 수 있도록 改革을 단행했지만 정치적 肅清을 당한 자들의 원한과 財産을 빼앗긴 住民들의 불만은 말할 수 없이 컸다. 이러한 「원한과 불만은 한 代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金日成도 판단하고 있었다. 즉 金日成의 말을 빌리자면 “어떤 사람은 姓을 바꾸어 農民層에 침투하여 抵抗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신행세를 하면서 저녁에 자기 땅을 찾기 위해 투쟁하고, 낮에는 일하는 척 하고 밤에는 돌아서서 抵抗을 하고, 어떤 사람은 孫子의 손목

註9) 金日成著作選集 3, (평양, 1968), p. 312.

을 잡고 가서 빼앗긴 땅을 가리키면서 ‘나는 죽어도 너는 땅을 찾아라’ 하는 책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金日成은 “비록 계급으로는 없어졌으나 땅을 빼앗긴 地主가 살아 있는 한 그의 마음이 또한 죽지 않고 살아 있을 것은 뻔한 일이다”<sup>10)</sup> 라고 하였다. 金日成은 이것을 解決하기 위해 繼續革命을 부르짖고 革命的 하나로서 人間改造作業에 착수했다. 즉 북한 住民을 共產主義體制에 適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金日成은 1958년에 「共產主義教養」<sup>11)</sup>이라는 인간개조의 指針書를 만들어 냈다.

북한에서는 1958년까지 모든 部門에서 金日成 1人獨裁權力體系의 기초를 구축하여 놓고 이것을 「社會主義基礎」<sup>12)</sup>가 마련된 것으로 선전하였다.

## 나. 第2期 (1959~1965年); 金日成唯一體制 構築期

이 기간에는 金日成 1人獨裁의 諸般與件을 만들어 놓고 그 뿌리를 내리는 作業이 展開된다.

金日成은 1人獨裁確立을 위해서 思想의 唯一化를 강조하고, 住民의 成分을 調査하고, 人間改造를 통해서 맹종하는 인간을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金日成個人偶像化作業에 本格的으로 착수하게 된다.

過去에는 마르크스·레닌主義를 내세워 統治를 하였으나, 1961年 4次黨大會에 와서는 金日成에 의해 이룩되었다고 주장하는 「抗日革命傳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註 10) 前掲書, pp. 313~4.

11) 金日成著作選集 2, p. 247.

12) 金日成著作選集 3, p. 63.

1961年 4次黨大會에서 결정된 黨規約에서 「朝鮮勞動黨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일반적 원리를 朝鮮革命的 실천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修正主義와 教條主義를 반대한다」고 하였으며, 이어서 「朝鮮勞動黨은……抗日 武裝鬪爭에서 이룩한 영광스러운 革命傳統의 직접적인 계승자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革命傳統」이란 金日成이 抗日革命鬪爭의 불길 속에서 이룩한 영광스러운 革命傳統으로<sup>13)</sup> 묘사하고 있다.

결국 金日成은 唯一獨裁體制的 名分으로 삼기 위해 개인의 경력을 조작하여 黨規約에 삽입시켰으며 黨內에서 이를 반대하는 派閥에 대해서는 修正主義와 教條主義로 몰아 숙청하였다.

그들이 「黨略史」에서도 밝혔지만 그 당시 反黨·反革命分子들이 金日成의 抗日 革命鬪爭에서 이룩한 革命傳統을 헐뜯는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고 한 것<sup>14)</sup>을 보면 黨內 비판은 대단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북한이 프롤레타리아黨獨裁를 표방하면서 실제 金日成 1人獨裁로 변질되었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黨體制는 1人獨裁體制로 변질되고 만 것이다.

또 주민성분을 조사하여 獨裁對象을 구분하여 통치하는 것이다. 즉 1958년부터 1960년까지 2년 동안에 걸쳐 실시한 소위 中央黨集中指導事業을 통하여 북한의 모든 주민들의 성분을 조사하였고, 1962년부터 주민등록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北韓住民을 核心階層, 動搖階層, 敵對階層으로 구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動搖階層과 敵對階層을 反革命的 요소가 있다고 간주하여 獨裁對象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가족적, 혈연적, 지연

註 13) 「朝鮮勞動黨略史」, (평양, 1979), p. 478.

14) 上揭書, p. 442.

적 인간관계를 파괴하여 集團的 勢力化를 못하게 하였으며, 특히 敵對階層에 해당하는 越南者家族, 宗教人家族, 地主, 肅清者家族들에게는 휴전선과 동·서해안선으로부터 20 km 內陸地方으로, 또 한편 平壤, 開城같은 도시로부터 50 km 밖 지역의 각 촌락으로 이주시켰다. 또한 이들은 자녀교육, 각종 배급, 직장배치에도 철저한 차별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하여 金日成 1人獨裁體制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勞動黨의 각종 외곽단체인 社勞靑(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 農勤盟(農業勤勞者同盟), 職盟(職業總同盟), 女盟(民主女性同盟), 少年團 등은 본래의 역할보다는 오로지 「革命傳統教養」과 「共產主義教養」만을 수행토록 하여 政治教育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강압적인 주민통제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人民班會議, 5戶擔當制 등의 조직을 통해서 상호비판과 감시를 강화하여 북한 住民을 1人體制에 맹종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동원, 교양, 통제를 할 수 있는 조건과 장치를 만들어 놓고 金日成은 北韓의 농민과 노동자의 支持를 얻기 위해 새로운 誘引方法을 강구하였다. 이것이 바로 金日成의 「대중노선」이다.

즉 1960年 2月 金日成은 江西郡의 「靑山里 協同農場」에서 농민들을 共產主義的 集團生活과 黨에 무조건 복종토록 하는 지도방법을 만들어 냈다. 이것을 그들은 「靑山里指導方法」이라고 한다.

金日成은 청산리방법의 기본은 “웃기관이 아랫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랫사람을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 보고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발적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사업을 수행하는데 있다”<sup>15)</sup>고 하였다.

註 15) 金日成著作選集 4, (평양, 1968), pp. 298~299.

그리고 金日成은 이 방법을 工場勞動者 및 工場管理에 적용하기 위해서 「大安電氣工場」에서 「大安의 事業體系」라는 것을 만들어 냈다. 이것은 黨委員會의 집체적 지도하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 대중을 생산력 提高를 위해 발동하는 것이라 한다.<sup>16)</sup> 즉 이것은 勞動者를 직접 관리·통제하여 혁명성을 고취하면서 勞動力을 발동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지도방법은 黨의 혁명전통의 교양과 당원들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을 동원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 기업단위에서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는 문제, 그외 경제계획을 세우고 조직하는 문제 등을 토의,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중앙의 勞動黨이 말단 里·洞 또는 工場·企業所 등까지의 모든 사회부문을 직접 지도·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도체계이며 金日成의 唯一支配體系의 기틀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들은 唯一體制強化를 위해 金日成偶像化를 획책했다. 共產主義體制에서 個人偶像化의 대표적 例는 소련의 스탈린과 中共의 毛澤東, 북한의 金日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행해지고 있는 金日成에 대한 偶像化作態는 스탈린이나 毛澤東 偶像化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즉 金日成을 「人民의 太陽」, 「白頭의 별」로 상징 조작할 뿐만 아니라,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과 같은 神的 존재로 만들어 北韓住民들로 하여금 추종케 하였다. 예를 들면, 「金日成은 白頭山 정기를 타고나서 천지조화를 다 알며 縮地法을 써서 하늘을 날아 다닌다」는 식으로 神的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金日成의 偶像化는 존칭에 대한 수식어가 많아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金日成에 관한 기록을 날조하여 金日成을 神格化시키는 데로 물고 갔다.

註 16) 「黨略史」, p. 528.

이러한 指導方法·偶像化는 金日成唯一支配體制 확립을 위해 필요로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北韓住民들은 여전히 저항적 반응을 보였다. 이 당시 農民들의 意識 또는 태도를 통해서 金日成體制에 대한 저항을 측정해 볼 수 있다.

1967年 2月 2日, 全國農業일군大會에서 金日成은 “농민들이 자기 먹을 것만 벌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나라의 이익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에게 이로우야 좋아한다는 태도와 자기 생활에만 몰두하고, 집단과 공동경제의 발전에 대하여 관심을 덜 돌리는 경향이 많다”는 事實 등을 여러가지 예들 들어 指摘하였다. 이에 의하면 “농민들의 머리에는 이기주의와 부르조아 思想, 集團主義에 어긋나는 낡은 사상이 뿌리 깊이 남아 있어서 협동농장에서 소를 집집마다 나누어 기르면 잘 기르는데 共同畜舍에 넣어 기르면 되는 대로 기르며, 농민들이 자기가 먹을 양곡을 좋은 것으로 골라서 남겨 두려고 하면서 나라에 팔 收買穀은 아무 것으로나 그것도 될수록 적게 내려고 한다”는 등의<sup>17)</sup> 不滿을 털어 놓았다. 결국 金日成은 끈질긴 北韓住民의 抵抗과 拒否속에서 支持를 얻기 위해 극단적인 指導方法과 偶像化놀음을 강구하여 왔던 것이다.

### 다. 第3期(1966 ~ 1972年): 金日成唯一體制 強化期

이 時期는 金日成이 對內的으로 不安定하고, 對外的으로 危機를 느낄 때이다. 즉 대내적으로는 1967年 軍部와 經濟專門家들 사이에 政策對立, 1969년에는 소련軍事大學出身과 抗日빨치산派間의 派閥싸움이 있던 시기이다.

註 17) 金日成著作選集 4, p. 458.

1967年의 事件으로 인해 金日成은 自派內의 한 派인 甲山派를 숙청하게 되는데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원래 이 사건은 軍事力優位策을 강조하는 軍부와 經濟發展을 優先視하는 黨內의 經濟專門家들의 대결로 인해 일어났다. 이때 金日成은 軍부의 強硬派를 동원하여 經濟專門家인 甲山派의 朴金喆(政治委常務委員), 李孝淳(對南工作總責)을 숙청하게 되었다. 숙청 이유는 軍부에 대한 黨官僚의 패권장악을 시도했다는 것이며, 그 당시의 軍事力強化政策(4大軍事路線)의 執行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이 숙청은 經濟建設優先論을 주장한 穩健派의 沒落과 崔賢, 吳振宇 등 軍부強硬派의 得勢를 가져왔다.<sup>18)</sup>

또 1969年의 軍部內 파벌싸움은 崔賢, 吳振宇의 親金日成系와 非金日成系인 金昌鳳(人民武力部長), 許鳳學(軍總政治局長), 崔光(軍總參謀長)派 사이에서 일어났다. 金日成은 1969年 1月, 人民軍黨委員會 第4期 4次會議에서 金昌鳳, 許鳳學, 崔光 등은 「唯一思想體系的 確立」을 방해했고, 4大軍事路線을 지연시켰다는 구실하에 숙청했다.<sup>19)</sup>

또 對外的으로는 中·소紛爭의 틈에 끼어 양다리外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不安定한 狀態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越南戰의 격화로 인해서 金日成이 外部로부터 威脅을 느꼈다.<sup>20)</sup>

이러한 狀況에서 金日成은 軍部內의 빨치산強硬派를 배경으로 하여 1967年 5月, 黨第4期 15次全員會議에서 主體思想을 黨의 唯一思想으로 규정하며 이것을 一色化하는 「黨의 唯一思想體系確立」을 黨政策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1968年에는 黨員들과 勤勞者들을 黨의 唯一思想으로 무장시키기 위

註 18) 「北傀肅清과 反抗運動」 (自由評論社, 1971), pp. 20~22.

19) 上揭書, pp. 22-24.

20) 金日成著作選集 4 (평양, 1968), p. 325, p. 328, p. 349 참조.

北韓의 政治

해서 전지역의 모든 기관 및 단체內에 「金日成革命歷史研究室」<sup>21)</sup>을 설치하여 唯一體系를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金日成의 實弟인 金英柱와 親戚·外戚들이 黨核心勢力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대체로 金日成 族閥體制 強化의 傾向이 뚜렷이 나타난 시기는 1970年 5次黨大會 後에서이다. 이같은 族閥體制的 현상은 프롤레타리아트 階級獨裁의 路線과는 분명히 背馳되는 것이다.

金日成 族閥現況

( 1983.12 現在 )

姓 名	關 係	職 責
金 正 日	長 男	勞動黨 政治局 常務委 4 位 軍事委 3 位 秘書局 2 位
金 聖 愛	妻	女盟中央委員長
朴 成 哲	從 妹 夫	副主席 겸 勞動黨政治局員
許 鎔	從 妹 夫	政治局員, 副總理 겸 外交部長
楊 亨 燮	從 妹 夫	最高人民會議 議長
金 貞 淑	從妹(許鎔의 妻)	職總 副委員長
金 信 淑	從妹(楊亨燮의 妻)	社會科學院 副院長
康 賢 洙	外 從 弟	黨檢閱委 第一副委員長
姜 希 源	外 戚	清津市黨 責任秘書
黃 壯 燁	조 카	勞動黨 秘書
金 仲 麟	金英柱 妻家姻戚	勞動黨政治局員 겸 對南事業擔當 秘書

註 21) 「중앙년감」, (평양, 1969), p. 131.

이외에도 金日成의 外從祖父인 康良煜(副主席)과 金日成의 弟 金英柱(黨政治委員)와 姻戚인 金東奎(副主席), 李勇武(人民軍總政治局長), 金炳河(國家政治保衛部長)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들은 사망 또는 세습체제구축과 관련하여 肅清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金正日이 金日成의 후계자로 등장하게 된다.

### 라. 第4期(1973年~現在) : 權力世襲化期

1970年代 초반에 이르자 金日成이 60대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金日成과 같은 빨치산 世代들도 거의 60대가 넘어감에 따라 후계자 문제를 거론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金正日이 後繼者로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특히 스탈린 死後의 소련 指導體制的 혼란과 스탈린의 格下運動, 中共에서 毛澤東에 대한 林彪의 모반과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金日成은 소련과 中共에서 지도자가 죽은 후의 정치적 불안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후계자 선정을 옳게 처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金正日의 선택은 金日成의 革命路線의 持續과 死後에 스탈린 格下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란 심리적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다.

金正日이 후계자로서 결정된 것은 1973年 9月 黨第5期 7次全員會議(秘密會議)에서이다. 1973年 2月<sup>22)</sup>부터 黨의 핵심청년들과 大學生들

註 22) 金日成著作選集6, (평양, 1974), p. 419

\* 1973年 3월에 金日成은 3대혁명소조에 관한 연설에서 이 소조를 파기한 지 한 달이 되었음을 밝혔다.

로 구성된 「3大革命小組」라는 특수조직을 만들어 사회 모든 부문에 20 ~ 50 명씩 투입하여 老幹部들을 비판·격하시키면서 金正日에게 무조건 충성케 하는 一大作業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3大革命小組를 파견하는 명분은 革命性이 높고 현대교육을 받은 청년들로 하여금 思想革命을 촉진시키며 새로운 技術을 습득케 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金正日의 지지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었다.

1975年 3월에 金日成은 「3대혁명소조」의 투쟁대상은 간부들이 가지는 보수주의, 경험주의, 관료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이지 결코 간부들 그 자체가 아니라고<sup>23)</sup>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로 인해 많은 老幹部들이 도태되었고 마치 中共에서 있었던 紅衛兵의 행패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다.

또한 1975년에는 「國家政治保衛部」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金正日의 世襲體制構築에 방해가 되는 要因들을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社會安全部에서 政治查察機能을 분리시킨 機構이다.

따라서 金正日의 세력기반은 「3大革命小組」와 「國家政治保衛部」란 장치를 통해서 構築되었으며 이들의 활동강화가 바로 金正日世襲體制 강화에 직결되고 있다.

註 23) 金日成著作選集 7, (평양, 1978), p. 157.

## 4. 統治理念：主體思想

### 가. 統治理念의 造作過程

현재 북한에서 主體思想은 勞動黨과 정권기관, 그리고 전체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으로 되고 있다. 金日成은 “主體思想은 우리 黨의 唯一한 指導思想이다. 그러므로 모든 黨員들과 勞動者들은 반드시 主體思想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主體思想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할 것”<sup>24)</sup>을 강요하고 있다. 또 “사상, 기술,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라는 구호까지 만들어 「主體思想」을 고집하고 있다. 또한 「主體思想」은 第3世界에 대하여 金日成의 宣傳道具로서, 그리고 權力世襲體制를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武器로서도 사용하고 있다.

원래 共產黨의 唯一思想이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말한다. 그럼에도 북한에서는 金日成의 主體思想을 唯一思想으로 규정하며 모든 부문에 적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金日成의 主體思想과 마르크스·레닌主義가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다. 북한의 黨規約 또는 憲法에서는 主體思想을 “마르크스·레닌主義를 朝鮮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金日成思想”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毛澤東이나 카스트로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中國과 쿠바에 도입할 때 「창조적」이란 말로 권위를 조작했고 「毛澤東思想」, 「카스트로思想」이라고 불렀던 사실을 상기해 보면, 金日成의 主體思想도 자기의 唯一獨裁를 정당화하려고 붙인 상투적인 標識이며, 따라서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北韓式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이런 현상은 共產國家의 支配者들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명분하에

註 24) 金日成著作選集 6, pp.422~423.

자기들의 권력유지 및 강화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데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레닌主義가 共產國家에서 그名稱과 外樣을 달리할 지라도 本質적으로 相異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金日成의 「主體思想」도 例外는 아니다.

여기서 主體思想이 唯一思想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1945年부터 마르크스·레닌主義를 강조하여 오다가 50年代 中盤에 들어서면서 「抗日革命傳統」이라는 것을 서서히 내세우기 시작하였다. 즉 第3次黨大會(1956年)에서는 이것을 중심으로 黨內 사상통일을 주장하던니 1961年 4次黨大會에서 金日成의 「革命傳統」을 黨規約에 명시하면서 唯一思想의 핵심내용으로 내세웠다. 그후 1967年 5月 黨 第4期 15次 全員會議를 통해서 「主體思想으로 黨의 唯一思想體系 확립」을 공식화하였다.

1960年代 초기에 金日成자신도 “항일 무장투쟁 시기에 이룩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하며 생활과 실천에서 구현하여야 한다”<sup>25)</sup>고 하였으며, 70年代에 들어와서 북한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수령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한다”<sup>26)</sup>고 공공연하게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主體思想은 순수한 통치이념이라기보다는 金日成 唯一獨裁體制를 정당화하고 정통화하는 한낱 정치수단으로서만 그 의미를 갖는다.

註 25) 철학사건 (평양, 1970), p. 155.

26) 정치사건 (평양, 1973), p. 265.

## 나. 主體思想의 背景

대체로 主體思想의 시발점은 1955年 이후로 잡고 있는데 이 시기는 對內的으로 延安派, 소련派와 金日成派間에 권력투쟁이 尖銳化되고 있던 시기이다.

金日成은 1955年 12月 28日, 「思想事業에서 教條主義와 形式主義를 퇴치하고 主體를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이번에 朴昌玉(소련2世派의 頭目)등이 犯한 과오도 그들이 朝鮮文學運動의 歷史를 부인한 데 있다. 그들의 眼中에는 조선프롤레타리아文學同盟에 참가한 우수한 作家들도 없고…… 우리나라의 先進的 學者作家들의 우수한 作品도 없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연구하고 널리 宣傳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 ……… 그러나 진정한 마르크스·레닌主義者라면 누구도 감히 人民들의 鬪爭業績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金日成은 “戰爭時期에 軍隊內에서의 政治事業의 方法문제를 가지고 許哥而, 金在郁(소련派), 朴一宇(延安派)는 쓸데없이 서로 싸운 일이 있다. 소련에서 나온 사람은 소련式으로, 中國에서 나온 사람들은 中國式으로 하자고 하였다. 이렇게 소련式이 좋으니, 中國式이 좋으니 하면서 싸웠는데 이것은 부질없는 일이다”<sup>27)</sup>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당시 북한 權力層 內部的 狀況은 각 派閥들간 권력투쟁과 이데올로기투쟁으로 복잡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對外的으로는 스탈린 死後(1953年) 등장한 흐루시초프가 1953年 6月 유고訪問 연설을 통해 “社會主義發展에 관한 諸方法과 條件은 나라들

註 27) 金日成著作選集 1, (평양, 1967), pp. 560~585.

에 따라서 相異하다. 社會主義發展에 관한 諸方法과 形態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기 自身の 見解를 他方에 強要하는 餘하한 傾向도 쌍방에 해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各國의 獨自路線을 認定한 發言은 스탈린 시대의 소련의 절대적 종주권만을 강요하던 時期와 비교할 때 커다란 변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측면은 스탈린格下運動이 대두됨에 따라 이 여파가 金日成의 長期執權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나머지 外勢干涉배제의 名分과 政敵肅清의 手段으로 「主體」를 강조하게 되었다. 經濟的 측면에서 보면, 이 시기는 戰後 3個年 經濟復舊計劃(1954~1956年)을 소련을 비롯한 外國의 援助에 힘입어 수행한 다음 第1次 5個年計劃(1957~1961年)을 추진하려 했으나 中·소의 經濟支援 부진으로 어려웠던 때이다.<sup>28)</sup>

이 당시 金日成의 經濟計劃에 대해 소련은 "5個年計劃은 幻想"이라느니 "機械製作工業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등 여러 가지 是非를 하였으며 自立的 民族經濟에 대하여 民族主義的 偏向이요, 閉鎖的인 경제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으며 政治的으로는 위험하고 經濟的으로는 有害로운 路線이라고 비난하였다.<sup>29)</sup>

이러한 金日成의 經濟計劃에 대한 소련의 外面은 북한과 소련의 관계를 더욱 심각하게 했던 것이다.

어쨌든 1955年을 기점으로 북한의 對內外여건은 金日成의 권력유지에 위협적 狀況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權力維持를 위한 방편으로 「主體」를 내세워 對內外의인 威脅要因에 대처하면서 고비를 넘기고자 하였다. 때문에 主體思想은 표방하는 內容보다는 주체사상이 나온 절

註 28) 「北韓概要」 (國土統一院, 1980), pp. 88~89.

29) 「로동신문」, 1963.10.28 참조.

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主體思想은 金日成의 權力維持와 관련되는 만큼 金日成의 政治行跡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 다. 主體思想의 內容

金日成은 1972年 主體思想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主體思想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革命과 建設의 主人은 人民大衆이며 革命과 建設을 推動하는 힘도 人民大衆에게 있다는 思想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運命의 주인은 자기 自身이며 자기 運命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自身에게 있다는 思想이다. 또 주체사상은 모든 것을 사람을 中心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람 중심의 世界觀이며 勤勞人民大衆의 自主性を 實現하기 위한 革命學說이다” 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선전내용이 아니라 金日成이 統治過程에서 소외되어 있고 勞動에 지쳐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동원하려 하고 있는가이다.

또한 1967年 12月 第4期 1次最高人民會議에 主體思想의 指導原則으로서 「政治에서 自主, 經濟에서 自立, 國防에서 自衛」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人民들에게는 自主的 立場과 創造的 立場을 갖도록 요구하였다. 즉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人民대중이기 때문에 人民대중은 마땅히 革命과 建設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하며, 주인다운 태도는 自主的 立場과 創造的 立場에서 표현된다고 했다.<sup>30)</sup> 그러나 북한 住民들은 黨의

註 30) 金日成著作選集 6, (평양, 1974). pp. 272~274.

“조선로동당 6 차대회”에서 한 “사업총화보고” 내용 참조.

統制下에 二重三重으로 조직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自主的이고 創造的일 수가 있을까? 여기서 다시 主體思想의 虛構的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主體思想의 바탕이 共產主義임을 실증하는 根據는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人民」에 대한 규정에서 알 수 있다. 「역사의 주체는 勤勞人民大衆이며, 反動的 착취계급은 歷史의 主體가 될 수 없다. …… 모든 착취계급은 결국 역사의 반동으로 혁명의 대상으로 된다」고 했다.<sup>31)</sup>

즉 人民을 共產主義를 신봉하는 사람들만을 국한시켜 규정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 主體思想에서 人民이 自主的 創造的 立場에 설 수 있는 것 같이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 그들의 설명에서는 “人民大衆은 歷史의 創造者이지만 옳은 지도를 받아야 되며……………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지도 문제는 首領의 領導問題”<sup>32)</sup> 라고 주장했다. 즉 人民보다는 黨이, 黨보다는 首領이 優位에 있는 「首領決定論」으로써 해명하고 있다. 또한 金正日이 1974年 2月 19日에 제시한 金日成唯一思想體系를 세우기 위한 10大原則을 보면 主體思想의 虛構性과 그 正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즉 ① 金日成의 革命思想으로 온 社會를 一色化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 것 ② 金日成을 충성으로 받들 것 ③ 金日成의 權威를 絕對化할 것 ④ 金日成의 敎示를 信條化할 것 ⑤ 金日成의 敎示를 無條件 집행할 것 ⑥ 金日成을 중심으로 思想意志 統一과 革命的 團結을 強化할 것 ⑦ 金日成의 革命方法, 事業作風을 따라 배울 것 ⑧ 金日成에게 충성으로 보답할 것 ⑨ 金日成의 唯一領導 밑에 강철같은 조직규율을 준수할 것 ⑩ 金日成의 革命作業을 代를 이어 계승, 완성해 나갈 것<sup>33)</sup> 등으로 되어

註 31) 金正日「主體思想에 대하여」(평양, 1982), pp. 16~17.

32) 上揭書, pp. 18~19.

33) 「北韓用語解義」(國土統一院, 1982), pp. 163~164.

있다. 이같은 10大原則을 통해서 보면 북한에서 모든 것은 金日成에게 종속되도록 몰아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이 金日成의 의도일진대 결국 主體思想의 표방은 한낱 宣傳이며 虛構임이 입증된다.

## 라. 主體思想의 活用實態

북한에서 主體思想의 活用實態는 對內外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다. 對內的으로 主體思想은 金日成의 唯一獨裁體制 強化手段이요, 世襲體制 正當化手段이다.

1965年, 金日成은 “主體를 세우기 위한 투쟁은 黨의 統一團結을 위한 투쟁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34)</sup> 그리고 1980年 6次黨大會에서는 「은 社會의 主體思想化」를 黨의 總體的 任務라고 하여 黨의 統一團結뿐만 아니라 사회전역에 걸쳐 파급 확대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2年 金日成은 그의 70회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主體思想塔」을 건립하였는데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이 탑은 그 화강암의 돌數를 金日成이 살아온 日數인 25,550日 (365日×70세)과 같게 하였다.<sup>35)</sup> 이러한 현상은 人民大衆을 主體라고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金日成만이 主體임을 實證하는 것이다.

또 다른 例로서 1983年 3月 31日, 東大院區域里人民委員會에서 실시한 「主體思想學習實態」를 보면 “主體思想을 고취하면 主體의 革命觀이 생기는데 主體의 革命觀에서 核은 黨과 首領에 대한 忠實性”<sup>36)</sup>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註 34) 金日成著作 選集 4, 前掲書, p. 294.

35) 「조선예술」 7, (평양, 1982), p. 52.

36) 「로동신문」, 83.3.31 참조.

金日成이 모든 부문에 대하여 부과한 「敎示」內容을 묶어서 「主體農法」, 「主體工業」, 「主體藝術」이라 하여 權威를 높이려 하는 작태를 보면 결국 主體는 金日成 자신이다. 그러므로 主體思想은 名目上 그 主體를 人民大衆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人民은 주체적 意識이나 意志 그리고 行動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따라서 북한에 있어서의 主體性의 最終決定者는 金日成뿐이고 오직 金日成만이 「자주성과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봐도 主體思想이라는 것은 金日成唯一獨裁體制를 合理化하는 것이며 또한 體制維持 및 強化를 위한 것이다.

金正日是 1982年 3月 31日에 「主體思想에 대하여」라는 論文을 발표하였다. 이후 北韓에서는 金正日이 「首領이 創始한 主體思想」을 체계화하였고, 金正日만이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思想理論家라고 선전하면서 「主體思想의 血統」을 계승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후계자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저들은 겉으로는 主體思想을 표방하면서 뒷전에서는 세습체제합리화의 구실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主體思想의 허구성과 한계점은 住民의 생활향상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金正日是 「主體思想에 대하여」에서 “物質的 자극을 중요시하고 政治道德的 자극을 次要視하는 것은 社會主義制度의 根本性格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며 “政治道德的 자극을 위주로 하여야 人民大衆이 나라와 革命의 주인으로서의 입장과 태도를 올바르게 가지고 자각적 열성을 내어 일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經濟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현실을 은폐하고 우리 나라와 美國에 대한 敵愾心을 자극하여 주민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속셈이다. 같은 共產國家이면서도 中共은 物質的

자극을 통해 社會主義를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반해, 북한은 政治道德的 자극을 優先視함은 매우 대조적이라 하겠다.

그리고 「主體思想」에 立脚한 「自主路線」과 「自力更生」原則으로 경제 발전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은 自明하다. 이것은 金日成體制維持를 위한 外部의 영향배제와도 관련된 것이지만 이러한 排他的이고 閉鎖的인 체제로 外國과의 交流와 協力を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으며, 더구나 오늘의 國際社會는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相互協力關係에서 모든 國家들이 발전해 나가는 만큼 북한의 이러한 排他的 路線으로는 經濟的 어려움을 타개할 수 없다.

또 對外關係에서 보면, 1970年을 前後로 북한은 「國際革命力量」을 강화한답시고 主體思想을 아프리카, 南美的 經濟的으로 아주 어려운 弱小國家들을 대상으로 선전을 대대적으로 벌여 처음에는 눈길을 끌기도 하였다. 그러나 약소국가의 당면과제가 經濟問題였던 만큼 이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점차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우리가 物質的 支援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支持國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結論的으로 主體思想의 革命性·排他性·教條性이 金日成·金正日父子世襲體制的 옹호수단으로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住民의 生活向上과 南北關係 改善을 위해서는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

## 5. 統治機構

일반적으로 共產國家에서의 權力構造의 특징은 共產黨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또한 권력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共產政

權이라 해도 그 권력을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예컨대 中共과 북한을 비교해 보면 中共의 권력구조는 分權的이며 集團指導體制이나 북한은 中央集權的이며 唯一獨裁體制이다. 즉 북한의 경우는 勞動黨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으나 실제로는 金日成偶像化와 族閥政治, 그리고 權力世襲이라고 하는 金日成1人獨裁體制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金日成唯一獨裁體制를 뒷받침하고 있는 統治機構의 기능과 위치를 정리하고자 한다.

### 가. 勞動黨의 機能

共產國家에서는 共產黨이 국가기관 및 모든 사회단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레닌은 “인민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영도하기 위해서는 단면된 共產主義者가 필요하며 이러한 집단이 黨이다. 만일 黨이 소멸한다면 프롤레타리아獨裁體制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여 共產黨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였으며, 또한 스탈린도 “소련에서는 共產黨 이외에 다른 정당이 존재치 않으며 共產黨만이 유일하고도 합법적인 정당”이라고 하였다.

즉, 1936년에 제정된 스탈린 憲法은 “共產黨이 모든 勞動者들의 단체와 국가기관의 지도자적 핵심을 형성하는 勞動者의 前衛組織”이라고 규정하였는 바 共產黨의 위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勞動黨은 朝鮮人民을 위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위하여 전력을 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勞動黨은 金日成主體思想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있는 만큼 다른 共產國家에서의 黨의 기능과 위치에 비추어 보면 상이하다고 하겠다.

勞動黨은 1945년 이후 6차례의 黨大會를 가졌는바, 第6次勞動黨大會는

1980年 10月 10日에 개최되었다. 여기서 黨規約이 개정되었는데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다.

6次黨大會에서 개정된 黨規約에 의하면 「黨의 지도지침」을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혁명사상”으로 명시하였다.<sup>37)</sup> 말하자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표현한 구절을 빼버린 것이다. 그렇게 놓고 보면 북한의 勞動黨의 기능은 마르크스·레닌主義보다는 金日成主體思想을 앞세우고 있으며 黨의 위에 金日成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黨大會를 4年에서 5年마다 개최하도록 변경하였다.

또 黨中央委員會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다. 黨規約 14條에 의하면 “黨大會가 없을 때는 당대회가 선출한 당중앙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또 52條에는 “조선인민군총정치국과 중앙기관내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은 당중앙위원회 직속이며, 그 지도하에 사업한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政務院에 속해있는 人民武力部가 金正日이 장악하고 있는 黨中央委에 이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金正日에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주어졌음을 말해 주며, 한편으로는 金正日體制 構築에 軍部の 힘이 불가결의 要因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26條에 비서국은 “필요시 당인사 및 당면문제 등 당내문제를 토의, 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 지도한다”고 되어 있다. 黨內에서 秘書局의 기능과 역할이 권력의 핵심임을 재확인하게 된다.



註 37) 「北韓資料」(國土統一院, 82.7), p. 260 참조.

## 나. 社會主義 憲法

北韓은 1972年 12月 27日에 제정한 憲法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이 憲法을 「社會主義 憲法」이라 부른다. 이 憲法의 특징은 金日成 1人에게 권력을 집중하기 위해 全體主義的 共產獨裁性向을 반영하고 있는 점이다. 共產主義體制에서 憲法은 黨規約의 下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憲法 第4條에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 憲法에서 신설된 제도와 기능을 통해서 권력구조의 제도적 특징을 알아보자.

이전의 憲法에서는 內閣首班制度였으나 社會主義憲法에서는 國家主席制度를 신설했다. 憲法 第89條에 의하면 “國家主席은 국가의 首班이며 국가주권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憲法 第6章에 열거한 主席의 권한을 보면 主席은 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中央人民委員會의 首位이며 이를 직접 지도·감독하고, 최고집행부인 政務院을 지도·감독할 뿐 아니라 人民軍最高司令官과 國防委員會委員長職을 겸하며, 法律·政令公布, 條約의 批准 폐기, 外國大使의 信任狀接受, 特赦執行權 등 行政은 물론 立法, 司法 및 軍事에 걸쳐 모든 핵심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권력이 金日成에게 주어진 만큼 이 主席制度는 金日成 1人獨裁를 뒷받침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또 第90條에서 主席은 最高人民會議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환한다는 조항은 없다. 主席과 副主席의 관계는 第99條에 “副主席은 主席을 보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內閣首班制度時에는 副首相은 首相의 缺석시에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행 憲法에서는 이 조

항이 없다. 여기서 主席의 막강한 영향력과 권위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로 「中央人民委員會」라는 기구를 설치하였다.

憲法 第100條에 中央人民委員會를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구성원수는 15人인데 거의 勞動黨의 黨政治局員 또는 黨秘書들로 구성된다. 즉 黨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겉으로 보면 黨과 정권기관이 별개로 二元組織같이 보이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 보면 勞動黨 우위의 一元的 지휘·감독체계하에서 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主席이 中央人民委員會의 서열 首位가 되어 委員會를 직접 지휘·감독, 통제하며 委員의 선출·소환을 最高人民會議에 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主席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다. 이러한 中央人民委設置는 金日成 1人을 보좌하는 기구가 신설된 것인 만큼 1人獨裁의 기능이 강화된 것임을 말하여 준다.

셋째로 政務院은 憲法 第107條에 最高主權機關의 행정집행기관으로 규정하여 主席과 中央人民委員會가 지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中央人民委員會가 黨의 政治局 秘書局員으로 구성되는 만큼 政務院은 黨의 결의 사항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政務院은 勞動黨에 종속되어 있다고 하겠다.

1983年 5月 현재로 政務院은 總理(李鍾玉) 1人, 第1副總理(姜成山) 1人 그리고 12명의 副總理를 두고 있으며 그 組織은 14개 委員會, 16개 部, 1개院(科學院)으로 구성되어 있다.

## 다. 最高人民會議

북한에서 最高人民會議를 인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北韓憲法 第 73 條에서 最高人民會議를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소련의 최고소비엘 또는 中共의 全國人民代表大會와 동등한 지위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最高人民會議는 형식적인 선거절차에 의해 선출된 代議員들로 구성된다. 代議員은 인구 3 만명에 1 명의 비율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代議員은 黨에서 지명된 단일후보자에 대해 단일합투표제에 의해서 선출된다. 임기는 4 년이며 임기중에 代議員이 사망했다고 해도 보궐선거에 의한 보충제도는 없다. 그리고 임기중에 「인민의 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면 黨의 소환에 의해 제거된다.

最高人民會議는 명목상 기능이 인민의 代議機關이라고 하지만 대의원 선출과정이나 共產體制의 특징에서 보면 勞動黨의 정책을 합법화하는 보조기관이다. 따라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勞動黨이 결정한 일방적 정책만을 지지하는 형식적인 참여에 그친다.

더우기 권한에 있어서는 1972 年 이전 憲法에 비해서 많이 약화되었다. 즉 舊憲法에서는 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長이 대외관계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現 社會主義憲法에서는 主席이 관장하고 있다. 기타 주요정책 결정권과 임면권 등의 권한이 새로 만들어진 主席과 中央人民委員會로 이관되었다. 1982 年 2 月 28 日에 北韓에서는 第 7 次 代議員 선거를 실시하여 615 명의 代議員을 선출했다. 이들 代議員들을 중심으로 4 月 5 日에는 7 期 1 次最高人民會議를 개최하여 向後 4 년간 北韓政權을 끌고 나갈 主席 및 副主席과 總理 등을 선출하였다.

1983年 4月 5日에는 7期 2次最高人民會議를 개최하였는데 83年度 예산규모인 2백 43억 3천 5백 만원을 의결하였으며, 또 康煜良 사망(1983年 1月)으로 결원이 된 副主席職에 林春秋(中央人民委員會 書記長)를 보궐선출하고 最高人民會議議長團(議長 黃壯燁, 副議長 許貞淑, 洪起文)을 전원 해임하고 議長에 楊亨燮, 副議長에 孫成弼, 呂燕九를 선출한바 있다.<sup>38)</sup>

## 6. 金正日世襲體制 構築

金正日是 1980年 10月 6次黨大會에서 당최고핵심부서인 政治局常務委員會 4위, 軍事委員會 3위, 秘書局에서의 2위로 金日成의 후계자로서 공식화되었다.

이후 北韓內部 동향은 金正日世襲體制的 공인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1981년에는 북한의 각종 기념행사(예컨대 朝鮮少年團創立 35돌紀念日, 社勞青 7次大會, 職業總同盟 6次大會 등)에서 “代를 이어 忠誠하자”는 구호하에 金正日의 權力世襲을 강조하고 있다. 1982년에는 金正日을 「卓越한 思想家」로 선전하면서 金正日의 偶像化에 착수하여 점차 各種手段과 方法을 동원하고 있다. 1983년에는 6월에 非公式的으로 中共을 방문하는 등 對外關係에까지 손을 뻗쳐 점차 對內外活動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註 38) 「北韓資料」, (國土統一院, 83.5), 政治編 참조.

## 가. 權力構造의 改編狀況

金正日이 권력상층부에 등장함에 따라 권력구조상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다. 1973~1975年 사이에 金正日의 측근인물인 林春秋(副主席), 吳白龍(勞農赤衛隊司令官), 全文燮(護衛總局長), 吳克列(人民軍總參謀長) 등의 당서열이 급상승하였다. 즉 서열 32위였던 林春秋가 8위로, 36위였던 吳白龍이 11위로, 24위였던 全文燮이 12위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萬景臺革命學院출신인 吳克列은 서열 109위에서 27위로 뛰어오름과 동시에 人民軍總參謀長이되었다.

또한 최근의 군부의 숙청작업 이후 萬景臺革命學院 출신들이 군지휘계통의 요직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吳克列 이외에 人民軍副總參謀長 金江煥, 勞動黨軍事部長 金斗南 등이 萬景臺革命學院 출신들이란 점에서 입증된다.

한편 反對派의 지위격하와 숙청이 아울러 나타났다. 즉 金聖愛가 1971年 5次黨大會時 黨序列 67위에서 105위로, 金英柱(黨政治委員)의 탈락, 金東奎(副主席)와 李勇武(人民軍總政治局長), 그리고 柳章植의 숙청 등이 그것이다.

또 경제성과를 통해 金正日의 체제강화를 기도하고 있는 만큼 경제지도 체제와 엘리트들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1981年 9月에는 경제부서 중심으로 政務院機構를 축소 조정하였다. 道 이하의 행정위원회를 경제지도위원회로 개편한바 있다. 黨第6期7次全員會議(6.15)에서 당지도부인 비서국에 경제전문가 2명(안승학, 채희정)을 보장시킨바 있다.

특히 1982年 2月 28日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1983年 3月 6日의 市·郡人民會議代議員 선거를 계기로 金正日은 더욱 권력체계를 강화하게 되었으며, 또한 1982年 4月에 행정기구개편시에 소위 「국가보위기능」을 담

당할 기구들을 정권기관으로부터 분리하여 金正日이 직접 장악하도록 黨中央委에 귀속시켰다. 이같은 변동은 金正日의 정책집행 능력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 나. 金正日의 行跡 및 活動狀況

金正日의 경력은 다음과 같다.

日 字	內 容
1963年	金日成大學 卒業
1964 ~ 1966年	護衛總局에서 護衛責
1967 ~ 1969年	黨組織指導部 근무
1970年	黨藝術文化部長
1973年	黨中央委 組織 및 선전담당비서 ※ 同年 9月 黨全員會議에서 후계자 결정
1976 ~ 1980年	對南工作事業 管掌

또한 金正日이 6次黨大會에서 그의 지위가 공식화된 이래 1981년 이후 「실무시찰」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행사에 나타났으며 金日成의 「현지지도」를 보완 독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간의 「실무시찰」 활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日 字	活 動 內 容
1981. 5.18 ~ 22	묘향산 지구
8.16	泳上館 및 千席食堂 건설 현장
9.18	人民大 學習堂
12.21	모란봉경기장 및 조선예술 영화촬영소 야외촬영 거리
1982. 2.16	모란봉경기장 건설현장
4.15	金日成 70 회 생일준비상황
1983. 4.20	南浦閘門 건설현장
6.27	政治大學
8.24	玉流館 (宴會場)

金正日의 실무시찰 활동은 지도역량 및 치적과시로 연결되는데 예컨대 시찰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즉석에서 들어 주었다느니 또는 직접시찰하여 사업이 빨리 完工되었다느니 또는 金正日의 배려에 의해서 이룩될 수 있었다느니 하며 선전되고 있다.<sup>39)</sup>

어쨌든 金正日이 북한주민들로부터 지지와 인정을 받기 위해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가를 추정해 볼 수 있으며, 金日成은 金正日에게 권력을 세습할 생각을 일찌기 갖고 있었음을 金正日의 경력을 근거로 알 수 있다.

이 외에 金正日是 1982年 2月 28日에 最高人民會議代議員에 선출되었으며, 4月 25日 人民軍創軍 50 週紀念行事 및 연회에 나타났으며, 그리고 10月 5日에는 人民軍教育機關敎員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군부에까지 영향력을

註 39) 「北韓資料」 (國土統一院, 83. 6), 政治編 참조.

과시하고 있다.

특히 1983年 6月에는 金正日이 비밀리에 中共을 비공식 訪問함으로써 북한·中共간의 관계가 더욱 두텁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金正日의 外交力量을 선전하고 있다.

#### 다. 金正日의 偶像化實態

金正日을 偶像화하는 각종 方法은 金日成의 偶像화 方法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偶像화는 外部世界와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北韓住民에게 반복·주입되고 있으며 보다 심각한 것은 허구와 날조로써 北韓住民을 오도시키는데 있다.

1980年 이전에 이미 「黨中央」이라는 별칭과 함께 「향도의 별」이니 「미래의 태양」이니 하며 金日成이 사용했던 「별과 태양」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神格화하는 方法에도 金日成偶像化 方法과 유사하다. 예컨대 “앉은뱅이도 서게 하며 장님도 눈을 뜨게 하는 神通力을 지녔다”느니 “天地擴張術과 시간을 주름잡는 縮地法을 쓴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金正日史蹟館, 金正日學習研究室을 설치하여 선전의 거점으로 삼고 있으며 또 各道, 郡, 機關, 企業所 단위로 「金日成·金正日 德性發表 모임」을 갖도록 하여 盲目的으로 충성하도록 세뇌시키고 있다. 더우기 金正日偶像化를 고취하는 노래(수령 따라 천리, 당을 따라 천리 외 30곡), 逸話集(영원한 성과), 그리고 「인민의 지도자」란 책을 발간하여 학습시키고 있다.

더우기 1983年 6月을 전후해서는 “金日成과 金正日是 노동계급의 수

령<sup>40)</sup>으로 동시에 선전하고 있다.

북한은 해외·친북단체 또는 인물로부터 보내온 각종 축전 등을 각종 국내신문 및 방송에 보도하여 마치 金日成과 金正日이 해외에서 절대적 지지와 찬양을 받고 있는 것처럼 北韓住民들에게 선전하고 있다.

이처럼 金日成·金正日 세력들은 世襲體制를 構築하기 위하여 우상화 책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반면 이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北韓內部的 反體制的 저항요소들은 누적되어온 것이지만, 더욱 심화 가열된 것은 金正日이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이다.

최근 勞動黨內부에 金正日世襲問題에 抵抗要素들이 있음을 다음의 論調에서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최근의 「로동신문」에 의하면 “당이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외부의 원수들의 침략과 내부 원수들의 반항을 철저히 짓부시고 사회주의 위업을 보위하기 위한 것”이다. “종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당내 사대주의·교조주의·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사상을 부식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면서 어려운 시기마다 당에 도전해 나서고 있다”고 했다.

이상에서 우리는 黨內부에 “주체사상으로 당의 통일단결”을 부르짖는 金正일에 대한 抵抗的 要素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黨內뿐만 아니라 軍부와 社會內부에서도 적지 않은 저항이 있음을 다음의 사건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

---

註 40) 「로동청년」, 1983. 6. 15. 참조.

日 字	內 容	備 考
1982.4 ~ 5	金正日 세습을 反對하는 軍將星 (12명) 을 숙청 또는 강등	뉴스위크지 (82. 7.16)
1982.6	中共 國防相 경표 訪北時 平壤駐在 中 共大使館에 軍幹部 集團亡命 要請	東京發 (82.10. 2)
1981.9	淸津直轄市 人民軍 및 勞農赤衛隊 무력 충돌	統一日報 (81.10.23)
1981.11. 5	신의주에서 3大革命小組와 黨·行政機關 종사자들이 충돌	統一日報 (81.12.29)
1982. 4.13	양강도 혜산과 함북 청진 나남지구에서 勞働者들이 金日成銅像 파괴, 金正淑紀念 地域 毀損	統一日報 (82. 5.20)
1982. 5	북한에서 유럽 및 日本代表團 人士 訪 問日程 取消	교오도통신 (82. 5.12)

상기한 事件들의 眞否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事件들이 金正日 世襲體制 構築過程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 7. 結 言

이제까지 북한공산체제를 政治的 측면에서 金日成體制的 형성과정과 構造, 그리고 金正日世襲體制的 屬性을 考察해 보았다. 소련의 占領地域 共產化

의 産物인 북한은 體制正當化를 위해 革命一邊倒로 主體思想을 中心으로 한 唯一思想을 강조하며, 나아가 階級鬭爭을 고취하고 金日成 唯一의 偶像化 그리고 族閥과 金正日 唯一世襲體制로 일관하여 踰달음치고 있으며 對外的으로는 계속 好戰性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민족통일이란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이제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소련占領軍에 의한 共產化과정에서도 反民族的 非人間的이었지만 政權의 強化 과정에서 더욱 反民族的 非人間的 性向이 강하게 드러났다. 즉 金日成에 의한 社會主義改造는 社會·經濟·文化의 모든 部門에서 黨의 指導·統制하에서 「集團主義」, 「民族的 形式과 社會主義內容」이란 기준에 따라 民族的 傳統 및 가치관의 말살, 그리고 人間의 個性과 創意性을 무시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39年間の 통치과정에서 보면 金日成은 政治·社會的으로 내부에서 끈질기게 저항하는 여러 要素들을 革命이란 명분하에 점차 強壓手段을 동원하여 제거하여 온 것이다. 즉 초기에 肅清과 社會主義改革(1958年), 그리고 社會集團의 組織強化(1960年初)와 3大革命小組動員(1973年), 그리고 權力 및 情報機能強化(1980年前後) 등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갈등 구조와 屬性을 띠고 있는 북한 共產體制에서 主人은 金日成이고, 1,840萬 住民은 獨裁와 閉鎖된 統治의 울타리에서 다만 金日成·金正日世襲體制를 위한 勞動의 動員對象으로 存在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強力한 金日成 1人獨裁體制라고 하더라도 虛點이 있게 마련이다. 즉 金日成의 長期獨裁로 인한 權力的 硬直現象과 族閥 및 共產貴族形成과 부패 등으로 住民과 權力層과의 違和感이 팽배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世代變化에 따라 金日成의 革命世代들이 사라진 후에 예상되는 變化와 1980年代의 南北競爭狀況에서 韓國이 壓倒的으로 우세하였을 때 북한의

民心動向과 관련해서 虛點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對外的으로는 共產圈에서 나타나는 開放化와 自由化의 영향을 피할 수 없으므로 變化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遼和·葛藤·反目·逆調는 북한體制의 弱點이다. 이러한 弱點에 서 體制에 대한 抵抗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으나 실제로 강압수단으로 統治하는 現 權力體制下에서는 集團의 抵抗이 어렵다. 그러나 集團의 抵抗이 표면에 나타날 수 없을 뿐이지 內部에 도사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언제 밖으로 表出되는가 하는 것은 條件과 契機의 문제 이다.

短期的으로 확실성 있는 變化狀況은 革命世代인 빨치산世代의 退陣과 金日成의 死後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만일 金正日이 지금의 金日成의 權威와 權力을 그대로 물려 받아 1人 獨裁를 하게 되면 南北關係를 모험적으로 解決할 可能性이 있으므로 더욱 불안정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金正日의 1人獨裁보다는 集團指導體制의 出現이 더 확실할 것 같 다. 그 이유는 金日成의 族閥內의 複雜한 家族關係, 즉 南北對話時 第2 人者였던 金英柱와 金正日間의 權力鬭爭, 金正日과 金日成 後妻인 金聖愛와 의 反目對立, 그리고 異腹兄弟들 間의 暗鬭 등이 單獨權力 掌握을 어렵게 한 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中共, 소련에서 毛澤東, 스탈린 死後에 政治 混亂을 克服하기 위하여 集團指導體制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이 북한에서 도 있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軍部가 金正日唯一世襲을 원치 않을 경우인데, 그간의 軍部 의 심상치 않은 內部動向을 미루어 보아 集團指導體制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金日成死後 集團指導體制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南北關係는 緊張度의 감소와 함께 變化를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테크노크라트를 중심으로 하는 集團指導體制가 등장하면 이들은 이데올로기보다는 實利와 合理性을 추구하는 實用主義的 路線을 채택하여 南北關係를 긴장완화방향으로 이끌어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南北關係의 變化가능성을 놓고 보면 통일의 여건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것에 대비해서라도 北韓共產體制에 대한 정확한 實相 把握과 올바른 評價가 요청된다.

## Ⅱ. 北 韓 의 經 濟

李 世 震

(前 國土統一院 補佐官)



# 目 次

1. 序 言 .....	57
2. 北韓의 經濟體制와 政策의 基本方向 .....	59
가. 經濟體制 .....	59
나. 經濟政策의 基本方向 .....	65
3. 南北韓 經濟力量比較 .....	68
가. 人口와 面積 .....	69
나. 總量부문 — 國民總生産 ( GNP ) .....	73
다. 財政부문 .....	75
라. 農業부문 .....	79
마. 鑛工業부문 .....	83
(1) 鑛物資源 .....	83
(2) 에너지産業 .....	86
(3) 製造業 .....	92
바. 輸送부문 .....	98
사. 對外貿易부문 .....	100
아. 住民生活水準 .....	104
4. 北韓經濟의 構造的 問題點 .....	107
5. 結 言 .....	111



## 1. 序 言

북한은 아직도 1930年代의 「스탈린」型 經濟行政組織을 보다 충실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모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住民들의 物質的·文化的 生活수준의 향상보다 赤化統一을 위한 革命武裝力의 증강에, 또 食糧의 自給을 위한 農業開發보다 政治經濟的·軍事經濟的 논리에 따른 重工業 우선과 偏重에, 생산력의 증강과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物質的 刺戟 (Material Incentive)보다 共產主義的 思想과 道德의 革新 (Moral Incentive)에 항상 政策的 重點과 우선을 두어 왔다.

따라서 北韓의 經濟體制 및 政策推進 유형은 경제활동에서 경쟁이나 개인의 選好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典型的인 獨裁모델 (Dictatorship Model)<sup>1)</sup> 또는 中央集權的 行政管理模型 (The Bureaucratic Centralized Model)<sup>2)</sup>으로서 經濟的 합리성 보다는 政治的 합목적성을, 技術官僚 즉 「테크노크라트」(Technocrat)의 실용성보다는 熱誠黨員, 즉 「레드」(Red)의 黨性과 革命性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經濟體制와 그 활동은 우리의 自由資本主義經濟의 그것과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실태를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어

---

註 1) Jan Drevnovski; The Economic Theory of Socialism: A Suggestion for Re-conside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Aug. 1961, p. 341

2) J. Wilczynski, The Economics of Socialism, George Allen & Unwin Ltd, London: 1982, p. 47

J. Wilczynski는 社會主義經濟體制를 경제관리조직과 資源配分側面에서 1) 중앙집권적 행정관리모형 (The Bureaucratic Centralized Model) 2) 중앙집권적 계량계획모형 (The Planometric Central Model) 3) 선택적 분권화모형 (The Selectively Decentralized Model) 4) 시장보완모형 (The Supplemented Market Model)으로 구분하고, 특히 1) 유형에는 北韓과 「알바니아」를 4) 유형에는 「유고」를, 기타 공산제국은 2) 내지 3) 유형에 속한다고 밝히고 있다.

려움이 있다. 특히나 북한은 여타 共產國家 중에서도 가장 閉鎖적이고 硬直인 집단의 하나로서 그들이 발표하는 統計數値나 자료는 그들의 政策 및 業績을 合理化하여 宣傳과 煽動에 活用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學術的 價値나 信憑性은 거의 의문시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一般的인 通念이다.<sup>3)</sup>

그러나 이마저도 1965年 이후, 즉 그들의 經濟事情이 결정적으로 沈滯局面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이후로는 철저한 保安統制下에 統計數値의 발표는 거의 중단하고 있는 형편이다.<sup>4)</sup>

아울러 북한의 실상과 動向을 파악하는 데에는 市場에서의 競爭原理에 입각하고 있는 資本主義 國家에서와는 다른 방식에 의거하여야 하며, 또한 그 接近方法의 정립뿐만 아니라 概念 및 比較基準의 설정도 명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가급적 북한이 과거 발표한 자료나 統計를 근간으로 하여, 최근의 기타 자료들을 評價·分析함으로써 북한 경제실태를 현실 그대로 客觀적으로 評價코자 하는데 力點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본 교재에서는 먼저 북한의 經濟體制와 體制展開過程에서 수반된 經濟政策의 특징을 살펴보고, 北韓經濟의 각 部門別 실태를 南北韓 經濟力量比較·평가라는 시각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는 비교와 평가를 통해 우리 經濟·社會體制의 우월성과 우리 經濟의 成長 및 發展潛在力量을 立證코자 하는 첫째 目的外에도, 南北分斷과 對

註 3) 國土統一院, 北韓經濟統計集, 1981, 참조.

4) 당시는 1961年에서 1967年에 걸치는 第1次 7個年經濟計劃期로서, 同計劃은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3年間을 연장하여 1970年에 마무리지었다고 5次黨大會에서 발표한 바 있다.

峙의 현실 아래에서 살고 있는 우리로서 우리 경제의 強點과 優越性を 極大化해 나가고, 아울러 우리 경제의 일부 脆弱點은 極少化내지 修正·補完해 나가는 노력의 方向을 찾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北韓經濟實態를 構造的으로, 또한 計量的으로 검토하여 보면 여러 가지 部門에서 北韓經濟가 처해 있는 많은 문제점이 導出되는데, 이를 몇 가지로 要約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巨視的이고도 長期的인 시각에서 볼 때, 北韓經濟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變化樣相을 띠게 될 것인가를 豫測하여 봄으로써 北韓經濟實態 批判의 結論으로 삼고자 한다.

## 2. 北韓의 經濟體制와 政策의 基本方向

### 가. 經濟體制

일반적으로 經濟體制란 人的·物的 諸資源의 配分方式의 特征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概念이다.

따라서 「쑤바르트」는 經濟體制區分의 기준으로 ① 經濟精神 ② 技術 ③ 秩序와 組織으로 대별하였고, 社會主義經濟學의 泰斗라 할 수 있는 「마르크스」는 ① 經濟精神 ② 生産手段의 所有形態 ③ 經濟的 配分決定 機構를 들고 있다.

그러므로 自由資本主義 經濟體制란 個別慾望充足에 우선순위를 두고, 私有

財産制度의 기반위에서 價格機構 (Price Mechanism)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資源의 配分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개인의 合理的인 利潤追求를 經濟活動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國民經濟에 있어서 投資와 生産활동의 주체는 개인 또는 개인기업이 위주가 되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市場의 競爭原理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價格機構를 통한 자율적인 資源配分과 利潤動機에 입각한 創意的인 生産활동은 經濟의 成長과 발전에 있어 매우 效率의임은 再言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共產主義 經濟體制下에서는 共同慾望充足<sup>5)</sup>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生産수단의 私有를 부정하고 中央集權的 계획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資源配分을 하고 있으며, 또한 「마르크스」理論을 바탕으로 경제를 운용하고 있다.

「마르크스」主義者들은 경제의 成長이나 발전보다도 分配의 문제에 力點을 둔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貧困의 均等分配, 즉 住民統治의 수단으로 「均貧」을 고의적으로 操作하거나 추구한다. 그러면서 資本主義體制에 있어서는 經濟가 발전하면 할수록 「貧益貧」과 「富益富」가 深化되어 일반대중은 계속 貧困과 饑餓에 시달리고, 소수의 地主·資本家 계급들만이 富를 누리는 「顛倒된 社會」를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顛倒된 社會」란 본래 勞働者가 支配해야 할 사회에서 勞働者는 축출당하고 대신 資本家가 支配하고 있다고 보며, 이는 主客이 전도된 것이라는 뜻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勞働者들의 革命에 의한 「프롤레타리아」의 共同社會를 실현시켜

---

註5) 이는 실제로 당 및 政權機關, 그리고 군부의 慾望이다.

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理論的 근거는 「마르크스」의 資本論에서 제시한 勞動價值說, 剩餘價值論, 資本主義崩壞論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理論의 모순과 虛構 외에도 資本主義의 發展歷史를 볼 때 그러한 주장과 詭辯은 거부되어질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資本主義가 고도로 발달된 先進國에서는 共產化의 위협이 없고, 오히려 中南美나 아프리카와 같은 後進된 지역이 共產化의 위협을 받게 된다<sup>6)</sup>는 사실은 資本主義經濟體制가 발전될수록 모순에 직면하기 때문에 革命이 필요하다는 「마르크스」主義者들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共產主義는 資本主義에 성공한 先進國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는 반면, 資本主義 발전에 失敗한 後進國에서 발붙일 수 있다는 사실이 이를 立證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로스토우」(W.W. Rostow)는 共產主義를 資本主義 發展에 失敗한 나라들이 감염되기 쉬운 「過渡期의 疾病」(A Disease of Transition)이라고 말하였다.

어쨌든 共產國家의 經濟體制에서는 생산수단의 私有가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모든 資源의 配分, 직업 및 가격의 결정 등이 中央集權的인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共產國家 經濟體制의 基本前提下에서 볼 때, 北韓 經濟體制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註6) 最近 Neo-Marxism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는 「從屬理論」(Dependency Theory)로 中南美와 아프리카의 後進國家들을 實驗과 研究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은 주목할 바이다.

첫째, 생산수단의 國公有化를 들 수 있다. 7) 北韓은 지난 1950年代 後半에 들어와서 모든 개인의 私有財産과 商工業을 그들 특유의 「利用·制限·改造」라는 3단계의 欺瞞戰術을 驅使하여 완전히 消滅시켰으며, 압력과 강제적 수단으로 國營 또는 協同團體에 흡수시켰던 것이다. 이후 協同團體所有도 점차 國有化해 나갔다. 또한, 1980年 10月 6次 黨大會에서는 既存의 協同農場도 점차적으로 國營化해 나갈 것임을 언명하고 있음에 비추어, 소련을 위시한 東歐諸國과 최근 中共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은 私有내지 民間部門의 擴大<sup>8)</sup>와는 정반대의 길을 北韓은 가고 있다 하겠다.

北韓에서 생산수단의 社會化 과정을 보면, 1946年 2월에 조직된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이른바 「民主改革」이라는 명목으로 「無償沒收·無償分配」의 원칙에 의해 土地改革과 工場, 鑛山, 鐵道, 遞信, 銀行機關 등의 重要産業을 國有化하였다. 9) 또한 1947年부터는 산업에서의 國有化 부문을 계

註 7) 北韓에서의 所有形態는 소위 그들의 「社會主義憲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18 ;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 § 19 ;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원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 § 20 ;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부림집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공장·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
- § 21 ; 국가는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히 발전시키며…………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 § 22 ;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소비를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8) J. Wilczynski, Economics of Socialism과 中共의 중앙통계국 발표 등에 따르면, 소련의 경우 전체 농경지면적중 1.4%가 사유경작지이며, 여기에서 소련 전체 육류생산의 30%, 과일생산의 50%, 채소생산의 30%를 담당하고 있다 한다. 또한 유고와 폴란드는 전체 농경지면적중 75%가 私營農耕地이며, 폴란드의 경우 사영농경지에서 전체농업생산의 95%를 담당하고 있다. 「4대 현대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中共은 최근에 인민공사의 해체로 自留地가 전체 농경지면적중 20%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사영기업이 1979年 15만개에서 1982年末로 300만개에 달하고 있다 한다.

9)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교재, 1964, p. 16, p. 167.

속 증대시키는 한편, 農·水産業 부문에서는 國營農牧場, 水産事業所 등을 확대시키는 「社會主義的 改造」를 급진적으로 실시해 나갔다. 그러다가 1953年 休戰 후부터는 「社會主義復舊·建設」을 본격화함에 따라 「農業의 集團化와 개인 商工業의 社會主義化」를 더욱 강행함으로써 1958년까지 불과 12年만에 「社會主義的 改造」를 일단 완성시킨 바 있다.

둘째, 前述한 生産手段의 國公有化와 農業의 集團化를 바탕으로 中央集權的 計劃經濟를 실시하고 있다.

즉 모든 生産指標는 中央計劃當局<sup>10)</sup>의 획일적인 統制와 調整下에서 관리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中央銀行은 「원에 의한 統制」를 실시하여 모든 工場·企業所의 生産·流通活動을 調整·監督하고 販賣製品 및 用役 (Service)의 가격은 國家計劃委員會의 「價格裁定局」에 의하여 公定制로 결정된다.

이와 같은 公定價格制가 內包하고 있는 문제를 金日成 자신도 실례를 들어 지적하고 있는데, 그 실례를 들면 平安北道 昌城郡 所在의 郡商店에서는 실 200g을 들여서 짠 撚絲織物의 값이 미터당 3원이고, 50g의 실 한 토리 값은 5원 40전이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네 토리에 상당한 실을 꼬아 천을 짜서 염색한 織物보다 한 토리의 실값이 배나 비싸게 價格이 매겨졌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價格問題 외에도 中央集權的 計劃管理體制는 「機關本位主義·地域割據主義」등으로 대변되는 上部의 計劃機構와 지방 및 下部執行機構間의 摩擦과 압력은 물론, 計劃機構와 執行機構에 걸쳐 創意와 能率의 缺如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官僚主義의 팽배는 無事安逸과 責任轉嫁에 급급하는 風潮를 만연시킴으로써 生産성의 低下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북한을 비롯한 共產圈諸國 經濟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따라서 소련이나 東歐諸國과 최근의 中共에서는 이와 같은 모순과 非能

註 10) 중앙계획당국은 소련의 경우 고스플랑(Gosplan), 고스뱅크(Gosbank)이며, 북한의 경우 소위 「國家計劃委員會」와 「朝鮮中央銀行」이 이에 해당된다.

率, 그리고 低生産性を 시정하기 위하여 生産企業에 利潤制度의 導入<sup>11)</sup> 과 獨立採算制의 전면 실시를 기하고 있다. 그리고 生産活動의 創發性和 效率을 提高시키기 위해 決定機能의 下部分散 등의 조치를 통해 그들 體制가 안고 있는 構造的 모순을 是正·補完하기 위한 制度의 改革과 體制의 緩和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sup>12)</sup> 이러한 사실은 共產主義國家가 自由市場의 競爭原理에 입각하고 있는 資本主義經濟體制와 制度상의 原理를 일부 導入한 것이기 때문에 「修正主義」라고 부른다.

이에 비하여, 북한은 制度 및 管理運營上의 일부 改革은 다소 있었다 하나, 1930年代 소련이 취하였던 中央集權의이고 指令的인 計劃經濟體制를 계속 견지하고 있으며, 또한 「레닌」이나 「스탈린」의 전통적 共產主義를 與件이나 狀況의 변화와 특성을 考慮함이 없이 무조건 踏襲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教條主義」라고 부른다.

註 11) 소련에서 자유주의적 改革에 대한 요구는 Starlin 死亡 以後부터 꾸준히 있어 왔는데 Liberman 은 이미 1948年 「모스크바」에서 열린 「경제학자회의」에서 利潤의 概念 및 그 도입의 必要性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었으며, Starlin 死亡 以後 그의 의견이 容認된 것은 1962年 9月 그의 論文이 Pravda 紙에 발표되고 Khruschchev 에 의해서 지지된 이후 부터이다.

J. Wilczyński, Profit - Risk and Incentive under Socialist Economic Planning, 1973 p. 11

그리고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969年 10月 이러한 「利潤指向型」經濟로 이행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우선 「시스체노」 화학공장에 일련의 實驗을 행하였으며, 이러한 實驗의 결과를 토대로 동 공장을 중앙계획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시범공장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同年에 동공장이 이룩한 실적으로서 노동생산성 87%, 전체 생산량 약 70%가 증대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12) 오늘날 공산경제체제는 제한적이거나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증대시키고 가격기능을 인정함으로써 해서 국가경제계획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J. Wilczyński, 前掲書, p. 24.

New Direction in the Soviet Economy, Studies Prepared for the Sub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1966

國土統一院, 소련경제의 새방향, 1980, Chap I, II 참조.

## 나. 經濟政策의 基本方向

오늘날에도 硬直인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북한은 「社會主義의 완전한 승리」를 달성한다는 명분으로 생산관계의 「社會主義的 개조」를 급속히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社會主義의 物質的·技術的 土臺를 강화한다」는 命題에서 출발하여 「社會主義的 工業化와 人民經濟의 技術적 건설」을 그들 經濟政策의 基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自立的 工業基盤」을 확보함으로써 社會主義 建設을 앞당기고 아울러 궁극적으로 北韓의 革命基地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韓半島의 共產化統一을 달성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目標와 方針에 따라 북한은 量的 成長 위주의 戰略下에 重工業 優先政策을 채택함으로써 결국 宣傳效果에 급급하는 生産활동과 産業構造의 跛行性을 초래하여 成長의 鈍化내지 沈滯狀態에 빠지고 말았다.

이러한 북한의 經濟現實을 초래한 주요 경제정책 내용을 要約하면 다음의 네 가지가 된다.

첫째, 生産의 量的인 目標에 집착한다. 그러므로 이는 「勞動定量(Norma)」과 生産目標量 달성에 급급하는 획일적이고도 타율적인 經濟活動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이 되며 아울러 創意와 能率을 度外視하는 성향을 深化시키게 된다. 이같은 현상은 生産品의 質的인 低下와 제품의 單純化現象을 초래하게 된다. 즉 官僚主義的 生産管理制度의 모순이 심각하게 逆機能으로 투영된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북한은 이를 解消하기 위해 政治·思想的 刺戟法과 人間관계적 接近法에 의한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도 強制性과 規範性을 강조함으로써 그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더우기 物的 誘因의 제공에는 신경을 쓰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둘째, 自力更生, 즉 自給自足型 經濟建設의 추진이다. 이는 閉鎖社會에서의 「아우타르키이」(Autarkie)의 堅持를 의미하며 國際分業의 이익을 향유할 수 없는 제약과 이밖에 産業技術·文化 등의 교류억제로 인해 전면적인 국가발전에 沮害要因이 된다. 우리는 李朝末葉에 大院君의 鎖國政策이 근대화를 지연시킴으로써 얼마나 큰 제약을 받아 왔는가를 역사적으로 경험하였다. 현대에 있어서도 북한은 石油化學工業과 電氣電子工業의 낙후는 「아우타르키이」가 가져온 한 실례이며, 「아우타르키이」는 이밖에 전반적으로 산업발전과 문화의 발전에 큰 制約을 주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70年代에 들어와 6個年 經濟計劃(1971~1977)을 立案하면서부터 이에 필요한 資本과 設備投資를 조달하기 위해 어느 정도 對外貿易의 증대와 더불어 經濟協力の 擴大政策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國際經濟秩序에의 適應努力을 전개하였으나 북한의 對內外的 여건의 未備로 그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中·소 등 外國技術의 內容模倣에만 급급하였던 북한이 技術革新의 걸 박함을 깨닫고 産業의 系列化까지도 고려하고는 있으나 先進技術의 導入을 위한 체제의 緩和와 開放化의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所期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셋째, 北韓이 추구하고 있는 重工業優先政策은 成長과 발전의 단계에 있어서나, 資源配分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나, 鑛業開發, 기초시설재공업, 중간원자재공업, 최종소비재공업의 순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생산재공업 부문과 소비재공업부문의 격차를 深化시킴으로써 근대적 공업화의 基本要件인 質的 高度化 생산구조의 多樣化라든가 聯關産業의 均衡的 발전을 어렵게 만든다. 그리하여 북한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地方政權機關 중심으로 소비재생산 위주의 地方工業 設립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따라 分權的 管理體制로의 전환을 다소나마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도 책임의 회피와 轉嫁에 급급한 官僚主義風潮의 만연과 「黨의 指導」의 강화라는 規制로 그 成果 역시 여의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sup>13)</sup>

네째, 「國防·經濟並進策」으로 인한 軍事費의 팽창이다. 이는 1960年代初 「4대군사노선」의 채택과 함께 軍事力增強에 注力해 온 결과이다.<sup>14)</sup> 그러므로 이는 제한된 資源으로 「社會主義工業化」를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서 經濟開發을 위한 投資財源의 不足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成長潛在力의 蠶食, 나아가 資源配分構造의 왜곡까지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重工業優先政策과 함께 軍需産業의 육성과 연관되어 暴力革命에 의한 共產化統一을 공언하고 있는 그들에게 政策的 名分을 제공하여 주고 있는 반면, 民間 및 社會部門에 대한 극도의 統制와 「耐乏과 節約」에 의한 최대한의 蓄積은 결국 일부 特權層<sup>15)</sup>을 제외한 대부분의 北韓住民을 窮乏으로 몰아넣고 있다 하겠다.

註 13) 북한은 工業管理體系의 모순과 문제점 개선을 위해 「道經濟指導委員會」를 신설함으로써 既存의 「大安의 事業體系」를 일부 수정하고 있는 징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變化의 양상에도 불구하고 根本적으로 公營관리의 「당적 지도」는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노동신문, 1981.10.14.

“우리의 公營체제는 철두철미 중앙집권적이며 ………, 도당위원회 일군들은 도경제지도위원회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당적 지도를 끊임없이 강화하며, 도안의 모든 공장·기업소들에서 경제사업이 당의 의도에 맞게 진행 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4대군사노선」은 당시 中·소간 理念紛爭의 격화와 國境衝突, 쿠바 미사일사건 등, 공산권 내부의 긴장격화로 1962年 12月 黨第4期5次全員會議에서 採擇되었으며, 「國防·經濟並進策」은 이러한 와중에서 「國防에서의 自衛」를 제창하면서 “경제발전을 지연시키더라도 軍事力을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구호 아래 1966年 10月 당대표자회의에서 공식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5) 北韓의 일부 특권층은 소위 「4호대상」으로 불리워지며, 이들은 市·區域·郡당비서, 시·구역·군인민위원회 부위원장, 2급 공장·기업소 이상의 당부비서, 지배인, 기사장급 이상의 계층을 包含한다. 그리고 이들의 특권은 소련의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e)라는 공산귀족계급과 흡사하다.

### 3. 南北韓 經濟力量比較

經濟力이란 한 나라가 國民의 財貨와 用役に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나라 軍의 現代化에 필요한 造兵, 人力, 軍需 및 技術支援을 통해 組織化된 軍事力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基底가 되는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나라마다 投資와 交易을 통해 相互協力을 꾀한다.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國際經濟活動뿐만 아니라 國際貿易을 통한 資源과 市場의 확보에 의해서도 左右된다.<sup>16)</sup>

이러한 특징을 지닌 經濟力은 經濟生活의 多様な 局面에 걸쳐 여러가지 觀點에서 관찰해 볼 수 있는 복합적인 概念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測定은 수월치가 않다. 資源과 經濟構造의 효율성과 함수관계에 있는 國富와 生産力은 危機에 처했을 때, 그 나라의 機敏한 適應力과 直結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한 나라의 經濟力에 대한 또 다른 評價基準은 그 나라의 貿易構造와 떼 수 없는 관계가 있다. 經濟水準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原資材와 食糧등 生必需品에 대한 자립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經濟力量은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평상시의 先進産業社會에 있어 이같은 자급자족은 資産이라기보다 經濟的 犧牲이 強要되는 負擔이 된다. 즉 國際交易이 순조로운 때 交易과 投資를 많이 하는 나라는 自國民의 生活水準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財貨나 資本을 필요로 하는 다른 나라에 대해 실질적인 影響力을 행사할

註 16) Ray S. Cline, World Power Trends & U.S. Foreign Policy for 1980's, Washington D.C., Westview Press, 1980 참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기에 부딪혔을 때는 自立能力이 하나의 資産이 됨은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對外貿易과 投資를 끌어 올릴 수 있는 지렛대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한 나라에 중요한 要素가 다른 나라에서도 重要視되는 것은 아니다. 즉 開發途上國에서는 시멘트가 工業成長에 큰 힘이 되지만 先進國에서는 技術集約的 산업이 훨씬 유리한 것과 같다. 따라서 南北韓의 經濟力量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多樣한 經濟發展段階와 그 局面에서 관찰함으로써 量的인 經濟力만을 測定하는 데서 오는 흠을 補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本章에서는 部門別 力量을 量的인 측면뿐만 아니라 質的·構造的인 측면에서 現況中心으로 高찰코자 한다.

## 가. 人口와 面積

우선 한 나라의 力量을 評價함에 있어서 첫번째로 꼽히는 要素는 人口이다. 人口를 經濟的 측면에서 볼 때, 個個人의 能力과 科學技術習得力은 資源을 활용하여 物質的 富를 창출하고, 나아가 文化創造를 위한 政治·社會的 傳統을 다져 나간다. 그러므로 社會成員으로서 個個人의 意志와 能力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한 나라가 지닌 구체적이고 物質的인 資源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評價될 수 있다.

南北韓의 人口는 1982年 年央人口(Midyear Population) 기준으로 한국이 3,933 萬名, 북한은 1,849 萬名으로 推計되고 있으며, 人口增加率은 한국이 1.57%, 북한은 2.23%로 북한이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 높은 편

이다. 17)

이중 經濟活動人口, 즉 14세 이상 人口 중 收入을 목적으로 經濟活動에 從事하는 人口는 韓國이 1,508 만名으로 總人口의 38.3%, 14세 以上 人口 對比의 비율, 즉 經濟活動參加率은 56.8%이다. 이에 비해 북한은 經濟活動人口에 대한 概念適用이 불가능하나, 國際的 通用基準인 14세 이상 人口 중에서 未就業 家庭主婦, 學生, 老弱廢疾者, 軍人, 收監者를 除한 經濟活動人口는 900 만名으로 推定됨으로써 總人口의 48.7%, 經濟活動參加率은 75.2%에 이르고 있어 한국은 물론 소련이나 東歐諸國의 경우보다도 월등히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經濟活動人口가 절대적인 數値面에서는 적다고 하나, 總人口 對比率과 經濟活動參加率의 면에서 한국보다 높은 이유는 1970年 11月 5次 黨大會에서 「여성들을 부업에서 解放시킨다」<sup>18)</sup>는 決定에 따라 대부분의 家庭主婦가 産業生産活動에 동원되었으며, 또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敎示와 「60 靑春, 90 還甲」의 선동구호에 따라 社會扶助의 대상인 老人들마저도 거의 모든 生産活動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人民警備隊」를 비롯한 正規軍兵力의 過多保有와 特別獨裁對象區域 및

註 17) 北韓人口의 추계는 북한에 의하여 발표된 數個年度의 총인구 및 출생율, 사망율 등의 資料를 토대로 하여, 1 단계 작업으로써 1944年 5月 조선총독부의 國勢調査에서 나타난 한반도의 성별, 연령별 인구 구조를 근거로 1965年까지의 성별, 연령별 인구 구조의 추계가 이루어졌으며, 2 단계로 1965年 인구를 기초로 하여 1982年의 북한인구를 추계하였다.

또한 이는 북한의 대의원(인구 3만명당 1명의 골로 선출) 선거 결과와 비추어 검증하고 있다.

美 商務省의 북한인구추계 결과는 Model - I이 2,073 만名, Model - II 는 2,026 만名으로 나오고 있다.

18) 북한의 소위 「社會主義憲法」 第 62條에서는 '여성에 대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國家는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그결과 「밭공장」, 「찬공장」의 증설과 아울러 탁아소의 증설이 행하여졌다.

敎化所에 수용되어 있는 收監者가 많아 이 부문에서의 非經濟活動人口의 幅은 크다 할지라도, 上記한 家庭主婦의 강제적 就業과 죽을 때까지 勞動義務가 隨伴되는 老齡의 經濟活動人口 때문에 北韓의 經濟活動參加率은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高率의 經濟活動參加率에도 불구하고 강제적 動員社會와 統制社會에서 야기되는 勞動生産성과 그 능률의 低下는 피치 못하는 문제이다.

이는 體制 內部的 구조적 問題點 외에도 科學技術水準의 落後, 産業施設의 노후화에도 크게 起因한다 하겠지만, 主要要因은 物的 인센티브가 없고, 또한 있다 하더라도 消費財의 부족으로 誘因裝置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勞動意志와 生産意慾의 減退에 있다 하겠다.

북한은 이러한 難題를 해결코자 共產主義的 革命性, 思想性과 그 道德性에서 生産意慾을 증진시키려는 誘因을 발견코자 하고 있으나 이도 30餘年間 계속됨으로 해서 그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게 되고만 실정이다.

이러한 與件과 상황아래에서 最近에는 工場企業所의 빈번한 故障과 修理에 따른 操業中斷 및 原資材供給不足에 의한 稼働率 저조로 經濟沈滯 현상을 초래하고 있고, 아울러 工場稼働 중단으로 빛어지는 遊休人力의 活用 문제가 심각한 정책과제로 擡頭되고 있다.

그리하여 北韓은 當面 問題의 해결을 위하여 「4 대자연개조사업」<sup>19)</sup>이라는 名目下에 剩餘勞動力을 서해안의 干瀉地 開墾과 野山 및 遊休地 開發 또는 主要建設事業場에 集中 투입하고 있으나 根本的인 問題의 해결은 커

註 19) 社會主義經濟建設의 最大力點事業이라는 名目下에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1982年度 金日成 新년사에서 이를 밝혔는바, 그 내용은 80年代內에 간석지개간 30만정보, 새땅찾기 20만정보, 남포갑문건설, 태천발전소 건설을 完了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녕 오히려 사회적 不安要因만 조성하고 있다.

國土 역시 외형적 역량평가의 기초가 된다. 이는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賦存資源을 제공하고, 생산과 생활을 위한 空間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面積은 한반도 전체가 22만여km<sup>2</sup>인데, 이중 한국은 99,022 km<sup>2</sup>이고 북한지역의 面積은 122,098 km<sup>2</sup>로써 한국이 全國土의 45%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5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의 利用面에서는 한국의 경우, 平野地帶가 많고 지형지세가 완만하며 기후조건이 좋아서 農水産業과 交通운수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 하겠다. 더우기 좁은 국토이지만 국토의 綜合的 利用과 개발에 따라 全天候農業施設의 확충, 전국이 1日 生活圈에 속하는 高速道路網의 형성, 航空의 발달 등으로 국토의 이용면이나 활용이 매우 효율적이라 하겠다.

이에 비하여 북한은 국토 이용면에서 볼 때 험준한 산악지대가 많고 狼山林山脈으로 東西經濟圈이 분리되어 있으며, 또한 남북분단에 따른 東西海岸의 격리 등, 불리한 여건으로 국토개발에 많은 장애요인이 내재하고 있다. 또한 輸送上의 애로가 심각하여 「3大輸送·3化輸送方針」<sup>20)</sup>의 관철, 「4.15無事故·定時·牽引超過運動」, 鐵道電氣化 등에 주력하고 있으나 애로요인의 근원적인 해소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鑛物을 포함한 地下資源의 賦存面에 있어서는 石炭, 鐵鑛石, 鉛, 亞鉛 등 有用地下資源의 대부분이 북한지역에 편재되어 있는 利點 외에도 江, 河川의 水資源이 풍부하여 資源聯關産業의 立地條件은 韓國보다 월등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 하겠다.

註 20) 3大輸送은 集中, 連帶, 집합(Container) 수송체계를 뜻하며, 3化輸送은 管化, 索道化, 벨트콘베이어(Belt - Conveyor) 化를 뜻한다.

〈도표 1〉

人口와 面積

( 1982年 )

區 分	單 位	한 국	북 한
總 人 口	만名	3,933	1,849
人 口 增 加 率	%	1.57	2.23
經 濟 活 動 人 口	만名	1,508	900
經 濟 活 動 參 加 率	%	56.8	75.2
面 積	km <sup>2</sup>	99,022	122,098

## 나. 總量부문 — 國民總生産(GNP)

한 나라의 經濟力의 크기를 가늠하기 위한 가장 포괄적인 방법은 年間 생산·거래된 財貨와 用役의 總額, 즉 國民總生産(GNP)을 산출하는 것이다. 21)

GNP는 단순한 물질적 可用能力의 척도만은 아니다. GNP의 크기와 성장은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용역도 포함되며, 한 나라의 管理·技術的 能力과 經濟發展에 투입된 두뇌의 힘에도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註 21) 국민총생산은 생산물시장에 공급된 순생산물의 총액 (Net Value Added)으로서 생산단위의 생산총액으로부터 생산단위 상호간에 거래된 중간생산물을 공제한 것이다. 반면 북한을 포함한 공산권제국에서는 총량지표로서 사회총생산 (G. V. S. P : Gross Output Value of Social Product)과 국민소득指標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자는 「일정기간에 생산된 물질적 富의 총체」로, 후자는 「사회총생산 중 소비된 생산수단을 공제한 잔여분」으로 정의되고 있다. 공산권 경제체제하의 社會計定問題는 R. W. Cambell, Accounting in Soviet Planning and Manage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p. 24. 북한의 경우는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1권, 1970, pp. 216~222.

그러나 GNP라는 總量概念의 經濟力評價方式은 한 나라의 經濟的 特殊性을 외면하기가 쉽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어쨌든 南北韓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체제의 相異와 개발전략에 있어서의 현저한 차이, 그리고 昨今の 경제동향에 따른 結果值로서 GNP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82年 한국의 GNP는 657억\$이며 1人當 GNP는 1,671\$인데 비해, 북한의 GNP는 136억\$<sup>22)</sup>이고, 1人當 GNP는 736\$로 추계되는데 이는 연간 2% 이상의 인구증가와 북한 화폐가치의 하락<sup>23)</sup>으로 1981年보다 14\$이 감소한 액수이다.

南北韓의 GNP격차를 보면 1970年은 한국이 78억\$, 북한이 30억\$로서 한국이 북한의 2.6배이던 것이 1982年 기준으로는 4.8배를 기록함으로써 지난 10餘年 사이에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고, 이와 같은 추세로 나간다면 1988년에는 1982年度 不變價格基準으로 한국이 1,000억\$, 북한은 200억\$ 정도로 예상<sup>24)</sup> 된다.

註 22) 북한의 GNP는 북한이 그간 발표한 단편적인 자료, 즉 1人當 국민소득액과 몇 가지의 산업부문별 생산량 또는 생산지수를 토대로 추계하였는바, 이에선 분배소득접근방법이 활용되었으며, 또한 生産指數分析方法에 따라 각기의 成長寄與率과 相關係數를 추출함으로써 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適用換率은 北韓의 貿易銀行發表值인 1982年度 年평균換율 1美\$ = 2.12 북한원을 적용하였다.

\* 추계결과: 1982年度 經常市場價格으로는 288.7억 북한원으로써 골가상승요인 (GNP Deflator)을 제한 1980年度 不變市場價格기준으로는 259.9억 북한원으로 前年比 4.8%의 실질성장을 나타내었다.

23) 1981年度 북한원화의 對美換率은 1美\$ = 1.94 북한원이었으나, 1982年度 기간중 9.3% 評價切下되어 1美\$ = 2.12 북한원으로 집계되었다.

24) 1988年度 GNP 예상추계는 남북한 각기의 향후 경제개발계획, 즉 한국의 第5次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1982~86年) 등을 북한의 현행 第2次7個年計劃(1978~84年)과 「사회주의경제건설 10대전망목표」(1981~89年) 등을 근거로 하였다.

### 3. 南北韓 經濟力量比較

이와 같은 GNP의 현저한 격차는 한국 경제가 1960年代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8%이상의 지속적인 高度成長을 달성해온 데 비해, 북한에 있어서는 「펀드」(Fund)라는 이름의 強制貯蓄을 통해 투자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투자계획에 의한 자본의 낭비, 軍事費의 과중부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또는 低率의 成長을 하는데 그쳤고 최근에는 산업구조의 불균형, 「에너지」 등 연료와 원자재의 供給不振으로 성장 둔화와 침체의 지속이 증척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표 2>

#### GNP 등 總量

( 1982 年 )

區 分	單 位	한 국	북 한
G N P	억\$	657	136
1 人 當 GNP	\$	1,671	736
實 質 成 長 率	%	5.4	4.8

#### 다. 財政부문

한국은 私有財産制度의 기반 위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함으로써 民間經濟活動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재정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 1982年度 最終豫算의 경우 全會計 중 一般會計 규모는 9조 3,137 억원, 美弗貨로는 127.3억\$ 규모로서 GNP 총액 657억\$에 비하면 19.3%의 財政負擔率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하여 共產主義體制下의 재정은 經濟活動의 모든 부문을 반영하며

統制하는 기능을 가진다. 중앙집권적 計劃經濟體制下的 북한에 있어서 재정의 역할은 통제와 指令經濟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자본주의체제하의 한국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북한에 있어서의 總需要는 재정의 역할이 社會的 需要를 충족시키는데 기본목적이 있으므로, 대부분 재정수요에 의하여 충족되고 있다. 왜냐하면 社會的 需要는 집합적으로 충족되는 수요이며, 개인적 소비와 관련된 소비재와 「서비스」의 유통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計劃經濟의 운영을 보충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社會的 需要에 있어서는 생산재가 소비재보다, 軍需品이 생활용품보다, 生産增大가 근로자대중의 복지보다 우위에 두어지므로 개인적 소비는 그 比重이 지극히 작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의 財政規模는 결산기준으로 220억 360만원(북한화폐), 美弗貨로는 104.7억\$ 규모로써 GNP 136억\$에 비하면 그 財政負擔率은 77.0%나 된다. 이것은 同年 한국의 재정부담을 19.3%에 비하여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고, 아울러 북한사회의 民間部門이 얼마나 작은가도 동시에 알 수 있는바, 이는 공산주의체제에 있어서의 재정의 特色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북한의 재정은 GNP에서 지극히 소극적으로 인정되는 個人消費를 제외한 全經濟活動을 망라한 것으로서 모든 投資支出, 정부 및 공공소비지출이 포함된 것이다.

한편, 財政支出 중 군사비는 한국이 防衛豫算 기준으로 42억\$, 북한은 32.4억\$<sup>25)</sup>에 달한 것으로 평가되어 年間 軍事費支出 규모면에서 한국이 10

註 25) 북한의 군사비를 推計함에는 그들의 예결산자료를 통해 그 구성비를 산출하는 방법 외에도, 美國에서 소련의 군사비를 推計하는 방법으로서의 Timothy Model, Lee Model이 원용된다.

국방관리연구소, 북괴군사비구조분석, 1980 참조

억\$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연간 군사비지출 규모는 1978~79年 중에 한국이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했다.<sup>26)</sup> 그리하여 GNP에 대한 軍事費負擔率은 한국이 6.4%수준으로서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며, 한국경제의 防衛費부담이 경제사회발전의 주요 制約要因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23.8% 水準에 달하여 그 부담은 엄청나게 높다. 다음 주민 1人當 군사비 부담액은 한국의 경우 107 \$ 이나 북한은 175 \$로 북한주민이 한국국민에 비해 약 70 \$정도 부담액이 높다.

북한의 이같은 高率의 군사비부담은 經濟成長面에서 볼 때, 생산적인 지출<sup>27)</sup>이 아니므로 그만큼 성장의 潛在力을 잠식하고 내자동원을 어렵게 하며, 나아가 資源配分構造의 왜곡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군사비를 그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決算報告書의 세출부문을 통해 살펴보면, 1982年 總財政支出 중 14.6%인 32억 4,173 만원, 즉 15.2 억\$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군수산업개발비와 군사장비도입비를 포함한 軍事投資費 등 군사비의 절반 이상이 「인민경제비」나 「사회문화시책비」 등의 항목에 은폐되어 있기 때문인바 이를 추출, 조정하여 보면 총재정지출의 약 31%에 달하는 32.4 억\$로 평가된다.

註 26) 연간 군사비지출규모가 크다고 해서 戰力 또는 軍事力이 큰 것은 아니고, 이는 지출된 군사비 중 얼마만큼이 戰力을 증강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軍事投資費에 쓰여졌는가 하는 데에 左右된다. 그러므로 一定年度를 기준으로 하여 증강된 戰力을 파악하려면 一定年度를 기준으로 하여 축적된 軍事投資費累計值를 推計하면 가능하다.

27) 일부 학자나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군사비지출이 成長에 기여하는 몫이 높으며, 또한 군수산업위주의 産業構造를 운용하는 북한의 경우 군사비지출은 成長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이 견해에는 同調하지만 경제개발을 위한 內·外資動員이 한계에 부딪혀 있고, 또한 外債累積에 허덕이는 북한의 現實에서 과중한 군사비부담은 效率의이고 균형적인 경제순환활동에 장애 要素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資源配分構造의 왜곡과 과행성을 초래함으로써 終局的으로는 非生産性을 낳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1966년부터 북한의 歲出構成比를 그들의 공식발표에 따라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1966년의 경우 인민경제비가 68.4%, 군사비가 10.0%이었으나, 1967년부터 1971년까지는 인민경제비가 44~50%로 감소되면서 군사비가 일약 31~32% 수준으로 크게 증가되었으며, 1972년 이후에는 다시 인민경제비가 55%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군사비는 15~17% 수준으로 激減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군사비가 시기에 따라 크게 증감되는 이유는 필요에 따라 군사비가 他費目에 은폐되는 등, 대내외적 상황과 宣傳目的에 따라 조작되기 때문이다.

즉 1966년까지 「민족보위비」라고 부르면서 전체 재정지출 중 10% 이하로 발표해온 군사비를 1967년부터 「국방비」로 改稱하고, 그 구성비를 30.4%로 대폭 增加시켜 發表한 것은 종전의 「인민경제비」 등에 일부 은폐하였던 것을 現實적으로 드러내 놓은 것으로서, 이는 당시의 第1次 7個年 經濟計劃(1961~70年)의 失敗를 호도하고, 나아가 南侵野慾을 노골화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후 1972년부터 갑자기 군사비가 절반 수준으로 減少되고 인민경제비가 다시 增加한 것은 東西和解(Derente) 「무드」속에서의 南北赤十字會談 등, 일련의 남북간 접촉에 따라 對外宣傳的 「平和이미지」의 扶植을 위하여 군사비의 일부를 또다시 인민경제비 등 他費用에 은폐시켰기 때문이다.

그 실증적인 證據로는 군사비지출 자체가 下方硬直性을 띠고 있는 외에도 1972년 이후 인민경제비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加重되었으며 또한 外債의 누적에 의한 對外신용도는 더욱 하락되기 시작하였다. 반면 군사비는 감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준비를 위한 人的 物的 動員이 더욱 강화되었음이 이를 反證하는 것이라 하겠다.

〈도표 3〉

財 政

( 1982 年 )

區 分	單 位	한 국	북 한
財 政 規 模	억\$	127.3	104.7
財 政 負 擔 率	%	19.3	77.0
軍 事 費	억\$	42.0	32.4
軍 事 費 負 擔 率	%	6.4	23.8
國民 1 人 當 軍 事 費 負 擔 額	\$	107	175

## 라. 農業 부문

1970年代 이후 食糧生産은 그 나라의 경제력을 구성하는 重要要素로 크게 부각되었고 「食糧武器化政策」을 거론할 정도로 식량생산의 중요성은 증대되었다. 즉 식량을 輸入해야 하는 나라는 국제시장의 不確實性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國內不安까지 유발하였으며, 때로는 광물 등의 원자재와 기계, 기술들을 사들여야 할 외화를 轉用하기도 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식량 과잉생산국은 기후와 국제시장의 변동에는 아랑곳없이 국제관계에서 潛在的인 協商權 ( Bargaining Power ) 을 갖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의 식량사정을 보면, 우선 한국의 경우 60年代 중반 이후 重農政策을 추진하여 쌀, 보리 등 主穀의 자급과 農業所得의 증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전개하여 왔으며, 과학적인 영농기술과 多收穫品種의 개발효과는 실로 컸다.

그러나 農業生産上의 자연적 제약과 公業부문이 상대적으로 高度成長을 지속한 결과, 한국의 産業構造는 1966年까지 國民總生産에 대한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40% 이상이던 것이 점차 줄어 1980年 이후로는 18%내외의 수준으로 현저히 감소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食糧 및 飼料用 穀物의 대외의존이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 농업생산기반의 脆弱性을 보이고 있으며, 아울러 농경지면적의 계속적 감소와 농업인구의 유출에 따른 遊休地增大로 耕地利用率의 저하 등 농업생산상의 부정적 요소들이 대두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북한에서의 농업은 國營農牧場과 協同農場을 주축으로 하는 社會主義的 集團農業經營體制<sup>28)</sup>를 취하고 있다. 특히 행정구역상 里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협동농장의 작업체계는 里協同農場管理委員會 아래 作業班, 分組 및 作業員이 있으며 1965年 11月부터는 이른바 「分組都給制」를 도입하여 작취를 위한 일종의 請負制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15~20名으로 구성된 分組책임하에 모든 생산활동을 책임지게 하는 것으로서, 勞力の 組織性을 강화함과 동시에 勞力時間과 生産결과를 평가한 勞力點數에 의하여 분배수준을 결정함으로써 저조한 농업생산성을 높여 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集團農業體制는 소련과 中共의 예에서 보듯이 농민의 成就動機를 불러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흡족한 식량생산에 실패할 수 밖에 없듯이, 북한의 농업생산 역시 영농기술 수준의 낙후, 품종개량의 부진, 地力의 약화와 잦은 異常氣候現象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所期の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의 주된 원인은 역시 物的 誘因의 결여로 인한 증산의욕의 미흡과 협동농장 관리운영상의 구조적

註 28) 이는 소련의 「소브즈」와 「콜호즈」의 농업경영체제를 導入한 데서 유래한다.

문제점, 즉 「主體農法」<sup>29)</sup>의 허구에 있다 하겠다.

南北韓의 영농여건과 食糧作物生産實績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의 농경지면적은 218 만町步로서 남한면적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213 만町步로서 絶對農耕地面積에 있어서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耕地率은 약 17%에 불과해 한국보다 5%포인트나 低率이다. 이는 한국에 비해 북한면적 중 상당부분이 農耕이 불가능한 山岳 및 江·河川地域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형상의 제약에 기인한다.

특히 田畝의 比率에서 한국은 논이 131만 1천町步로서 전체 농경지 중 60.1%, 밭이 86만 9천町步로서 39.9%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논이 64만町步, 밭이 149만町步로 논·밭의 比率은 30.0%對 70.0%로서 한국은 水稻作 위주이며, 북한은 田作위주, 특히 옥수수主作體系<sup>30)</sup>의 作物栽培構造를 띠고 있다.

農家人口는 한국이 968만 8천名으로 總人口의 24.6%를 차지하고 있으며, 農家戶數는 199만 6천戶이다. 한편 북한은 농가인구가 698만 9천名<sup>31)</sup>으로 총인구의 37.8%에 해당하며 농가호수는 127만 1천戶이다. 따라서 戶當 耕地面積은 한국이 1.09 町步인데 비해 북한은 1.68 町步로 다소 높다.

1982年度 한국의 食糧作物生産실적은 644만 9천톤의 穀物을 포함하여 精穀기준으로 681만 8천톤이다. 특히 水稻作 위주의 영농체제로 인하여 穀物 중 쌀은 517만 5천톤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실적에도 불구하고

註 29) 1960년 2월 김일성이 靑山里協同農場을 現地指導한 후 내린 敎示인 「靑山里精神과 靑山里方法」, 그리고 1964년 2월에 개최된 당중앙위 4기 8차 전원회의에서 농촌의 思想·技術·文化革命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主體農法」의 요체이다.

30)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76, p. 14.

31) 농가인구는 郡部 이하 인구로 정의하여 推計하였으며, 북한의 경우 勞働者區를 포함한 都市化率 推計根據와 관련하여 계산하였다.

쌀, 밀, 옥수수, 콩 등 식량과 飼料用穀物을 포함한 糧穀導入量은 상당수준에 달하며 또한 穀物을 中心으로 한 食糧自給度는 50%내외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우 영농기반과 여건, 穀種別 植付面積, 單位當 收穫量을 감안하여 식량작물생산실적을 추계하여 보면, 穀物 518만 9천톤을 포함하여 545만 9천톤<sup>32)</sup>에 달함으로써 상당한 豐作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인구수를 감안하여 볼 때 식량의 1人當 消費量은 한국에 비해 적을지라도 생산량은 높고, 또한 이도 철저한 配給制를 통하여 식량통제를 할 뿐만 아니라, 소련 등지에서 쌀 수출의 대가로 小麥 등 싷 잡곡을 매년 40만~60만톤 정도 도입함으로써 식량수급의 均衡維持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공업생산의 부진하에서 農耕地의 狹小와 영농기술낙후, 신품종 특히 耐冷 및 耐病蟲害性의 다수확품종 개발의 부진 등으로 전반적인 식량사정은 농업성장이 人口增加率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더욱 어려워만 가는 것이 사실이다.

즉 6次 黨大會에서 제시된 「社會主義經濟建設 10大展望目標」가 80年代末에 달성된다면 북한주민은 「이팝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는 선동구호나, 1982年 金日成의 70회 생일 前日인 4月 14日 개최된 黨中央委員會와 最高人民會議 合同會議에서 행한 「은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人民政權의 과업」이란 제목의 金日成 施政演說에서 「쌀은 곧 공산

註 32) 북한에서는 식량작물을 「알곡」이라고 부르며, 여기에는 감자, 고구마 등의 薯類도 포함된다. 또한 알곡은 粗穀기준이므로 이를 精穀으로 환산하려면, 소련의 경우와 같이 立毛減耗率 약 20%를 사전에 공제하고, 穀種別 精米率을 감안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적용한 精米率은 다음과 같다.  
쌀: 72%, 맥류: 75%, 기타 잡곡: 85%, 서류: 25%

주의이다.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 「사회생활분야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먹는 문제의 해결이다」는 내용에서 북한의 食糧事情 및 住民生活相을 충분히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81年 개최된 第7次 社勞靑大會에서 제기된 「키 크기운동」의 전개와 함께 1983年 4月 公表된 「국가기준 키」의 제정 등에서도 북한의 식량사정이 충분히 짐작된다 하겠다.

〈도표 4〉

( 1982年 )

區 分	單 位	한 國	북 韓
耕 地 面 積	천町步	2,180	2,130
農 家 人 口	천名	9,688	6,989
食糧作物生産量(精穀基準)	천톤	6,818	5,459
(쌀 生 産 量)	"	(5,175)	(2,017)
段 步 當  쌀 生 産 量	Kg	438	315

### 마. 鑛工業부문

#### (1) 鑛物資源

資源의 높은 對外依存度는 일반적으로 불리한 經濟與件으로 친다. 반대로 다른 나라가 필요로 하는 주요광물이 대량 埋藏되어 있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자급 가능한 량이라도 매장되어 開發·生産된다면 경제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鐵鑛石, 銅, 보크사이트, 크로마이트, 우라늄 등 主要鑛物은 현대 工業社會에서 널리 쓰이는 만큼 특히 중요하다.

鐵鑛石은 한 나라의 基幹産業이 되는 重工業에서 빼놓을 수 없으며, 또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銅, 보오크사이트 역시 特殊製造分野에 있어서는 매우 重要하다. 그리고 우라늄은 석탄과 석유 등의 연료와 같이 核燃料로 사용됨에 따라 점차 그 重要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이러한 鑛物資源은 에너지산업과 제조업을 건설하는데 있어 基礎原資材가 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富의 원천으로서 外貨獲得의 주요수단이 되고 있다.

鑛物資源面에서 북한은 한국보다 월등히 有利한 立場에 있다. 망간, 구사, 고령토 등 몇 가지 광물을 제외하고는 工業화의 基반이 되는 賦存資源面에 있어서 한국보다는 북한지역에 많은 鑛種이 埋藏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南北韓의 主要鑛物埋藏量을 비교해 보면, 石炭은 북한이 120 억톤, 한국이 15 억톤, 鐵鑛石은 북한이 30 억톤, 한국이 1.2 억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地下鑛物資源과 動力資源의 편재를 기초로 해방전 日本은 한반도를 大陸進出을 위한 兵站基地로, 南에는 농업생산과 소비재산업을, 北에는 병기산업을 비롯한 諸資源聯關産業을 배치시킴으로써 한반도 重工業의 80%가 북한지역에 집중되었으며, 工業總生産額의 60% 이상을 북한이 점하고 있었다.<sup>33)</sup>

8.15 해이후의 南北分斷은 이러한 남북한간의 補完關係를 근본적으로 파괴하였으며, 북한은 賦存資源과 重工業施設을 바탕으로 工業化를 일찍 추진할 수 있었으며, 그리하여 金屬 및 機械工業부문에서는 60年代末 내지 70年代初까지 한국에 비해 優位를 지킬 수 있었다.

註 33) 국립출판사, 조선경제지리총론, 1955, P. 49.

그러나 한국은 자원 등 工業化推進의 여건면에서 북한보다 월등히 불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開放體制를 바탕으로 자원의 海外輸入 등, 안정적 도입에 힘써 60年代 이후 추진해 온 經濟開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허나 한국은 궁극적으로 볼 때, 主要鑛物資源의 埋藏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開發與件마저도 불리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자원「내셔널리즘」의 높은 波高에 국내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資源導入을 위한 外貨負擔의 加重이 더욱 심화되어 가는 등, 資源聯關産業의 국제경쟁력이 점차 떨어져 가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북한에 비해 다소나마 經濟·産業構造의 脆弱性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이는 북한이 年間 鐵鑛石 700 만~800 만톤, 石炭 3,000 만~4,000 만톤, 마그네사이트는 精鑛기준으로 150 만~200 만톤, 석회석 1,300 만~1,500 만톤 정도, 鉛은 含有量기준으로 6 만톤, 亞鉛은 1차 亞鉛塊 기준으로 75 만톤 정도, 銅은 含銅鑛기준으로 4 만~5 만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製鐵·製鋼用 燃料炭을 비롯한 석탄을 年間 1,100 만톤 가량을 해외도입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鐵鋼材生産에 필요한 鐵鑛石은 전체 수요의 95% 이상을 海外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표 5〉

## 鑛物資源埋藏

(1982年)

區 分	品 位 (%)	單 位	한 국	북 한
鐵 鑛 石	Fe 50	억톤	1.2	30
石 炭	4,000 Kcal/kg	"	14.5	119.9
銅	Cu 100	만톤	10.5	215.5
鉛	Pb 100	"	49.2	600.0

區 分	品 位 (%)	單 位	한 국	북 한
亞 鉛	Zn 100	만 톤	73.8	1,200.0
石 灰 石	CaO 50	억 톤	14.9	1,000.0
마 그 네 사 이 트	MgO	〃	-	65.0
우 라 늬	U <sub>3</sub> O <sub>8</sub> 0.3 ~ 0.4	만 톤	5,600.0	2,600.0

\* 鑛物埋藏量의 정확한 比較를 기하기 위하여 鑛物別 成分含量 기준의 品位를 일원화시켰다.

## (2) 「에너지」 産業

「에너지」는 經濟力의 動脈으로 비유될 수 있다. 고도의 産業國家나 大規模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더욱 그러하다. 「에너지」 소비는 GNP 수준과 관계가 깊다. 「에너지」의 國民所得成長彈力係數가 동일하다면 「에너지」 투입이 많은 나라의 국민소득이 높기 때문이다.

즉 이는 경제성장의 속도와 일정한 相關關係를 가지면서 「에너지」 수요가 증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지니는 특수성은 그것이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한 나라의 潛在力量에도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에너지」의 對外依存度가 높을수록 안정적인 경제발전이 타격을 받기 쉽다. 「에너지」를 밖에서 大量으로 들여와야 하는 나라들은 국내 자원으로 충당하는 나라에 비해 經濟基盤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에너지」 위기가 닥칠 때 「에너지」輸出國은 유리한 입장에 놓인다. 이는 1973年과 1979年의 「오일·쇼크」 이후 石油輸出國機構(OPEC)에서 그 실증을 얻을 수 있으며, 석유는 이제 核心的인 「에너지」 자원으로 부각되

어 소비국은 물론 생산국에도 그 威力을 발휘하고 있다.

工業化의 原動力인 「에너지」 개발과 생산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 1982年 석탄생산량은 無煙炭 2,012 만톤인데 비해, 북한은 3,345 만톤<sup>34)</sup>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南北韓 共히 제철·제강용 연료탄인 「코킹콜」生産이 全無하므로 이를 전량 海外導入에 의존하는바, 한국은 有煙炭 855 만톤을 포함하여 약 1,100 만톤의 石炭을 수입하였고, 북한은 有煙炭 중 粘結炭과 「코크스」를 150 만~200 만톤 정도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단지 북한은 무연탄의 경우 주요 外貨獲得의 원천이며, 또한 자급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상당량을 외국에 輸出하고 있기도 하다.

精油能力은 한국이 현재 日産 79 만 「배럴」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 비해, 북한은 소련과 中共의 각기 원조로 건설된 「승리화학공장」과 「봉화화학공장」의 두 精油工場<sup>35)</sup>이 각 日産 4 만 「배럴」의 정유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總能力은 日産 8 만 「배럴」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原油는 한국이 2,466 만톤을 OPEC諸國 등 10여개 國家에서 도입하여 精製를 하나, 북한은 소련, 中共, 이란 등 3개국에서 240~280 만톤<sup>36)</sup>을 導入한 데 불과하다. 그러므로 북한의 「에너지」供給構造

註 34) 북한의 석탄생산은 무연탄과 갈탄인 유연탄의 比重이 7:3 내지 6:4 정도이다.

35) 승리화학공장은 함경북도 응기에 소재하고 있으며, 同工場은 주로 소련의 원유를 공급받아 精製하고 있으며, 봉화화학공장은 평안북도 피현군 백마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로 中共의 안동에 소재하는 대경유전의 원유를 「朝·中友好送油管」이라는 「파이프」를 통해 공급받아 精製를 한다. 이 공장들은 中·소의 對北韓 통제 및 조정의 상징처럼 되어 있다.

36) 日本의 육상자위대 정보보고에 의하면 소련에서 65 만톤, 中共에서 120 만톤, 이란에서 60 만톤 등 도합 245 만톤을 도입하였다 한다.

가 석탄 위주이긴 하나 石油「에너지」산업 및 石油化學工業은 아직도 초기의 建設段階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發電施設容量은 한국이 水力, 火力, 原子力發電所를 포함하여 1,030 만Kw<sup>37)</sup>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수력발전 위주로 521 만Kw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發電施設容量面에서 한국이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1972年 이후부터이다.

發電量은 한국이 431 억Kwh에 달하는데 비해, 북한은 230 억 Kwh에 불과하다. 그나마 압록강 國境河川에 설치되어 있는 水豊發電所(70 만Kw)와 雲峰發電所(40 만Kw)등, 두 수력발전소는 中共과 공동 건설·관리·운영에 있으므로 同發電所 생산전력의 절반을 중공에 送電하고 있다. 이를 제하면 실제 供給電力은 210 억Kwh에 불과하고, 이 역시 送配電上의 途中電力損失分(約 13%)과 발전소 가동을 위한 所內消費(약 5%)를 제한 실제 소비전력은 173 억Kw에 불과해 電力多消費型 産業構造를 갖고 있는 북한실정에 심각한 전력부족난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은 潮力發電所<sup>38)</sup>와 原子力發電所<sup>39)</sup>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에 걸쳐 진행중에 있으나 막대한 資金所要와 기술의 낙후 등으로 아직도 진척되지는 못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南北韓의 「에너지」供給構造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에너

註 37) 이는 韓國電力(株)의 보유 및 운영분에 한한 것이며,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複合火力發電設備를 포함하면 發電施設容量은 약 1,130 만Kw에 달한다. 그리고 1983年末 기준으로는 약 1,310 만Kw에 달하고 있다.

38) 潮力發電所 건설의 經驗과 기술축적을 위해 북한은 이미 지난 1979年頃 소련의 기술원조를 받아 大安市에 실험용 潮力發電所를 건설·운영하고 있다.

39) 김일성의 1974年 3月 전국공업자대회연설과 1982年 1月 김일성 신년사에서 강조하고 있다.

지」공급 총량은 석유환산 4,597 만톤에 달하는데, 이는 石炭 34%, 石油類 58%, 水力 1%, 原子力 2%, 薪炭 5%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북한의 「에너지」공급 총량은 石油환산 약 2,100~2,200 만톤이며, 이는 石炭 74% 石油類 13%, 水力 8%, 薪炭 5%로 구성되어 있다.<sup>40)</sup>

이를 볼 때 한국의 「에너지」공급구조는 최근의 「供給源多邊化」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石油類에 약 60%를 의존하고 있음으로써 「에너지」單價가 비쌀 뿐만 아니라 그 안정적 도입에 脆弱性을 내포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石炭에 70%이상을 의존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에너지」單價가 저렴한데다, 일부의 「코킹콜」을 제외하고는 자체내에 풍부히 埋藏되어 있는 석탄으로 「에너지」의 대부분을 자급하므로 「에너지」공급기반은 한국에 비해 견고하다 할 수 있다.

電力供給構造 역시 한국은 발전시설용량의 각 12%가 水力과 原子力이며 나머지 76%가 石油類를 연료로 하는 火力發電인데 비해, 북한은 52%의 水力과 48%의 火力발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火力발전시설 중 20만Kw 규모의 응기화력을 제외한 全火力發電所가 석탄을 연료로 한다는 점에서 값싼 전력을 生産할 수 있는 利點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産業에서의 일부 강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最近年間 심각한 「에너지」不足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바, 이는 「석탄은

註 40) 북한 「에너지」공급총량 및 그 구성비는 源別供給「에너지」의 熱量을 기준으로 하였는바, 여기에 적용된 平均熱量値는 다음과 같다.

- 무연탄: 4,500 Kcal/kg
- 유연탄: 6,500 Kcal/kg
- 석유류: 10,000 Kcal/kg
- 전력: 860 Kcal/kg
- 薪炭은 「에너지」공급총량 중 4.8%를 점유하는 것으로 계산하였음.

금이다」<sup>41)</sup>, 「석유는 피 한 방울과 같다」는 등 增産과 節約의 강조에서 엿볼 수 있다.

우선 石炭需給에 있어서는 1977年 이래의 원유도입 부진에 따라 石炭代替 및 외화획득을 위한 석탄의 輸出戰略産業化가 요청되는 등, 석탄수요는 급증되는 반면, 대부분 기존탄광들의 採炭條件이 악화됨으로써 增産計劃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대단위 火力發電所와 제철공장을 위시한 産業施設의 가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電力은 水力發電設備의 노후로 인한 고장의 빈발과 가동률 저조뿐만 아니라, 年中 10月 中旬에서 다음해 3月末까지의 渴水期와 結氷期에는 河川水量의 부족과 結氷으로 인하여 水車를 돌릴 수 없으므로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계절에 電力生産이 여의치 못하며, 또한 水力發電 위주의 전력공급체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써 電力生産地와 消費地와의 遠隔性으로 말미암아 途中電力損失이 높은 사실 등, 전력의 생산과 공급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형편이다.

石油類는 기존의 두 精油工場을 全稼動하면 최소한의 수요충족은 가능한 편이나 中·소로부터의 原油導入이 원활치 못하고, 그 도입가격 역시 크게 引上됨으로써 油類難 역시 심각하다. 단지 최근 이란·이라크戰를 기화로 이란에 잉여무기를 수출함으로써 생기는 代錢으로 이란産 원유를 導入하여 부족분의 一部를 充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공급측면에서의 諸問題點 이외에 「에너지」소비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冶金, 製鍊, 시멘트공업 등, 「에너지」多消費産業

---

註 41) 1978年 9月 전국광공업부문열성자대회에서 행한 김일성 연설  
“채취공업은 생산의 제1고리로 이 부문이 우선적으로 발전해야만이 人民經濟 전부문이 따라서 발전한다.”

構造, 둘째 발전기, 보일러 등 「에너지」産業設備의 노후로 「에너지」효율성 저급, 세째 산업 및 군사시설의 地下化와 電鐵化 추진으로 인한 전력의 多消費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은 이상과 같은 「에너지」難을 타개코자 기존의 대규모 炭鑛 확장과 中小 탄광의 開發 및 中小 하천을 이용한 中·小型 水力發電所 건설, 서해안 海底油田探査, 對中共 및 이란産 원유도입의 확대교섭을 적극 전개하는 일방, 80年代內에 원자력 및 潮力發電所 건설시도에 주력하면서 현재 우라늄精鍊 (Yellow Cake Making) 단계에 있는 核技術을 개발하고자, 소련의 「두브나」연합핵연구소에 과학자와 기술자를 파견하는 등, 核開發과 研究에 진력하고 있다.

<도표 7>

에 너 지

( 1982年 )

區 分	單 位	한 국	북 한
發 電 施 設 容 量	만kw	1,030	521
( 水 力 )	"	(120)	(271)
( 火 力 )	"	(784)	(250)
( 原 子 力 )	"	(127)	(-)
發 電 量	억Kwh	431	230
( 水 力 )	"	( 20)	(95)
( 火 力 )	"	(372)	(135)
( 原 子 力 )	"	( 38)	(-)
精 油 能 力	日産만배럴	79	8
原 油 導 入 量	만톤	2,466	240 ~ 280
石 炭 生 産 量	"	2,012	3,345
石 炭 輸 入 量	"	1,085	150 ~ 200

(3) 製造業

製造業이란 重機械, 機械工具, 消費財 등 기본적인 제품을 生産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經濟力과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특히 鐵鋼의 生産과 소비량은 한 나라의 國力과 公業化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또한 이는 한 나라의 製造能力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開發途上國家에서는 제철공장이 항상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또 다른 金屬産業인 알루미늄생산은 경공업 및 소비재의 製造能力을 반영하는 經濟指標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알루미늄은 製造 및 건축능력과 消費財産業을 반영한다 하겠다.

다음 한 나라의 基礎工業力을 평가할 수 있는 指標는 건축자재로서 중요한 시멘트생산이다.

그 이외에도 産業化의 진척과 公業구조의 高度化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기계공업과 合成樹脂를 비롯한 化學工業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또한 國民福祉의 擴充이라는 경제목표에 비추어 볼 때 日用消費財工業도 중요하며, 아울러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대변되는 電氣電子工業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1982年末 현재 粗鋼生産능력에 있어서 한국은 1,294 만톤으로 북한의 403 만톤보다 3 배이상의 生産能力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粒鐵을 포함한 북한의 銑鐵生産능력이 403 만톤에 비해 한국은 2 배 이상인 835 만톤의 銑鐵生産能力을 보유하고 있다. 또 壓延鋼材生産능력은 한국이 1,475 만톤인데 비해, 북한은 316 만톤에 불과해 그 격차는 엄청나게 크다. 또한 한국은 製鐵·製鋼·壓延鋼材 生産能力이 제품의 需給에 따라 적정한

「밸런스」<sup>42)</sup>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製鐵과 製鋼規模에 비해 壓延鋼材生産能力이 적어 철강류 需給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정한 粗鋼시설의 관리·운영에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한국의 최대 제철공장인 浦項製鐵이 910 만톤 규모의 粗鋼능력을 가짐으로써 세계 제 6위의 수준이며 동시에 최신의 一貫製鐵·製鋼「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반해, 소련의 원조로 건설된 북한의 최대 제철공장인 金策製鐵所는 140 만톤의 粗鋼能力을 보유하고 있는데 불과하며, 이 또한 노후된 設備로써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간의 철강재 생산상의 격차는 70年代 이후 급속하게 추진해온 한국의 「重化學工業立國」에 기인하는바, 1973年 포항제철의 第2高炉의 가동을 계기로 粗鋼能力이 대폭 확장되었고, 또한 同工場의 第3, 第4期 확장공사에 따라 粗鋼生産능력이 크게 늘어났으며, 1975年을 기해 한국이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에 반해, 북한은 기존 鐵鋼材 生産施設이 일부 보수는 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老朽化되었고, 생산공정 역시 前近代的인데다가 신규시설의 건설을 위한 개발과 投資資金의 부족으로 철강공업의 停滯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제철·제강기술 수준과 生産管理體系上에서도 뚜렷이 나타나는데, 910 만톤의 粗鋼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포항제철의 종업원수가 1만 6천名인데 비해 金策, 黃海 등 總 6個所의 제철·제강공장에서 불과 403 만톤의 粗鋼능력 밖에 가지지 못한 북한의 종업원수는 무려 6만 5천名이라는 事實을 보아도 능히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일부 特殊鋼생산부문에서 軍수산업의 自給基盤을 造成해온

註 42) 製鐵·製鋼·壓延能力의 適正比率은 대체로 6 : 8 : 10 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계로 操業經驗을 중심으로 한 技術蓄積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알루미늄」 생산은 主要 原資材인 「보오크사이트」 매장과 직결되나 남북한 共히 이의 埋藏量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1만 8천톤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약 15%의 自給度를 보이고 있으나, 북한은 소련의 원조로 現행 第2次7個年經濟計劃期間 중 北倉 「알루미늄」 공장을 건설한다고 계획만 하고 있을 뿐, 所要 「알루미늄」의 産量을 輸入에 의존하고 있다.

그 외 非鐵金屬은 북한이 資源埋藏面에서 한국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있는 탓으로 銅製鍊能力을 제외한 鉛과 亞鉛 製鍊能力面에서 한국에 비해 다소 많은 편이다.

「시멘트」는 南北韓 共히 풍부한 石灰石埋藏을 바탕으로 하여 계속 생산능력을 확충하였으며, 또한 主要 輸出品目으로 이를 개발, 육성해 온 결과, 한국의 「시멘트」 생산능력은 2,345 만톤, 북한은 870 만톤 수준에 있다.

合成樹脂의 경우, 한국은 石油化學工業體系下에 PE, PP, PVS 등의 주요 합성수지생산능력이 약 100 만톤에 달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石炭化學工業體系下의 염화비닐과 石炭酸樹脂 중심의 9 만톤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북한은 安州地區에 「青年化學綜合工場」이라는 석유화학공업단지를 조성하여 年間 高密度 폴리에틸렌 2만 5천톤을 생산기로 계획하였으나, 工場建設의 지연과 原料供給의 부진으로 일부시설의 가동에만 그치고 있어 만족할 만한 成果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機械工業을 살펴보면, 북한의 경우 軍需産業 중심의 중공업우선정책에 따라 가장 역점을 두고 개발해 온 부문이다. 그러나 한국이 70年代에 重化學工業의 중점적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놀랄 만큼 발전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북한을 壓倒하고 있다. 단지 북한의 경우 「채취공업의 主攻戰線化」<sup>43)</sup> 설정에 따라 採炭, 採鑛 등의 일부 채굴기계의 大型化와 그 생산능력면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機械工業의 꽃이라 할 수 있는 自動車는 1982年 한국이 33만 7천臺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各種各樣의 자동차를 생산하여 輸出도 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1만 5천臺의 생산능력에 불과하고 또한 생산차종도 中·小型 貨物자동차와 「트롤리 버스」에 불과한 형편으로서, 大型트럭과 승용차를 비롯한 각종 차량을 日本과 체코 등지에서 매년 상당량 輸入하고 있다.<sup>44)</sup>

造船能力은 한국이 400 만톤에 달함으로써 日本 다음의 세계 第2위의 造船國인데 반해, 북한은 계속적인 造船能力 확충에도 불구하고 40 만톤에 불과하고 이나마도 軍用船 건조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하여 小量의 수출 貨物도 거의 대부분 備船에 의존하고 있어 貨物의 滯貨量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最大船 건조실적 역시 한국은 26 만톤級인데 반해 북한은 2 만톤 수준에 머물러 있어 造船技術수준 역시 격차가 크다.

日用消費財工業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所得水準의 향상과 輸出增大를 배경으로 하여 소비재생산이 급속히 신장되었고, 특히 輕工業부문은 제품의 종류와 품질이 매우 다양화되고 또한 高級化되어 國內外 消費者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추어 광범위한 量産의 공급체제를 갖추고 있어 북한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발전되어 있다.

이는 북한의 경우 日用消費財내지 輕공업에 관한 計劃生産指標로서 신발,

註 43) 북한의 현행 제 2차 7개년 경제계획의 중점부문이 채취공업, 즉 석탄, 철광석 등의 채굴업이라는 뜻이다.

로동신문, 1977.12.17.

44) 북한의 對日 주요수입상품 중 자동차는 전체 수입액 중 1할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1982~83년 기간 중 軍用으로 전용가능한 트럭과 승용차를 수천대 수입한 바 있다.

日朝貿易會, 日朝貿易, 1982~83 每月報版 참조

내의류, 양말, 쉐타와 자켓 등 일부 纖維類製品만을 들고 있는 것만을 보아도 그 실태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纖維生産의 경우 한국은 自然 및 人造纖維를 통틀어 100 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輸出大宗商品으로 그 위치를 굳히고 있다. 반면 북한은 石炭과 石灰石을 주원료로 하는 비닐론 5 만톤, 비스코스 등 人絹絲 5 만톤, 모빌론 1 만톤, 아크릴로니트릴을 원료로 하는 석유화학계통의 合成纖維인 아닐론 1 만톤 등 도합 12 만톤에 불과하다.

電子製品의 경우 한국은 黑白TV 650 만臺, 칼라TV 400 만臺 등, 도합 1,050 만臺의 TV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북한은 黑白TV 15 만臺 정도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불과하며, 칼라·TV는 일본, 프랑스製 部品을 전량 輸入하여 조립하고 북한 商標를 붙인 뒤<sup>45)</sup> 外國人投宿施設과 특권층 一部에게 보급하는 일방, 아프리카나 中南美地域에 북한製 TV인양 위장하여 逆輸出하고 있다.

이 밖에 북한은 냉장고, 세탁기, 손목시계, 재봉틀 등 耐久消費財의 생산을 늘려 「人民經濟生活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끈다」라고 畫報 등을 통해 선전은 하고 있으나 平壤을 비롯한 대도시의 특권층가정을 제외하고는 그 보급이 미미한 형편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既述한 바대로 纖維 및 전자공업부문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그 量的인 규모면에서나 質的인 면에서나 인정을 받고 있으며, 특히 전자공업부문에서는 半導體, 컴퓨터, VTR 등 諸부문에서 계속 국산화

---

註 45) 칼라TV의 대표적인 상표는 「모란-히다치」로서, 이는 日本 히다치의 TV 부품 全量을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완제품을 수입하여 상표만 바꾼 것이다. 1977~82年間 북한의 對日 TV수입대수는 약 34 만대에 달한다. 日朝貿易會, 日朝貿易, 1983. 8.21.

3. 南北韓 經濟力量比較

을 높여 나감으로써, 그 기술수준에 있어서도 이미 선진공업국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南北韓의 製造業을 대비하여 볼 때, 북한의 製造業이 한국에 비해 상당한 열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도 「에너지」산업을 포함한 주요 제조업이 주로 中共과 소련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최근 자주 보도되고 있는 「모스크바」방송을 통해 소련의 對北韓 지원실적을 보더라도 능히 알 수 있는바, 즉 북한 전력생산의 60%, 철강의 30%, 壓延鋼材의 34%, 原油 및 同 製品의 45%, 직물의 20%, 철광석채굴의 40%가 소련의 對北韓지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sup>46)</sup> 그러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북한경제의 對外依存度 역시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더불어 이는 中·소 등 共產大國의 조종과 통제하에서 북한이 자립적 공업기반을 닦지 못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며, 또한 그들의 이른바 「自力更生」, 「主體經濟」, 「主體工業」의 목소리가 드높은 이유가 여기 있음을 입증한다.

<도표 8>

製 造 業

( 1982 年 )

區 分	單 位	한  국	북  한
粗 鋼 生 産 能 力	만 톤	1,294	403
알 루 미 늄 生 産 能 力	"	1.8	-
시 멘 트 生 産 能 力	"	2,345	870
合 成 樹 脂 生 産 能 力	"	99.6	9.2
自 動 車 生 産 能 力	만 臺	33.7	1.5
造 船 能 力	만 톤	400	40
纖 維 生 産 能 力	"	100	12
T V 生 産 能 力	만 臺	1,050	15 ~ 20

註 46) 80 年代에 들어서는 「소련·조선간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20돛기념에 즈음한 논평」(모스크바방송, 1981.7.1) 이후 간헐적이나마 계속되고 있다.

## 바. 輸送부문

輸送은 산업발전의 여건과 환경조성을 위한 社會間接資本 (Social Over-head Capital)의 일종이며, 또한 이는 산업의 대동맥이라고 불리운다. 수송문제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함께 신속하고 원활한 財貨와 用役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에 대한 투자가 중시되며, 특히 開發初期의 경제성장을 선도해나가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에 소요되는 투자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자본의 懷妊期間이 長期的인 반면, 투자효과의 量的 測定이 곤란하다는 문제로 말미암아 투자의 優先順位가 뒤로 밀리고 있으며, 투자규모 또한 상대적으로 작은 특성을 지닌다.

어쨌든 이러한 차이와 특성을 지니고 있는 南北韓간의 수송사정을 살펴 보면 우선 鐵道輸送의 경우 고속도로, 해운, 항공 등의 발달로 수송수단이 크게 분산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貨物輸送에 있어서는 철도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한국의 철도는 1982年 현재 總延長이 6,113 Km에 달하며, 이중 電鐵은 1,003 Km로써 電鐵化 비율은 약 16%이다.

북한은 立地條件上 東西間의 海岸連結輸送이 불가능하므로 철도수송에의 依存이 절대적으로서 輸送分擔率은 약 87%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하여 북한은 현재 東西連結鐵道 건설에 熱中하는 등, 철도수송의 확충을 꾀하고 있는데 그 총연장은 현재 4,380 Km이며, 이중 電鐵은 전체의 약 62%인 2,700餘Km로써 한국보다 전철의 比重이 높다. 북한의 철도가 淸津-茂山線을 제외하고는 모두 單線이며, 또한 이중에서도 580Km는 狹軌인 까닭으로 야기된 수송의 停滯性을 극복코자 수송의 牽引能力提高에 腐

心한 결과이다.

道路輸送은 한국의 경우 수송수단 중에서 主宗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총 연장은 약 54,000 Km에 달하며, 이중 고속도로는 1,245 Km이고 65 만臺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어 전국의 一日生活圈化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의 도로수송은 철도수송의 보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불과하며, 현재는 低地帶인 서해안과 平壤일대의 도로만이 정비되고 있는 형편이며, 道路鋪裝率 역시 6%정도에 그쳐 도로시설이 극히 粗惡한 실정이다. 이러한 북한의 도로총연장은 현재 21,000 Km이며, 이중 고속도로는 240 Km<sup>47)</sup>에 불과한데 이 또한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海運輸送은 그 역할이 날로 증대되어 1982年 현재 荷役能力은 1억톤을 돌파하였으며, 화물수송의 약 40%를 해운이 담당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최근 항만하역능력을 높이기 위해 南浦와 松林港 등을 改建·擴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900 만톤에 불과하다. 또한 外航船보유톤수는 한국이 681 만톤으로써 自國船積取率이 50%를 上廻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외항선보유톤수가 최근 외국에서 도입한 화물선을 포함하여 62 만톤에 불과함으로써 自國船積取率은 20%에도 미달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이렇게 도로수송을 포함하여 해운수송이 발달되지 못한 이유는 첫째, 북한의 産業立地가 동서해안을 따라 이루어져 도로와 沿岸수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도로와 해운이 동서연안을 연결시켜 주지 못함으로써 철도수송의 보조수송체계에 머물고 만 점과 둘째, 험준한 산악과 하천을 극복하여야 하는 地形·地勢上的 애로와 건설의 長期化에서 오는 투

註 47) 북한의 고속도로는 平壤-元山 (172 Km), 平壤-南浦 (53 Km), 平壤-順安 (15Km)의 세 도로이다.

자효율의 저하 및 자본부족 등을 들 수 있다.

航空輸送은 한국의 경우 1982年 101臺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17個國 26個 都市에 운항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17臺의 구식 항공기를 보유하고 2개국 3개도시<sup>48)</sup>를 週 1~2回 운항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으며, 對內航空路線은 1960年에 폐쇄되었다가 1970年에 재개되었는데, 현재 7개의 不定期路線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도 軍의 통제하에 있어서 규모나 운영면에서 지극히 영세하다. 또한 우리의 前 KNA 소속의 항공기를 납치한 바 있었던 북한은 지금도 그 항공기를 그들의 對內航路에 운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 사. 對外貿易부문

오늘날 국내경제는 對外貿易과는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그리고 國家間的 상호 경제적 의존성의 계속적인 증대로 모든 나라는 國際經濟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전반적인 경제력의 지표를 각국의 經濟力評價의 범위내에 포함시켜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對外貿易은 국제경제관계에 작용하는 힘과 영향력을 나타내는 좋은 指標이다. 이러한 힘 또는 영향력은 주로 재화와 용역의 輸出내지 輸入을 통하여 어떤 地域 또는 어떤 商品의 세계무역을 지배함으로써 나오기 때문이다.

南北韓은 國土가 협소하고 資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대외무역의 증대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개발초기에는 投資財源뿐만 아니라 기술의 축적도 없었기 때문에 선진국과의 交易 등, 국제경

註 48) 북한의 대외항공노선은 平壤 - 모스크바, 平壤 - 하바로브스크, 平壤 - 北京線의 3개이다.

제협력과 교류는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70年代 이전까지만 해도 소련과 中共 등, 공산권제국에서 받는 원조를 제외하고는 타국과의 交易이나 협력을 통해 경제를 개발하는 개방과 협력의 노력을 소홀히 하는 閉鎖政策을 계속 고수하여 왔다. 물론 70年代 이후 폐쇄정책을 일부 緩和하는 조짐이 보이긴 하나 그 基調는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하에서 북한의 대외무역은 여타 산업과 같이 國家管理에 의한 계획무역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政務院內의 무역부와 그 산하의 국영무역상사와 협동무역상사를 통해 交易相對國과의 무역협정에 의한 「바타」 무역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무역정책의 방향도 國民經濟가 대외지향적이 아니기 때문에 무역이 對內經濟에 종속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社會主義經濟建設」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계획에 따라 수입하고 이의 支拂代錢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계획을 설정·집행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개발초기부터 開放體制를 지향하여 무역 및 대외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산업화정책을 취하여 輸出主導型의 성장과 국제경쟁력강화의 工業化를 실시하였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對照的이다.

이러한 體制와 정책방향의 차이로 인하여 南北韓의 무역규모는 그 격차가 현격히 벌어졌는바, 한국의 경우 1982年度 輸出額은 통관기준으로 볼 때 219억\$, 輸入은 242억\$로 貿易高가 461억\$에 달함으로써 世界交易量의 1%이상을 占有하고 있다.

그리고 輸出對象國 역시 176個國으로서 전세계시장을 무대로 활약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수출 15억\$, 수입 18억\$로 무역고는 33억\$에 불과하며 수출대상국 역시 60個國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추세하에서 한국이 國際競爭力을 일층 강화하고 계속 수

출「드라이브」정책을 지속하는 한 輸出入 構造改善 및 무역수지 적자폭 축소와 아울러 그 規模도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南北韓간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다.

輸出入商品構造 역시 南北韓間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1982年の 경우 한국은 工產品수출이 93.7%, 1次產品은 6.3%에 불과한데, 이는 한국의 産業構造가 개방체제와 국제경제질서에 적응하여 高度化되었고, 아울러 수출산업이 경제를 성장케 하는 牽引車역할을 함으로써 집중적인 육성과 지원을 받은 데도 기인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工產品 수출은 60%, 1次產品은 약 40%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입에 있어서는 한국이 수출 및 內需用 원자재와 石油類를 主宗으로 하여 일부의 자본재가 거의 대부분인데 반해, 북한은 輸送用機器, 電氣電子機械를 포함한 産業설비와 석유, 코킹콜을 비롯한 「에너지」, 소맥 등 잡곡과 군수물자가 대부분이다. 이에 더불어 북한의 주요 輸出商品은 석탄, 철광석, 연, 아연 등의 非鐵金屬, 農水産物과 마그네샤크링카, 시멘트, 철강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은 공산품, 즉 製品輸出에 原資材輸入의 交易形態로서 産業구조의 有機的 高度化를 반영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원자재를 수출하고 제품을 수입하는 후진적이고 수직적인 交易構造를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취약점을 갖고 있는 북한의 1981年度 對소련, 中共, 日本의 교역 구조를 보면 輸出이 각기 32%, 21%, 10% 이며 輸入은 27%, 18%, 17%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볼 때 북한은 위의 세 나라에 3분의 2를 의존함으로써 交역의 多邊化마저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북한은 1979年 이후 완만하게나마 수출증대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中·소를 비롯하여 西方의 先進設備를 구입한 대금의 滯拂로

對外債務가 현재 약 35억\$에 도달하여 있고, 1971~82년까지 매년 2~3억\$의 대외무역적자가 계속되어 외화지불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다 현행 第2次7個年經濟計劃의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설비 및 원자재수입을 위한 외화확보가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이다.<sup>49)</sup> 북한의 수출장려 움직임은 1979年과 1980年의 金日成 新年辭에서 「무역신용 제1주의」를 천명한 가운데 「수출상품의 우선생산 및 품질제고, 대외무역항에서의 船積期日 엄수」 등을 강조하고 있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 이외에도 非共產圈 시장에의 적극 진출로 교역의 다변화를 꾀하며, 「외화벌이돌격대」를 조직하여 자체의 輸出源泉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1979年 12月の 第5期19次 및 1980年 12月の 第6期2次 黨中央委全員會議에서 결정된 바 있는 對外貿易擴大 및 무역기관의 역할제고로 수출증대책 모색에 부심하고 있다.

북한의 수출증대를 위한 구체적 조치로서는 1979年 3月 이후 中央에 「輸出指揮部」를 설치하여 수출확대를 촉진하고, 1980年을 「輸出의 해」로 설정하여 이에 박차를 가했으며, 분기별로 수출실적에 공로가 있는 공장 및 근로자에게는 獎勵金을 지급하고 있는바, 근로자인 경우 노임의 10% (평균 7~8원), 공장인 경우 出荷額의 10~30%를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輸出增大政策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품의 대부분이 1次產品 및 半製品에 의존하고 있는 構造的 脆弱性과, 또한 이들마저 動員能力이 한계에 이르러 輸出伸張이 정체되고 있는가 하면, 수출목표량

註 49) 일반적으로 자본의 도입은 國際計定上 두가지 측면에서 인식해야 한다. 첫째는 국내자본의 부족을 補填하는 것이고, 둘째는 수출을 초과하는 수입을 補填하는 것이다. Rosenstein Rodan 은 외자도입의 目的을 개발도상국이 自力成長의 기반 위에서 만족할 만한 성장율을 이룩하는 線까지 경제개발을 速成化하는 것이라 하였다.

달성에 급급한 나머지 수출품의 品質不良과 規格 및 用量未達로 특히 소련 및 日本 등으로부터의 계약파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클레임」이 빈발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의 荷役設備 未洽과 貨物선 부족, 備船難에 의한 船積遲延事態 또한 續出하고 있고 「디자인」, 包裝狀態 불량과 販賣技術 (Marketing) 과 경험의 미숙 등으로 수출시장 개척도 부진한 형편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북한이 對內地향적 自力更生정책만을 강조하고 있고 「先輸入, 後輸出」원칙에 따라 「바타」貿易을 실시함으로써 수출증대의 한계성이 內在하고 있는 이유 외에도 제반 산업과 과학기술면에서의 침체와 낙후에 기인한다 하겠다.

<도표 9>

對 外 貿 易

( 1982 年 )

區 分	單 位	한 국	북 한
貿 易 高 ( 通 關 基 準 )	억 \$	461	33
( 輸 出 )	"	(219)	(15)
( 輸 入 )	"	(242)	(18)
貿 易 收 支	"	-24	-3
輸 出 對 象 國	개國	176	60

아. 住民生活水準

오늘날 한국과 같은 自由主義國家에서는 民主福祉社會의 건설을 목표로 하여 「인플레이」 없는 경제성장으로 雇傭機會를 확대하고 租稅政策과 사회개

발전책으로 階層間的 公정한 소득배분을 추구한다. 아울러 부단한 技術革新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또한 이러한 代價를 근로자들에게로 還元시킴으로써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그러나 공산주의국가들에 있어서는 勞動生産性的 저하와 輕工業부문의 낙후로 지난 50年代 이후 自由圈國家들보다 국민생활이 크게 뒤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북한의 경우 더욱 현저하다.

특히 농산물가격의 低評價와 공산물가격의 高評價로 주민에 대한 희생을 二重으로 강요하고 있다. 예를 들면 農産物收買價格은 시가의 25% 정도로 協同農場에서 수매하므로 나머지 75%는 실질적인 조세로 흡수하는 셈이 되며, 工產品價格은 고가로 판매하여 그만큼 消費稅를 過重하게 부과하는 셈이 되는 것과 같다. 현재 소련의 경우에도 일부 소비재 공산품 가격은 國際時勢의 10倍 이상이나 비싼 것이 허다하다. 물론 이를 통해 소비의 억제와 절약을 강요하기도 한다.

南北韓의 異質인 경제체제와 산업구조, 그리고 소비생활양식의 相異때문에 주민의 소비생활수준을 비교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욱기 가격구조의 상이에 따라 소득의 購買力마저 정확히 평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GNP 비교에서 이미 도출된 자료를 토대로 財貨의 분배, 재생산을 위한 投資費의 부담과 軍事費의 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1人當 소비수준의 대강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북한에 있어서는 GNP에 대한 財政規模, 즉 公經濟에 대한 비중이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民間部門은 4분의 1 미만에 불과하다. 公經濟는 재정 및 그 투자부문이며 민간부문은 민간소비부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은 1982年度의 GNP에 대한 재정의 비율이 19.3% 이고 投資率

이 26.5%이므로 민간소비는 54.2%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國民總生産에 대한 지출에 있어서 민간소비의 비율은 58.7%이다. 이는 투자의 一部財源이 海外貯蓄에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政府投融資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GNP에 있어서 민간경제활동, 특히 民間消費의 비율에 있어서 한국은 북한보다 월등히 높으며 투자도 대부분 民間貯蓄이 담당하고 있으나, 북한은 원천적으로 민간부문의 비중이 적다.

또한 생산의 측면에서도 북한은 工業總生産 가운데서 消費財는 20% 내외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소비재공급의 부족과 공산품가격의 高價構造로 민간소비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다.

1982年度 한국의 1人當저축액은 369 \$로 1人當 GNP 1,671 \$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나, 북한은 1人當저축액이 169 \$로 1人當 GNP 736 \$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貯蓄率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한편 GNP에 대한 軍事費負擔率은 한국이 6.4%인데 비해 북한은 23.8%이며 1人當軍事費負擔額은 한국이 107 \$, 북한이 175 \$에 이른다.

1人當GNP에서 1人當저축액과 군사비부담액을 差減한 것을 1人當 소비액으로 본다면 한국은 1,202 \$이나 북한은 392 \$에 불과하다.

엄격히 따지면 政府消費를 제외해야 하겠으나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를 합한 總消費를 인수로 나눈 것이 1人當消費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편의상 그대로 비교한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의 實質消費水準은 북한이 한국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바, 이는 美國의 Abramowitz 교수가 美國과 소련간의 경제력을 비교 평가할 때 “소련의 1人當 GNP는 美國의 40%수준이다. 그러나 실질소비수준은 7분의 1에 불과하다.”고 내린 결론과 그 논리적 軌를 같이 하고 있다.

이와 같은 南北韓간의 소비수준차이는 投資財源부담과 軍事費부담의 差異에 기인한다. 북한은 투자의 대부분이 軍事力 增強部門에 投入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투자율에 비해 성장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군사비와 軍需産業의 過重한 부담으로 소비수준이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그들의 好戰性을 버리고 군사비와 軍需産業中心의 非 效率的인 투자를 경감시키지 않는 한, 生産側面에서의 1人當 GNP는 다소나마 증가될지 몰라도 북한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은 短期間內에 기대할 수 없으리라 판단된다.

〈도표 10〉

住 民 生 活 水 準

( 1982年 )

區 分	單 位	한 國	북 韓
1 人 當 GNP	\$	1,671	736
國民 1 人 當 貯 蓄 額	"	369	169
國民 1 人 當 軍 事 費 負 擔 額	"	107	175
國民 1 人 當 實 質 消 費	"	1,202	392

## 4. 北韓 經濟의 構造的 問題點

이미 북한의 經濟體制와 정책의 기본방향 및 諸부문별 經濟力量比較의 검토를 통해 북한 경제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단지 昨今の 북한 경제가 慢性的 沈滯에 빠져 있고, 또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表出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구조적인 측면에서

북한경제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에 있어서는 생산수단의 私有가 허용되지 않으며, 「計劃의 一元化·細部化」 원칙에 따라 자원의 配分, 價格의 裁定, 직업의 賦與 등은 모두 중앙집권적 계획기구인 國家計劃委員會의 「展望計劃과 現行計劃」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북한의 모든 경제활동은 획일적인 계획과 指令에 의하여 통제·감독되고 있고, 자원의 配分 역시 획일적이고 인위적이어서 자원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資源의 낭비가 많으며, 가격은 중앙계획당국에 의하여 상품의 需給調節과 소비억제를 위하여 裁定됨으로써 가격은 생산 및 소비과정과 乖離되어 있다. 그리고 이른바 「勞動價值說」에 입각한 勞力評價基準은 그 자체의 모순으로 상품의 품질을 測定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품질관리가 없는 量的인 목표달성에만 치중하게 되며, 나아가서 利潤動機가 없는 생산활동은 생산단위의 창의와 능력을 배제함으로써 生産性を 低下시키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의 문제점으로는 經濟力規模가 內需市場을 중심으로 일정수준에 머물러 있고, 상대적으로 자원과 자본이 부족한데다가 기술수준 또한 低級한 수준에 있다. 따라서 북한의 상황에서는 國際分業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內延的·集約的 成長(Intensive Growth)을 기할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시적인 「아우타르키이」체제와 정책을 견지함으로써 경제성장 및 발전이 한계에 직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시설과 기술면에서도 심각한 낙후현상을 초래하여 경제의 원활한 순환과 활동이 마비되고 있다.

셋째, 선진공업국의 공업화와 경제개발전략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바탕위에서 日用消費財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輕工業을 우선 발전시키고, 여기에서 蓄積된 자본과 기술 및 개발경험을 기반으로 생산재를 생산하는 重工業을 개발·육성, 産業間 聯關効果を 극대화함으로써 점진적인 산업구조의 有

機的 高度化政策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북한은 對南武力 赤化統一을 위한 군수산업 위주의 중공업우선정책을 취함으로써 중공업과 경공업간의 격차와 산업구조의 不均衡을 초래하여 원활한 생산활동과 擴大再生産을 기할 수 있는 추진력을 상실하여 버렸다.

네째, 북한은 중공업우선과 더불어 「國防·經濟並進策」을 취함으로써 그들의 경제력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즉 GNP의 24%에 해당하는 군사비를 투입함으로써 투자재원의 부족을 야기하였고, 이 군사비 또한 투자의 乘數 効果를 통한 확대재생산효과를 기하지 못하는 經濟循環上的 純損失에 불과하여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그 副作用을 끼치고 있다.

다섯째, 60年代 초반까지의 북한의 경제성장은 中·소의 원조와 「社會主義勞力競爭運動」<sup>50)</sup>을 통한 이념적 사상적 긴장의 고조화로 勞動強度를 증대시키고 또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통해 이룩되었으나, 60年代 중반 이후, 노동의 質과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한계에 직면한 외에도 物的 誘因의 결여로 주민들의 소비생활향상에 대한 욕구가 澎湃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 또는 補填할 장치와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人間資本 (Human Capital)의 부족과 經濟意志 (Will to Economize)가 低落됨으로써 경제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의지와 노동생산성의 저락을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은 각종의 노력경쟁운동을 전개하는 일방, 「협동생산의 규율강화, 기술혁신운동의 전개, 勞動定量的 제고」등의 「經濟組織事業」을 강화해 나가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산업설비

註 50) 근로자, 사무원들의 勞力動員의 極大化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과거의 「천리마운동」을 포함하여 최근의 「80년대 속도창조운동」, 「새기록·새기준창조운동」,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등을 들 수 있는바, 이는 工場·企業所, 職場, 作業班 및 個人單位로 경쟁심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전개한다.

가 老朽化된 데다가 生産공정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外貨枯渴로 인해 新  
 進설비와 기술도입이 곤란한 데 더불어 原資材와 部品の 公급이 원활치  
 못하여 그 實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 사무원들의 노동기피  
 현상이 蔓延되어 있고 生産의욕 또한 감퇴되어 있으므로 근본적인 노동  
 조건 개선과 生産設備의 교체, 선진기술의 과감한 도입없이는 生産단위상의  
 生産성제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현행 第2次 7個年  
 經濟計劃의 수행에 있어 노동생산성의 經濟成長寄與度를 75%로 책정하고  
 있는 북한의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기란 불가능하다.

여섯째, 1961년부터 시작한 第1次 7個年經濟計劃을 3년이나 연장하여  
 1970년에야 마무리되었다고 발표한 북한은 그동안 경제계획 수행상의 差跌  
 을 보완코자, 1971년부터 시작한 6個年經濟計劃(1971~77)의 목표달성에  
 지나치게 급급한 나머지 外資의 受容能力과 償還能力의 검토도 없이 同 기  
 간중 短期貿易信用을 포함하여 21억 7천만\$의 外資를 도입하였으나 그 償  
 還能力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1975년 이후 對西方 延滯事態가 속출하였다. 이  
 같은 북한의 外債累積과 延滯事態를 유발하게 된 원인은 自力更生의 굴레 속  
 에서 무리하게 시설재를 도입한 외에도, 同 시설재의 설치 및 운용상의  
 기술 미숙으로 操業短縮과 稼動中斷, 북한의 主宗 수출품목인 鉛, 亞鉛 등 비  
 철금속의 국제시세하락과 수출상품 質의 粗惡 등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미  
 약에 기인한 수출부진과 外화획득 노력 실패에 기인하였다 하겠다.

그리하여 이의 해결을 위해 북한은 西方債權國에 대해서는 북한 상품의  
 수입을 강요하면서, 자체적으로 「외화벌이돌격대」를 각 里·洞과 軍部隊  
 別로 조직하여 鎭승가죽, 特用作物, 砂金 등 外화획득원천을 최대한 발굴하  
 는 등의 수출증대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수출이 크게 伸張되거나 外債難  
 이 단기간에 解消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 경제의 構造的 問題점을 요약해 볼 때, 결국 북한 경제는 근원적인 矛盾과 弊害의 시정을 위해서는 체제의 완화와 정책전환의 필요성이 불가피하게 대두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실 東歐共產諸國의 經濟改革動因이 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하의 外延的 成長에서 불가피하게 대두한 자원배분의 비능률 ② 소비생활수준의 향상과 다양화에 대한 국민욕구 충족문제 ③ 東西貿易의 급속한 증대로 지적되며 또한 이에 의한 개혁을 시도한 것이다.

또 개혁의 방향과 정책내용을 보면 ① 경제계획에 伸縮性을 導入하는 가운데 ② 기업의 獨立性賦與와 관리제도의 개혁 ③ 利潤制度實施와 노동에 대한 物的 誘因장치 확대 ④ 價格體制에 대한 개혁 ⑤ 東西貿易의 擴大를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같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보다는 對南緊張造成으로 북한체제 내부의 瓦解를 방지하고 勞力動員體制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對西方 接近外交工作를 통하여 그들의 당면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諸問題點을 안고 있는 북한이 어떻게 自體修正과 改革을 통하여 80年代의 험준한 難局을 타개해 나갈 것인가에 관하여 巨視的 長期的인 측면에서 그 변화요인을 중심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北韓 經濟實態의 결언으로 삼고자 한다.

## 5. 結 言

제한된 자원, 소규모의 經濟單位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군사비의 부담과

自給經濟體제의 고수로 말미암아 경제성장과 발전에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북한은 향후 이러한 낙후상과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閉鎖體制로부터 개방체제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직면해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對外貿易의 증대와 先進科學技術 및 設備의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과 타개방안의 모색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金日成·金正日父子의 世襲體制를 더욱 鞏固히 하고, 그 정권기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이른바 「主體思想」이라는 허황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고수하여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져들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개혁이 東歐를 위시하여 최근의 中共의 例에서 보듯이 그들의 정치·사회적 개혁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없는 內在的 制約性 때문에 더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2次大戰 이후 獨裁者로 아직까지 집권하고 있는 인물로서 북한의 金日成과 알바니아의 「호자」가 있는데, 이들 두 독재사회 체제가 가장 硬直의이며 또한 주민생활 역시 낙후되어 있음은 좋은 실례라 하겠다.

어쨌든 북한의 경제체제 변화계기와 그 내용을 豫想해 보면, 북한사회의 原動力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있기 때문에 이의 변화요인 발생이 주된 動因 내지 契機가 될 것은 확실한바, 우선 金日成의 退陣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主體思想」 또는 「唯一思想」이 후퇴하거나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南北韓의 독자적인 軍事力均衡이 달성되거나 더 나아가서 한국이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軍事力의 우위를 유지하는 등, 國力の 隔差가 더욱 深化되어 북한이 對南赤化統一 기도를 변화시킬 수 밖에 없을 계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체제 및 정책환경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주요 요소로는 東歐諸

國의 개혁이유와 그 내용은 물론이고, 현재 實用主義路線을 추구하고 있는 中共의 영향력이 북한에 대해 더 크고 깊게 미치게 되고, 현재 地方단위로 일부 경공업을 분산하려는 노력과 郡單位의 자급경제체제구축이 강화될 때 등이다.

이러한 諸要因과 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90年代 이후에는 점진적이거나 변화적인, 즉 東歐共產圈諸國의 變化樣相과는 다른 양태를 띠면서 변화해 나가지 않을까 전망된다. 이는 金日成 자신도 생산수단이 상품인가의 여부와 그것의 생산 및 流通過程에서 價値法則이 작용하는가의 여부에 대해 공여지책의 결론을 내린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商品性和 價値法則을 무시하는 左傾的 誤謬도 안되고, 自由企業式 운영방식을 주장하는 右傾機會主義도 곤란한” 그러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지금까지의 論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근본적으로 북한체제의 원동력은 政治的 「이데올로기」에 있기 때문에 경제체제와 정책은 그들 權力集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될 뿐만 아니라, 軍事力 자체도 이제껏 그들의 政治路線을 貫徹하기 위하여 동원되어 왔으므로, 정치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경제체제나 정책방향이 변화할 가능성은 당분간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아 抗日「빨치산」중심의 기존 권력집단의 사망이나 정치일선에서의 退陣, 金正日登場 이후 격화해 가는 權力暗闘와 권력체계의 再編成, 中共의 현대화 노력에 따른 波及效果와 더불어,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 「테크노크라트」勢力的 강력한 浮上과 누적된 자체모순의 시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집중될 때에는 북한사회의 變化促進要因이 變化抑制要因보다 강하게 작용할 것이고, 이에 따라 南北對峙의 狀況的 認識의 범위내에서 「調整期 또는 緩衝期」라는 명목하에 부분적 합리화, 실용화의 방향으

로 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여기서 「변화촉진요인」이란 산업화에 따른 「테크노크라트」세력의 浮上과 이들을 중심으로 한 利益表出과 集合, 그리고 政策全面에 대두될 실용주의와 합리주의적 성향, 무역 등을 통해 對西方 경제교류와 협력을 통한 자유세계의 思潮 및 가치의 流入과 주민생활 욕구의 증대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변화억제요인」은 이른바 「主體思想」, 「金日成 唯一思想」 및 그들의 革命傳統의 固守를 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그를 추종하는 「레드」들, 남북대치의 상황 및 경쟁적 적대관계, 教條的 分배정책의 지속, 金正日의 권력승계상의 名分論理 등을 지적할 수가 있다.

어쨌든 80年代는 우리들의 自主的인 平和統一基盤 造成努力이 경주되어야 할 年代이며, 또한 戰爭의 恐怖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年代임에 비추어, 북한사회를 점진적으로 개방시켜 나감으로써 남북한간의 緊張을 緩和하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상호 다각적인 交流와 協力을 主導的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야 하는바, 이르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자체역량을 충분히 키워 나가기 위해 民主福祉國家建設과 正義社會의 具現 노력을 倍加해야 할 뿐만 아니라, 上述한 바 있는 80年代 북한의 「변화촉진요인」을 유도, 조성해 나가면서, 아울러 「변화억제요인」을 제거내지 극소화시키는 방향으로 對北政策을 추진하는 데 우리의 슬기와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 Ⅲ. 北韓의 社會·文化

尹 東 鉉

(統一研修所 教授)



# 目 次

1. 序 言 .....	119
2. 社會의 構造的 特徵 .....	120
3. 社會階層 構造 .....	123
4. 社會的 統制 .....	125
가. 組織的 統制 .....	125
나. 個人生活 統制 .....	127
다. 查察組織 強化 .....	129
5. 住民生活 實態 .....	130
가. 家庭生活 .....	130
나. 女性의 社會活動 .....	133
다. 衣·食·住 生活 .....	135
라. 冠婚喪祭 .....	140
마. 信仰과 宗教 .....	141
6. 文化의 實相 .....	143
가. 文化政策의 性格 .....	143
나. 文學·藝術 .....	144
다. 報道·出版 .....	150

7. 社會·文化的 問題點 .....	154
가. 思想의 劃一化 .....	155
나. 社會의 密閉化 .....	159
다. 體制의 軍事化 .....	163
8. 北韓社會의 變化展望 .....	165
附 錄 .....	168

## 1. 序 言

現代史의 흐름은 모든 나라들이 名分보다는 實利를 좇아 門戶를 개방하고 相互 交流와 協力の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나라도 국제사회에 적극 진출하여 國家發展과 民族의 利益을 도모하여 왔으나, 國土分斷으로 인한 民族内部의 갈등과 南北對峙는 이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祖國의 分斷狀態를 조속히 해소하여 平和的 統一을 성취하기 위한 多角의인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 그러나 북한측은 平和統一 노력으로서의 첫 단계인 南北對話마저도 거부하면서 武裝共匪를 계속 투입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天人共怒할 버마암살폭발事件을 일으키는 등 각종 挑發行爲를 恣行하고 있다.

民族社會가 분단되어 軍事的으로 대치하고 있는 그 事實自體만으로도 큰 비극인데, 북한측은 南北韓間의 緊張과 敵對關係를 날로 격화시킴으로써 민족의 발전과 平和的 統一에 역행하는 作態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북한사회를 外部世界와 차단하고 이른바 「唯一思想體系」에 의해서 金日成偶像化에 광분하더니 드디어는 共產圈에서도 그 類例를 볼 수 없는 權力의 世襲을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저들이 이처럼 硬直된 폐쇄체제를 固守하면서 對南革命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國際潮流에 능동적으로 對處하고 조국의 平和的 統一과 繁榮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共產國家에게도 門戶開放과 相互 協力關係를 확대하여 왔다.

이렇게 볼 때, 오늘의 南北關係는 같은 分斷國家인 東西獨의 경우와 비교하면 너무나 對照的이다. 그러나 우리가 念願하고 追求하는 統一의 對象은 바로 북한이다. 따라서 우리가 統一問題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우선

북한에는 과연 어떠한 성격의 體制가 도사리고 있으며 어떻게 作動되고 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北韓觀을 정확하게 整理해 볼 필요가 있다.

本教材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北韓體制의 社會·文化實態에 관한 몇 가지 基本的인 問題點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2. 社會의 構造的 特徵

우리 民族의 文化傳統과 社會風土를 무시하고 造作되어 온 共產獨裁治下の 북한社會는 우리 開放社會와는 전혀 다른 體制的 特殊性을 띠고 있다. 그곳에서의 개인의 존재는 勞動黨에 의하여 대표되고 統制되는 전체의 한 構成要素로서만이 인정되며, 개인은 「黨과 首領을 위하여」 모든 희생을 強要당하는 1人獨裁의 全體主義社會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全體主義體制的 일반적 특징은 ① 大衆統制手段으로서의 폭력사용과 恐怖霧圍氣 조성 ② 官製 이데올로기의 強要와 엄격한 思想統制 ③ 特定人 또는 少數集團에의 권력집중과 지배자의 偶像化 ④ 中央集權的 經濟體制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社會體制는 이러한 諸般要素들을 고루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全體主義社會의 경우보다 더욱 철저하게 수행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北韓社會體制的 構造的 특징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金日成의 「主體思想」에 의한 黨의 唯一思想體系가 절대적 價值基準이 되는 社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主體思想」만이 公認되고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을 支配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全體人民의 意志」라는 것이다.

즉 북한에서는 金日成에 의해 創始되고 해석되는 「主體思想」만이 唯一한 지도이념일 뿐이다. 따라서 「首領(金日成)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라」는 口號 아래 「首領의 敎示를 끝까지 忠誠으로 묵숨바쳐 觀瞻할 것」을 強要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敎示」는 그 어떠한 法令이나 政策에도 우선하는 絕對性和 無條件성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私有財産을 인정하지 않고 이른바 프롤레타리아獨裁를 名分으로 하는 共產黨의 獨裁社會이다. 북한 共產主義者들은 1946年 3月 土地改革法令 발표와 동시에 토지를 沒收하여 농민에게 無償分配하고, 그해 8月에는 産業國有化法令을 발표하여 생산수단의 「國有化」를 강행하였다. 그러나 農民에게 분배한 토지는 1954年부터 協同農場을 조직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沒收되기 시작하였고 1958년까지 모든 농민은 協同農場에 강제로 編入되어 土地所有權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말았다. 個人商工業도 이 기간에 완전히 말살되어 북한 住民은 生産道具의 구실 밖에 못하며 한낱 노동력을 提供하는 존재로 전락되었다. 그후 1977年 4月 새로운 土地法을 채택하고 「터밭經理(20~30坪)」를 法的으로 제도화하였다고 하나 土地管理에 대한 黨의 指導와 統制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住民들의 예측성은 오히려 加重되고 있다.

세째로 集團主義原則에 입각한 組織的 統制社會라는 점이다. 북한의 社會主義憲法 第49條는 「公民의 權利와 義務는 <하나는 全體를 위하여 全體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集團主義原則에 기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를 떠난 개인의 존재를 認定하지 않으며, 개인은 항상 전체의 細

胞로서 움직여야 하고 個體의 權益은 언제나 全體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公式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第 68 條에 의하면 「公民은 集團主義精神을 높이 發揚하여야 한다. 公民은 集團과 組織을 사랑하며 社會와 人民의 利益, 革命의 利益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革命的 氣風을 세워야 한다」고 하여 이른바 사회주의 倫理에 입각한 行動指針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集團主義는 모든 주민이 조직 속에 묻혀져야 하며, 또한 黨의 指令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劃一性을 強要하게 되는 것이다.

네째, 북한 社會는 黨性에 따른 철저한 階級差別社會이다. 즉 北韓을 支配하고 있는 집단은 이른바 職業的 「革命家」로 구성된 勞動黨이다. 그런데 이 黨을 支配하고 있는 것은 制度的으로나 實質的으로나 金日成 1 人이며 이 權力을 世襲하려고 金正日이 안간힘을 다하여 策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勞動黨員이 하나의 特權階層을 형성하고 있으며 身分上으로나 대우면에서 一般住民과 엄격히 구분되고 있다.

다섯째, 북한 社會는 이른바 「4 大軍事路線」을 강행하여 構築된 兵營社會이다.

즉 ① 모든 住民은 각종 組織에 종속되어 統制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工場·企業所·協同農場의 作業班 등은 下向式 명령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軍隊式 編成模型에 따라 小隊, 中隊, 大隊, 聯隊로 구성되어 있으며 ② 「全民의 武裝化」라는 旗幟 아래 正規軍 이외에 5萬 5千의 각종 人民警備隊(現役水準), 약 100萬의 붉은 青年近衛隊(高等中學 高等班 男女學生) 약 100萬의 教導隊(40세까지의 軍除隊者)와 약 300萬의 勞農赤衛隊(17~60세 男女)가 조직되어 있으며, 全學生을 軍事訓練에 動員하고 더우기 高等中學生 이상에는 兵器를 지급하는 등 북한 社會全體가 兵營化되

어 있다.<sup>1)</sup>

### 3. 社會階層 構造

階層構造와 階級的의 문제는 마르크스·레닌主義가 無階級社會를 표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既存의 사회구조를 階級的 對立이라는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는 이상, 특히 南北韓社會를 비교하는 경우 가장 核心的인 문제영역이다. 그런데 북한 사회가 추구한다는 「平等」이데올로기와 가장 상반되는 현실적 모순은 바로 階層化 現象과 그 硬直性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북한의 階層現象은 社會的 報酬의 자연스러운 分配過程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강제적인 社會主義政策을 통해서 급격하게 造作된 韓半島 統治手段일 뿐이며, 각종 抵抗的 要素를 억압하고 제거하는 住民統制의 장치로 作用한다. 이런 의미에서 社會主義的 改造는 계층구조의 變造 作業에 불과한 것이고, 이는 바로 住民統制의 系列化를 뜻하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憲法 第6條에 북한은 「階級的 對立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榨取와 壓迫이 영원히 없어졌다」고 규정하고 마치 북한 社會에서는 階級差別이 없고, 또 階層間에 대립도 없는 理想社會가 성취된 것처럼 宣傳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北韓社會에 비록 資本主義社會에서 말하는 資本家階層이 없다고 할지라도 支配階級과 被支配階級의 관계를 固着化시키려는 새로운 階層序列의 構造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오히려 平等社會를 표방하는 北韓共產社會에서 보다 큰 階層間, 地域間, 職業間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註1) 統一安保教育 第6輯 (1983년 4월호), 國土統一院, p. 17.

북한의 階層構造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社會構造는 開放的 階層構造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所得水準, 社會的 地位, 職業的인 關係 등에 따라 다원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층은 당사자들의 創意的 노력 여하에 따라 수시로 이동된다. 그러나 北韓社會는 의도적으로 統制된 身分制的인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出身成分」과 「黨性」 그리고 투쟁경력 등으로 좌우된다. 즉 「核心階層」, 「動搖階層」, 「敵對階層」 등 3階層으로 크게 區分하여 비교적 단순한 계층서열이 制度化되어 있고, 職場에서의 地位도 바로 계층적 지위와 동일시된다. 8.15 이후 수차례 걸쳐 成分檢討事業을 실시하여 北韓住民들의 階層을 成分別로 分類하고 있다. (附錄 2 參照)

그러나 근래에 급격히 증대하는 專門的 技術的 人力需要에 따른 社會的 機能과 관련하여 金日成集團도 成分分類政策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듯하다. 즉 金日成은 「사람의 成分은 固定不變하는 것이 아니고 늘 끊임없이 변한다」 또는 「本人이 지금 革命活動에 적극 參加하고 있는가 어떤가……에 의해서 評價해야 한다」<sup>2)</sup>고 주장했다.

둘째, 우리의 경우 庶民層의 生活安定과 向上을 위한 복지시책을 적극 펴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思想的으로 믿을 수 없다고 보는 敵對階層에 대해서는 더욱 그 成分을 細分하여 감시와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sup>3)</sup>

셋째, 職業統計에 의한 계층분류에 있어서도 우리는 自由業으로부터 서비스業에 이르기까지 多樣하나 북한에서는 勞動者, 事務員, 協同農場員, 軍人 등으로 한정, 구별되며 각 職種間의 勞賃의 격차가 크고 동일한 職種內에서

註 2) 김일성저작선집 6권, 1974, p. 43 및 p. 133.

3) 본교재 (북한의 사회·문화) 부록 3. 참조.

정치적 役割이나 地位에 따라 보수상의 隔差가 크다.

그들의 宣傳이야 여하간에 「內外的 敵對分子들의 破壞策動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思想革命을 강화하여 <은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한다」(憲法 11條)고 계속 強調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階層間的 문제점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社會的 統制

### 가. 組織的 統制

어느 국가, 사회이든 각기 追求하고자 하는 政治的 文化的 目標가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制度的 手段과 統制裝置를 갖기 마련이다.

우리와 같은 自由民主主義社會에서는 主權者인 국민의 대표들이 일정한 절차를 통해 制定한 法에 의해 社會統制를 하고 있으나 政黨 및 社會團體들에 의한 住民統制는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社會的 啓導와 통제가 엄격히 구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勞動黨에 의한 住民統制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권력구조상 黨獨裁(黨優位) 原則에 따라 金日成의 「敎示」와 黨決定이 법령보다 더 큰 구속력을 가진다. 그런데 黨員은 社會構成員 가운데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勞動黨에 의한 住民統制는 주로 社會團體와 행정기구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黨獨裁體制下에서 黨이 통치력의 核을 장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非黨員인 一般住民에 대해서는 黨自體가 개개인을 직접적으로 統制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들을 住居別, 年

齡別, 性別, 職種別, 階層別로 組織化하여 黨은 이들 所屬團體의 지도기관을 장악하고 이들로 하여금 黨과 住民과의 매개적 機能을 담당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있어서는 사람이 出生하면 託兒所와 幼稚園에 의무적으로 수용되고 각급 教育機關을 통해서 組織的인 統制를 받게 되며, 주민들이 7세부터 65세까지(女子는 60세) 1개 이상의 각종 團體에 의무적으로 加入하여 集團生活을 해야 한다. (단, 「敵對階層」중 制裁對象은 除外되어 왔다.) 이러한 성격을 띤 각종 社會團體를 계층별로 구별해 보면 다음 表와 같다.

北韓 社會 團體 現況<sup>4)</sup>

團 體 名	加 入 對 象	構 成 人 員	備 考
職 業 總 同 盟 ( 職 總 )	勞 動 者, 事 務 員 31 ~ 65 歲(女 60 歲)	約 250 萬 名	各 種 職 業 同 盟 으 로 構 成 ( 10 個 )
農 業 勤 勞 者 同 盟 ( 農 勤 盟 )	協 同 農 場 員 31 ~ 65 歲(女 60 歲)	約 300 萬 名	
社 會 主 義 勞 動 青 年 同 盟 ( 社 勞 青 )	青 年 男 女 14 ~ 30 歲	約 400 萬 名	
民 主 女 性 同 盟 ( 女 盟 )	女 性 31 ~ 60 歲	約 270 萬 名 추 계	女 性 위 주 의 職 場 등
少 年 團	7 ~ 13 歲	約 350 萬 名	社 勞 青 에 서 指 導

註 4) 北傀勞動黨 및 外廓團體 現況, 國토통일원, 1981 및 國토통일원 분석자료.

북한의 모든 社會團體들은 黨의 前衛組織이다. 이처럼 개인을 단체에 묶어 두는 것은 黨의인 행동지도와 思想的 관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有事時에 社會動員能力을 극대화하려는 데 그 目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나. 個人生活 統制

일반적으로 개인생활에 대한 社會的 統制는 어느 國家를 막론하고 있기 마련이지만 基本權과 관련되는 것은 그 制限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國民生活의 安定과 公共의 安寧질서를 위하여 개인생활을 部分的 또는 一時的으로 制限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는 엄격히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公民의 權利와 義務는 集團主義原則에 따라야 한다」는 구실로 주민의 行動이 난폭하게 統制, 유린당해야 하는 것이 보편화된 양상이다. 여기서 북한에서의 住民統制方法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체의 生活與件을 勞動黨이 장악하고 그에 순종하지 않으면 삶을 이어갈 수 없게 하는 統制方法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① 食糧 및 副食物 配給制와 기본적인 主要 日用品 供給制를 실시하여, 배치된 職장에서 일하지 않으면 이를 求得할 수 없게 하고 ② 임의로 職業선택 및 직장이동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위반시에는 失職되어 생활수단을 잃게 되고 ③ 개인에 의한 住宅建設과 소유가 허용되지 않으며 就業人에 한하여 그 職位에 따라 所定號數의 住宅을 配定받을 수 있다.

둘째, 私生活를 간섭하고 統制하는 각종 制度的 장치들 갖추고 있다. 즉 「5戶擔當制」와 「分組擔當制」 등에 의한 監視·統制를 실시하고 있다.

5戶擔當制는 1958年末부터 北韓의 全世帶를 5戶單位로 나누어서 熱誠黨員 1名을 宣傳員으로 배치하여 黨的 指導라는 명목으로 심지어는 夫婦間의 애정문제를 포함한 가정생활 일체를 간섭하고 監視하는 제도이다. 또 分組擔當制는 職場內에서의 同僚間의 日常言動이나 上下間의 태도 등을 감시하여 密告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서, 누가 分組擔當員인지를 알 수 없도록 비밀리에 組織해 놓고 있다.

따라서 北韓住民들은 가정과 마을에서는 5戶擔當制에 의하여, 職場에서는 分組擔當制에 의한 감시 속에서 他律的인 盲目的 生活만이 가능하도록 組織化된 統制社會에서 살고 있다.

세째, 住民間의 인간적인 접촉마저 制限한다. 즉 이웃, 親族, 同鄉, 同窓 등의 관계를 따지는 것은 「宗派主義의 溫床」이라 규정하고 「思想檢討의 要因」으로 지적된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血緣關係 등 모든 인간관계는 組織的 관계로 代替되고 統制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公務 이외의 旅行이나 通行은 철저히 억제되기 마련이다.

네째, 모든 주민들에게 金日成神格化學習, 각종 行事에의 의무적 參加, 기타 思想學習會 및 集團行動 등으로 私生活의 영역이 侵犯당하고 있다.

예컨대 1975年부터는 大學教員들에게도 이른바 「金日成勞作 萬페이지 읽기運動」이 강요되어, 우선 金日成神格化를 위한 政治學習에 열중하지 않으면 정기적인 檢閱時에 지적되어 징벌을 받게 된다. 특히 1977年 이후에는 「金日成革命思想研究室」이라는 것을 全地域의 각급 黨, 行政機關, 工場, 企業所, 農場, 軍部隊, 教育機關 등에 설치하여 構成員들에게 매일 2~3時間 정도의 金日成神格化 講義 등 정치사상 학습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있으며 週間에도 研究課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래에는 權力的 世襲化를 위해 이른바 思想事業 強化의 명목으로 그

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3大革命小組」의 간섭과 횡포, 監視와 統制는 날로 加重되고 있다.

### 다. 查察組織 強化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程度의 차이는 있으나 國家利益을 수호하고 社會의 安寧秩序와 公共福利를 위하여 국가기관이 內外的 反國家事犯을 다스리고 있으며 우리 社會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共產社會에서는 「多數에 대한 少數의 獨裁」가 실시되기 때문에 住民에 대한 엄격한 監視와 統制를 그 특징으로 한다.

그중에서도 북한의 統制方式은 더욱 철저하고 야만적인데, 그 內容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查察機構의 重疊, 즉 4重5重의 監視組織網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社會安全部, 國家保衛部, 社會主義法務生活指導委員會 등은 물론, 黨을 비롯한 각종 組織이 作動하고 있으며 특히 1980年初 金日成이 住民監視網組織을 강화하도록 지시한 이후, 住民 10名을 單位로 하여 黨員 1名, 國家保衛部 情報員 1名, 社會安全部 情報員 1名 등 3名이 배치되어 있어서, 주민 평균 3名當 監視員 1名이 붙어 있는 셈이다. 이 밖에도 주민에 대한 監視體系는 다각적으로 보강되고 있다.<sup>5)</sup>

둘째, 物證主義에 의해서가 아니라 「同志審判會制度」나 집단고문식인 이른바 「思想檢討」라는 명목으로 被疑者에게 虛僞自白을 강요하거나 造作하는 方法을 사용하고 있다.

註 5) 內外通信 326號 (1983.4.1 자료판) 참조.

세째, 북한 全住民에 대한 階層別 「成分調查事業」을 빈번히 실시하고 1971年 이후에는 3大階層을 51個 小階層으로 細分하여 監視와 統制를 조직적으로 強化하고 있다. 또한 敵對階層의 制裁對象 중에는 「特別獨裁對象 區域」에 強制移住되어 평생 그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人間以下の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10萬餘名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 나라는 罪刑法定主義에 입각하여 刑事訴訟法上的 절차를 거쳐 證據中心으로 犯罪를 다스리고 있는데 反해서, 북한에서는 黨의 意思에 따라 裁判하고 黨의 決定에 反對意見を 제시하는 것조차 「反黨行爲」이며, 「反革命分子」라 하여 처단받게 되니 이는 黨의 唯一專制性을 여실히 立證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 5. 住民生活 實態

### 가. 家庭生活

북한의 家族制度는 경제의 社會主義的 改革과 결부되어 변화되어 왔는데 크게 3段階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단계의 改革은 男女平等의 實現을 중심과제로 삼고서, 가정에서 봉건적인 遺習을 청산하고 婚姻과 離婚의 自由를 法的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취했다.<sup>6)</sup>

둘째 단계는 農業의 集團化를 비롯한 個人商工業의 말살 등 社會主義的 改革으로 인해 家族中心의 경제활동이 不可能하게 됨에 따라 家族成員은 각기 個人的으로 社會的 經濟活動에 참가하게 되었다.

註 6) 1946.7.30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 공포. (혼인의 자유는 실제로는 국가등록제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

세째 단계에는 둘째 단계를 바탕으로 해서 生産을 증대시키는 한편, 社會主義的 人間을 만들어 내고 家庭을 革命化하는 것이 주된 課題로 되었다.

그러므로 家族 成員들은 夫婦나 兄弟이기에 앞서 「思想的 同志」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家族制度의 변화와 더불어 社會主義工業化가 추진되고, 經濟의 分業化가 심화됨에 따라 本來의 大家族制度는 점차 小家族化되어 갔다. 一部 農村地域에 있었던 大家族制의 흔적도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社會構造의 變質과 아울러 새로운 家族개념 즉 社會主義的 家族개념이 발을 붙이게 되었는데, 이것은 첫째, 倫理道德의 기준이 달라진 점이다. 북한에서는 父母와 子息들간의 無條件의인 사랑과 尊敬과 信賴는 낡은 封建的 遺習이며 비록 父母라 할 지라도 소위 「黨의 原則」과 「首領의 敎示」에 위배되는 行動을 하였을 때에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思想事業」의 「成果」를 所屬團體의 간부에게 報告하는 것이 子女로서 지켜야 할 道德的 規範처럼 강요되고 있다. 따라서 年長者에 대한 존경의 尺度도 그가 얼마나 「階級鬪爭」과 「社會主義建設」을 위해 기여하였으며, 「首領」에 忠誠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社會生活의 기반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즉 가정생활의 연장으로서의 社會生活이라는 觀念과는 달리, 北韓에서는 社會生活의 한 細胞로서의 家庭生活만이 認定되고 있다. 세째, 子女에 대한 인식과 育兒問題에 대해 생각하는 次元이 다르다. 우리의 育兒는 父母의 신성한 責務이고 母性愛는 倫理道德의 바탕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반해, 북한에서는 「세 살적 버릇 여든까지」 끌고 가기 위해 幼兒의 教育을 黨에서 맡아 黨에 충실한 「붉은 戰士」로 키워야

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어린이들은 父母의 사랑 속에서 자란 것이 아니고 「黨과 首領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자라났다」고 믿게 하고 있으며, 金日成을 「어버이」라고 부르며, 親父母는 오히려 소홀하게 대하는 경우가 예사라는 것이다.

그리고 온종일 勞動과 學習과 團體活動에 動員되기 때문에 父母와 子女들이 단란한 家庭生活을 같이 할 수 있는 機會를 갖기 어렵고 매일 公的인 일과에 쫓기다 보면, 父母들이 子女들의 家庭教育을 하거나 돌보는 時間도 없는 메마른 家庭이 되고 있다.

住民의 基本日課表 7)

區分 日課別	勞 動 者 事 務 員	學 生	備 考
起 床	06:00	06:00	○主婦는 05:30 起床, 아침食事準備
出勤및登校	07:00	08:00	○主婦出勤時 幼兒는 탁아소에 맡김
讀 報 會	07:00-07:30	-	○定期講演會(07:00-09:00)가 있는 날은 생략, 기타會議時는 會議時間 延長
作 業 準 備	07:30-08:00	-	
午 前 作 業 및 授 業	08:00-12:00	08:00-12:00	○幼兒授乳(30分)
點 心	12:00-13:00	12:00-13:00	○幼兒授乳(30分)

註 7) 北韓現況(1981), 國土統一院, pp. 102~103.

區分 日課別	勞 動 者 事 務 員	學 生	備 考
午後作業 및 授業	13:00-19:00	13:00-16:00	○主婦 : 13:00-18:00, 幼兒授乳(30分) ○人民學校 學生 : 午後授業 1時間 ○勞力動員, 軍事訓練 및 各種集 會 參加 등으로 授業時間侵害
課外活動	-	16:00-18:00	○人民學校 學生 : 14:00-16:00 ○勞力動員, 軍事訓練 및 各種組織 活動
學習會 및 講演會	19:00-23:00	-	○主婦 : 18:00-19:30
退勤 및 歸家	23:00	18:00	○主婦 : 19:30 ○主婦 退勤時 탁아소에 맡긴 幼 兒 찾아 歸家 (일일탁아소의 경우)
就 寢	23:30	22:00	

## 【 備 考 】

\* 1日 平均 會議時間 3時間

\* 각종總和, 學習會, 講演會 : 週生活總和 및 定期學習(月), 技術學習(火), 定期講演會(水), 組織別學習(木), 組織別講演會 및 교시말씀침투회(金), 週事業總和(土)

## 나. 女性의 社會活動

集團主義 社會體制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은 傳來的인 우리의 家族制度를 가리켜 봉건적이고 共產主義理念에 어긋나기 때문에 社會主義的 改革을 실

현하기 위해서는 舊習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北韓共產集團은 8.15 직후부터 ① 전통적인 家族制度를 타파하고 새로운 「社會主義的 家族」을 발전시킴으로써 「社會主義的 生活樣式」을 강요하고 ② 女性の 社會的 地位를 「上昇」시킨다는 名分下에 家族의 구조와 家庭의 기능마저 변질시켜 왔다.

즉, 1946年 7月 30日 女性の 社會進出이라는 名目으로 「男女平等에 관한 法令」을 公布, 女性勞動資源의 최대이용을 制度化하였고, 1947年에는 우리 民族의 傳統의인 호적제도를 폐지함으로써 家族的 血緣關係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또한 1958年 7月 「人民經濟 各 部門에 女性들을 더욱 引入시킬데 대하여」라는 內閣決定의 채택으로 교육 및 보건의문에서는 30세 이상의 사람만 근무토록 하는 대신 30세 미만의 젊은 女性으로 하여금 어선단의 선원, 탄광의 광부, 고사포 사수, 덤프트럭 운전자 등 重勞動部門에까지 종사케 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이른바 「女性을 가정으로부터 解放시킨다」는 구실을 내세워 女性을 勞力動員함으로써 主婦들로 하여금 家事에 전념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여 社會主義建設을 힘있게 다그친다」<sup>8)</sup> 하면서 職場單位로 託兒所까지 설치하는 등 女性의 勞動力動員을 극대화하고 있다.

註8) 북한의 「어린이보육교양법」 제6조 등 참조.

## 다. 衣·食·住 生活

### (1) 食生活

우리의 경우 비약적인 經濟發展에 힘입어 食生活이 質과 量面에서 날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크게 뒤져 있다. 一般住民들은 지금도 最低生活 즉 노동력유지를 위한 섭생위주의 量的 水準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配給制度 때문에 각자가 필요로 하는 食糧의 절대량이 부족하여 食性和 기호에 맞는 식생활을 할 수 없음은 물론 부족분의 식량을 보충할 길마저 制度的으로 막혀 있다. 쌀 1 kg의 配給價格이 8전인데 暗去來價格은 10원 이상이라고 하니 一般住民들은 엄두도 낼 수 없다.<sup>9)</sup>

北韓住民은 1957年 11月 內閣決定 96號 및 102號로 「食糧販賣를 國家的 唯一體系로 할데 대하여」가 발표되면서부터 配給制度에 얽매어 살게 되었다.

食糧配給은 有償이며 대상자의 身分과 職責, 地域, 時期 등에 따라 相異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農民(協同農場員)의 경우에 있어서도 年末 「決算分配」에 따라 食糧을 割當받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족의 1年分 食糧(勞動者의 配給基準量)이외는 全量收買(供出形式)해 간다.

북한이 食糧配給制를 실시하는 이유는 住民들에게 당장 먹고 살아갈 식량을 얻기 위해서는 「勞力戰線」에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절박감을 불어넣어 勞動力을 최대한 動員함은 물론, 이를 통하여 住民統制를 강화하는 方法으로 惡用하려는 데 있다.

註9) 北韓現況(1981), 國土統一院, 경제편 참조.

또한 1959년부터는 糧券制度를 실시하고 있는데, 糧券(200g)은 公務出張과 여행할 때, 병원 入院時와 軍人의 休暇期間 중 가정이나 여관, 식당 등에서 사용된다.

食糧配給基準量<sup>10)</sup>

(單位: g / 1人 / 1日)

區 分	配 給 量	混 食 比 率 (白米:雜穀)
黨 및 政權 機關 幹部	700 g	10 : 0
特殊 軍人 (輕步兵)	800 g	8 : 2
軍 人	700 g	3 : 7
重 勞 動 者	700 g	3 : 7
一般 勞 動 者 · 事 務 員	600 g	3 : 7
大 學 生	600 g	3 : 7
高 等 中 學 生	500 g	3 : 7
人 民 學 生	400 g	3 : 7
被 扶 養 者	300 g	3 : 7

(2) 衣生活

북한에서는 一般住民들은 通常 勤務服(作業服)에 의존하고 있다.

衣類의 需給面에 있어서도 특히 織物의 절대량이 부족한 실정이고 輕工業品에 대한 高物價政策으로 勞賃에 비해 값이 비싸기 때문에 求得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물론 規格화된 基本作業服과 內衣 정도는 夏冬의 계절에 따라 支給되고 있으며 다소 傭가로 제공된다.

註 10) 國統院 分析자료.

따라서 신사복 등은 特殊層 이외에는 입기가 어렵게 되어 있으며, 특히 高級衣類의 統制政策은 일반주민들의 衣生活劃一化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外國人들의 出入으로 部分的이나마 開放을 해야 하는 平壤 등의 都市에서는 주민들, 특히 女性들에게 出退勤 등 外出할 때 化장을 하고 양장 또는 빗갈 있는 옷을 입도록 권장하는 경향이 80年代初부터 나타나고 있다.

### 階 層 別 衣 類

區分 職 業 別	夏 期			冬 期			保有
	外出 및 出 張	勤務時	平常時	外出 및 出 張	勤務時	平常時	
勞働者	Y샤스(테드롱) 紳士服下衣 (테드롱)	混紡織 作業服	남방샤스 (테드롱)	麻織外套 (테드롱洋 服)	混紡織 作業服	다후다솜 冬服上衣, 테드롱下 衣	1~2 着
事務員	Y샤스(테드롱) 紳士服下衣 (毛織)	비날混紡 作業服	남방샤스 (테드롱)	毛織外套, 紳士服下 衣(毛織)	솜冬服 混紡織	다후다솜 冬服上衣, 테드롱下 衣	1~2 着
學 生	남방샤스 (白色 綿織) 비날混紡 下衣(黑色)	上 同	上 同	다후다솜 冬服上衣, 비날混紡 下衣	上 同	上 同	1~2 着

出處：國土統一院分析資料(北韓概要, 1980)

(3) 住生活

북한에서는 個人이 住宅을 所有하거나 건축한다는 것은 現實的으로 不可能하며, 다만 社會的 階層과 職位에 따라 等級別로 規格화된 獨立家屋 또는 아파트를 賃借形式으로 할당받을 뿐이다. 따라서 일반주민의 住宅生活은 대체로 아파트型 또는 聯立住宅型의 집단적인 住宅樣式이 지배적이며, 生活空間도 共同的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住宅環境은 가정적 삶의 터전이라기보다는 合宿所와 같으며, 심지어는 「밥工場」이라는 것이 있어서 고된 勞動에 지친 주민들은 「밥工場」에서 만든 밥과 副食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리 社會와 같은 情緒的이며 文化的인 家庭生活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북한은 주민들을 集團的으로 收容함으로써 이들의 一舉一動을 黨에서 監視·統制하는데 용이하도록 하며 規格화된 환경 속에서 生活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思考마저도 劃一化시키고 있다. 그리고 不足한 住宅事情 때문에 주민들의 不滿이 대단하다.

住宅事情(平壤)

區分	住宅型	家屋構造	入住者
特號	獨立 高級住宅	○ 獨立式 단층 또는 2층 住宅 ○ 庭園 ○ 수세식 변소 ○ 冷溫房 장치	○ 중앙당 부부장급 이상 ○ 정무원 부부장급 이상 ○ 인민군 소장급 이상

區分	住宅型	家屋構造	入 住 者
4號	新型 高층아파트	○ 방 2개 이상 ○ 목욕탕 및 수세식 변소 ○ 베란다, 冷温水施設	○ 중앙당 과장급 이상 ○ 정무원 국장급 이상 ○ 대학교수 ○ 인민군 대좌 ○ 문예인 간부 ○ 기업소 책임자
3號	中級 單獨住宅 및 신형아파트	○ 방 2개 ○ 부엌, 倉庫	○ 중앙기관 지도원 ○ 도단위 부부장급 ○ 기업소 부장
2號	일반아파트	○ 방 1~2, 마루방 1, 부엌	○ 인민학교, 中等 학교장 ○ 일반노동자 ○ 사무원
1號	單獨公營住宅	○ 방 1~2, 부엌	○ 말단근로자 및 사무원
	農村文化住宅	○ 單層聯立住宅 ○ 방 2, 부엌 참고 1	○ 협동농장원
	舊屋	○ 방 2~3개의 農村 既存 舊屋	○ 변두리 농민

出處：國土統一院分析資料（北韓概要，1980）

## 라. 冠婚喪祭

8.15 以後 南北韓은 시대변천에 따라 옛 生活樣式이 크게 변했고, 美風良俗의 개념도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나 그 精神的인 바탕과 내용이 어느 만큼 繼承되고 있는가의 여부는 우리의 민족적 傳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며 이런 面에서 南北韓은 큰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冠婚喪祭의 形式과 節次가 많이 간소화되었으면서도 그 基本은 여전히 계승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根本的인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에서는 이른바 「形式은 民族的이되 內容은 社會主義的으로」라는 구호 아래 傳統的인 冠婚喪祭儀式까지도 완전히 말살하려 하고 있다. 특히 1955年에서 1960年 사이에 「冠婚喪祭簡素化運動」을 전개하였는데, 그 실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婚禮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配偶者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各自가 속해 있는 職場이나 團體의 黨細胞委員長에게 事前承認을 받아야 한다. 結婚은 男女間의 愛情보다는 「社會主義的 革命戰士間의 結合」으로 보고 「붉은 革命家族」의 탄생으로 규정함으로써 結婚의 意義를 「革命力量 強化」라는 데에 두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도 黨性, 出身成分, 職業 등과 관련하여 크게 制約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黨幹部, 軍官, 航空士 등의 結婚은 黨의 特別한 統制를 받는다.

그리고 1976年 7月 政務院 決定에 따라 結婚年齡까지도 男子는 30세, 女子는 28세가 넘어야 가능하도록 制限하고 있다. 또한 結婚式도 축객을 30名 이내로 하되, 主禮의 역할을 하는 職場幹部가 「金日成 肖像畫」 앞에서 「革命家庭의 탄생」을 선언하고 新郎·新婦로 하여금 「黨과

金日成父子에 대한 忠誠」을 맹세케 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

돌째, 回甲, 生日, 돌잔치 등은 休戰後 1950年代에는 戰後復舊事業과 食糧節約의 명분으로 이를 모두 엄금하였는데, 1960年代 後半부터는 차츰 묵인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세째, 葬禮儀式은 한 人間의 勞動力이 소진되고 利用價値가 다한 物體를 처리하는 單純한 事務的인 일로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儀式節次를 극히 간소화하여 1日葬을 원칙으로 하고 葬地는 지정된 共同墓地만을 쓸 수 있다. 都市의 경우 便宜協同組合과 綠化事業所 등이 葬禮一切를 맡아서 처리해 준다.

네째, 祭祀에 있어서도 傳統的 祭禮는 迷信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조상숭배를 復古主義的 病弊라고 비판하기 때문에 우리 傳來의 절차는 무시된다. 다만 思想教育의 효과를 노리기 위하여 祭日을 故人的 革命鬪爭에 대한 추앙과 비판의 기회로만 권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설날, 秋夕, 寒食 등 民族固有의 명절은 명목상으로만 존속시키면서 金日成神格化 및 그의 權力世襲을 위해 새로 지정한 소위 「社會主義的名節」에는 盛大한 慶祝行事を 벌이고 있다. 예컨대 金日成生日(4月 15日)과 金正日生日(2月 16日)을 公休日로 하여 선물보내기運動 등 각종 行事を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그 외에도 政權創建日(9月 9日), 勞動黨創建日(10月 10日), 社會主義憲法制定日(12月 27日)등을 慶祝日로 정하고 있다.

## 마 信仰과 宗教

북한의 社會主義憲法 第54條는 「公民은 信仰의 自由와 反宗教宣傳의 自

由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反宗教宣傳의 自由」만이 보장되고 있다. 舊憲法에서도 第 14 條에 「公民은 信仰 및 宗教儀式 거행의 自由를 가진다」고 규정해 놓았으나 內面的으로 宗教抹殺政策을 써왔기 때문에 新憲法에서는 이를 明文化한 것에 불과하다.

北韓共產集團은 8.15 이후 宗教에 대한 「制限」, 「強壓」, 「抹殺」의 3 단계 過程을 통하여 1955 年까지 모든 宗教團體와 宗教儀式을 抹殺하였고 모든 宗教人들에게 「反動分子」라는 罪名을 씌워 학살하거나 박해를 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教人과 그 家族을 「敵對階層」으로 分類하여 監視와 制裁의 대상으로 삼아 왔으며 宗教財産을 沒收하고 施設物 등을 變造하여 協同農場의 倉庫, 託兒所, 休養所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북한을 訪問한 한 日本人은 안내원으로부터 북한의 宗教實態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한다.

“ 물론 平壤市에는 教會가 없다. 全國 어디를 가도 단 하나의 教會도 찾아 볼 수 없다. 산속에는 몇 개의 절이 남아 있지만 그것들도 곧 없어질 것이다. 朝鮮에는 基督教도 佛敎도 금지되고 있지는 않다. 信仰의 自由는 保障되어 있다. 그러나 아무리 하느님에게 정성껏 빌어 보았자 먹을 음식이나 살 집을 얻을 수는 없다. 金日成首領의 指導 밑에서 열심히 일한다면 糧食, 衣服, 住宅의 걱정은 조금도 없다. 그러므로 基督教을 믿는 사람이 없어진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11)

이처럼 오늘의 북한은 神과 宗教와 教會의 위치에 「金日成」과 「主體思想」, 「金日成思想研究室」이 대신 자리잡고 金日成 父子를 위한 邪敎만

註 11) 北韓概要, 國土統一院, 1980, p. 154.

이 판을 치는 社會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北韓共產集團은 필요에 따라 架空的인 宗教團體를 날조하여 對南戰略 수행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교활한 술책을 부리기도 했다.

1972年 南北對話가 시작되자 「朝鮮基督教徒聯盟」이니 「朝鮮佛教徒聯盟」 등의 僞裝團體를 내세워 一部 宗教人들과 統一戰線形成을 모색하려 하더니, 1974年부터는 본격적으로 對南宣傳에 이용하는가 하면 對外的으로는 국제 여론을 誤導하고 이른바 「連帶性」을 강화할 목적으로 左傾宗教人들이 參加하는 國際會議에 代表를 參加시킨 바도 있다.

그런데 이같은 宗教抹殺政策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土俗信仰인 점, 관상, 풍타거리가 一部地方에서 아직도 비밀리에 행해지고 있다 하니 北韓住民들의 각박한 精神生活의 斷面을 알 수 있다.

## 6. 文化의 實相

### 가. 文化政策의 性格

북한의 文化政策은 住民들에게서 煽動의 波狀의 效果를 극대화하고 對決感을 扶植 또는 고취하여, 體制歸屬性을 확보하는데 基本目標을 두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目標을 成就하기 위한 活動을 「群衆文化事業」이라고 부르고 있다.

金日成은 지난날 黨大會時 또는 문학예술인들 앞에서 「우리의 문학예술과 모든 文化事業은 인민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수단이며 인민에게 투쟁의 무기로서 복무하여야 한다. 군중을 교양 개조하는 데는 학

교교육만으로는 안되며 선전, 선동만으로도 안된다. 대중교양의 훌륭한 수단들인 소설, 시, 연극, 영화, 음악 등 모든 형태의 문학예술을 다 동원해야만 균증을 교양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sup>12)</sup>라고 하였는데 「균증문화사업」이란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와 같이 그들의 文化政策은 단지 학술, 예술, 민속, 체육, 언론, 교육 등 어떤 特定の 文化的 領域에만 국한된 정책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문화정책으로 포괄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經濟分野에 있어 生産活動도 文化政策分野에 속하고 이밖에 家族에 관한 정책, 靑少年社會化政策, 言語教育政策 나아가서는 法意識의 문제에서 政治活動에 이르기까지 모두 文化政策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포괄적인 內容을 가진 북한의 文化정책은 終局的으로 絶對的 目標, 즉 金日成 神格化와 權力の 世襲化에 의한 共產獨裁強化를 指向하며 이에 歸一된다. 따라서 北韓共產集團의 文化政策은 그만큼 統合的이고 支配者의 政治目的과 密着되어 組織的인 動員을 企圖하고 있는 것이다.

## 나. 文學·藝術

### (1) 文藝政策

북한에서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로동계급화하는 데 복무하는 수단」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黨

---

註 12) 김일성저작선집 4권, p. 144, 5권 p. 430.

의 지도와 영도를 벗어난 순수한 文藝活動이란 있을 수 없다. 문학·예술의 창작과 활동에서 지켜야 할 原則으로 내세우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이다.

社會主義的 寫實主義는 民族的 形式에 社會主義的 內容(革命的 階級的인 內容)을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創作方法이라고 한다.<sup>13)</sup>

둘째, 黨性, 階級性, 人民性의 구현이다.

文學·藝術에서의 黨性에 대해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우리의 문학 예술은 절대로 혁명의 이익과 당의 로선을 떠나서는 안되며, 착취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를 허용해서도 안된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한 혁명적 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 혁명 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될 수 있다.”<sup>14)</sup>

문예작품 창작에서의 주제별 比率은 1964年 11月 7日 「文學·예술부문 일군들」앞에서 한 金日成의 「敎示」에 따라, 社會主義建設과 革命鬭爭에 관한 것을 각각 5 : 5로, 그중 혁명투쟁에서는 북한 것을 4, 남한 것을 1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왔다.<sup>15)</sup>

그러나 1960年代 후반기부터는 金日成 개인에 관한 것과 「혁명전통」을 내용으로 하는 主題選定에 더 큰 比重을 두고 있다.

다음은 1975年 10月 10日, 黨創建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全國文學藝術小組員들이 發表한 作品의 주제별 비율이다.

註 13) 문학예술사전,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72, p. 497.

14) 김일성저작선집 2권, p. 579.

15) 김일성저작선집 4권, p.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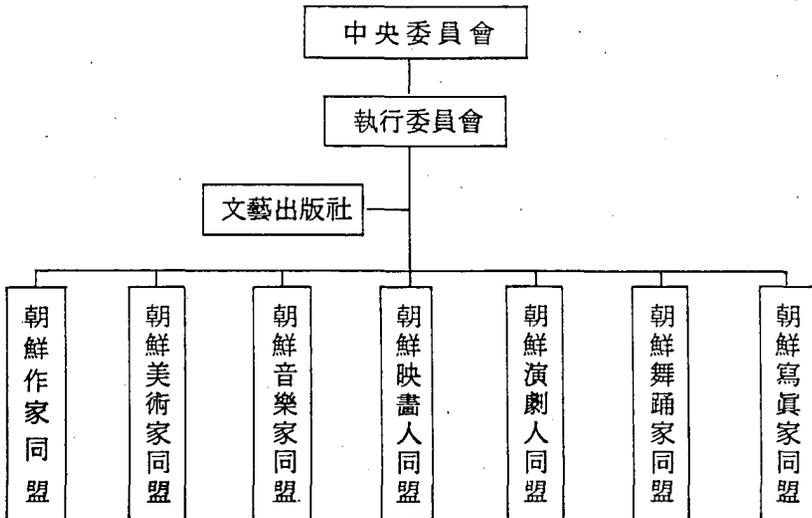
文藝小組員 發表作品 主題別 比率

主 題 別	比 率
金日成과 黨中央 (金正日)	217 편 (42.7%)
經濟建設 (經濟煽動)	183 편 (36.2%)
南朝鮮革命과 祖國統一	55 편 (10.8%)
黨과 革命傳統	53 편 (10.3%)

(2) 文藝團體

職業 藝術人의 組織體로서는 「朝鮮文學藝術總同盟」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中央組織과 市·道組織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망라된 단체로서는 「조선작가동맹」 등 아래와 같이 7개 동맹이 있다.

朝鮮文學藝術總同盟機構



出處：문학예술사전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72), p. 698.

※ 各 同盟傘下에는 分科委員會들이 있으며, 各道에는 總同盟 支部와 部門別 支部가 있다.

作家, 藝術人들은 이와 같은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 黨에서 제시하는 作品만을 創作할 수 있으며, 各自의 特技와 예술적 個性을 살리는 것보다는 集體作이라는 名分下에 活動을 制限하므로 북한의 작가, 예술인은 一種의 匠工에 지나지 않는 존재이다.

그 밖에 藝術의 大衆化를 위해 工場, 企業所 및 協同團體들에는 藝術小組라는 것이 있다. 이 예술소조는 各 分野別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 부문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망라되고 있다.

### (3) 文學

文學은 순수문학의 의미를 벗어나 黨의 政策을 구현하며, 근로자들을 共產主義 世界觀으로 무장시키는데 봉사해야 하므로 主題選擇에서는 물론 素材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의 作品들의 素材를 보면 대부분 現實性和 革命性, 그리고 社會主義的인 것을 담은 內容들이며, 金日成과 黨에 忠直한 英雄的인 人物들만을 묘사하고 있으며, 革命的 樂觀主義와 集團의 英雄主義가 主流를 이루고 있다.

근래에는 金日成의 「革命鬪爭과 革命的 家庭」의 美化, 그리고 社會主義 建設을 위한 思想·技術·文化의 3大革命 鬪爭을 소재로 한 作品들이 창작되고 있는데, 「꽃파는 처녀」라는 장편 小說이 그 代表作이라 할 수 있다. 이는 金日成이 이른바 抗日鬪爭時期에 직접 창작했다는 作品을 그대로 小說化했다는 것인데, 主人公인 「꽃분이」를 통해 日帝下의 압박과 착취받는 朝鮮민족의 비참한 생활을 묘사하고 祖國光復, 그리고 自由와 幸福을 위해서는 鬪爭隊列에 참가해야 한다는 內容으로 되어 있다.

北韓共產集團은 이 小說을 「革命的 文學藝術이 지켜야 할 美學的 원칙

들을 가르쳐 주는 참된 교과서」라고 선전하고 있다.

詩文學으로는 이른바 「金日成의 革命業績과 共產主義의 道德을 頌모」 한다는 「人民의 위대한 태양」과 金正日 찬양과 충성을 구가하는 「향도의 햇발은 누리에 빛난다」 등 叙事詩를 예로 들 수 있다.

앞으로는 金正日을 偶像화하는 內容을 素材로 한 作品活動이 점차로 증대될 것이 예상된다.

#### (4) 美術

북한의 미술은 8.15 이후 6.25 동란까지는 肖像畫를 비롯한 宣傳壁畫 등 公산주의 宣傳 포스타 등이 대부분이었다. 1945年 한 해에 그려진 金日成의 肖像畫만도 9만여 점이나 된다.

1950年初부터 중반까지는 越北한 作家들에 의해서 비교적 自然主義的인 方法의 風景이나 花草 또는 사람들의 生活相 등이 등장하고, 古美術에 대한 소개가 빈번히 나타나곤 했다. 그러다가 1950年代 후반부터 1960年初에 걸쳐서는 金日成의 肖像과 工場·企業所들, 戰後復舊 및 千里馬運動 등과 같은 經濟建設이 主題가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金日成이 畫面에 등장하는 비율은 전체 작품의 20% 정도였다.

그러나 1960年代 중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거의 90% 이상의 作品에 金日成이 등장하여 美化되고 偶像화된 作品들로 일관하고 있다.

1960年代 이후부터는 作家의 主觀이나 個性이 일체 배제된 集體畫가 빈번히 등장하였으며, 目的畫의 形式으로 전락하여 傳統의 왜곡 변질과 金日成 偶像化內容이 북한 미술의 전반적 추세이다.

## (5) 音 樂

8.15 後부터 1950 年代 中盤期까지만 해도 베토벤, 차이코프스키 등의 음악이 연주되었으나 그 후부터는 金日成 讚美와 革命化, 勞動階級化를 위한 선동수단으로 化했으며, 근래에 와서는 거의 金日成을 讚揚하는 것들로 되어 있다.

1977 年 평양 「문예출판사」發行 「조선음악 600 곡집」을 보면, 600 곡 가운데 歌曲 302 곡, 歌劇에서 나오는 아리아 190 곡, 映畫主題歌 108 곡 등이 있는데 歌曲篇만 分類해 봐도 232 곡이 金日成을 찬양하는 노래로서 全體의 80%를 점한다.

한편 北韓共產集團은 1970 年代 중반부터 예술인들에게 「혁명적 노래부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과 함께 經濟煽動, 藝術선동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북한 음악인들은 예술단 및 예술선전대 활동에 동원되어 선전선동활동에 혹사당하고 있다.

## (6) 映畫·演劇

북한에서는 영화·연극을 「直觀藝術」이라 하여 다른 공산국가와 마찬가지로 重要視하고 있으며, 住民들의 政治思想 教養手段으로 이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 영화·연극의 內容은 肯定的 人物과 否定的 人物을 登場시키고, 否定的 人物은 8.15 前의 素材로는 日人과 地主, 그 후에는 美國人이나 南韓住民 또는 保守의인 인텔리 등이며, 肯定的 人物은 金日成을 숭배하는 노동자, 농민들이다.

1960 年代 千里馬運動이 本格化됨에 따라 영화·연극도 大型化하고 量産되었으며 千里馬運動의 典型과 그 위에 黨의 唯一思想體系와 革命傳統 教養을 體

系化한 金日成 神格化가 主軸을 이루게 되었다.

1970年代에 들어 代表的인 作品은 1971年에 製作된 「피바다」(歌劇 上下篇 映畫化)와 1972年의 「꽃파는 처녀」이다. 이들 두 作品이 모두 日帝植民治下의 生活을 主題로 한 것으로서 「階級的 원수들과는 개별적 자연발생적으로 투쟁해서는 비극적인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金日成이 제시한 무장투쟁 路線만이 조국을 광복할 수 있다」는 등 「혁명의 참된 教科書」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피바다」는 金日成이 각본을 직접 쓰고 配役들의 대사와 연기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도를 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1982年 4月 15日, 金日成 70回 生日을 記念하기 위해 많은 作品을 製作했다. 그중에서 「영광의 노래」(음악무용 서사시)는 金日成 神格化를 위한 內容인데, 金正日이 直接 指導한 集體藝術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 製作되는 主要作品은 金正日의 「天才的 創作」이라고 극구 선전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는 金正日을 찬양하기 위한 이러한 作品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 다. 報道·出版

### (1) 新 聞

新聞은 勞動黨의 機關紙로서 中央에는 「로동신문」, 各道에는 「道日報」가 발간되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와 政무원 機關紙로서 「민주조선」, 社會團體 기관지로서 「로동청년」, 「로동자신문」, 「농업근로자」와 같은 신문 등이 있다.

그밖에 「교통신문」, 「건설신문」, 「교원신문」, 「인민군신문」과 같은 政務院의 各部에서 발간하는 신문이 있다.

이러한 신문들은 뉴스의 傳達者나 教養·娛樂 手段이 아니라 레닌이 規定한 바와 같이 「集約的 선전선동자 및 조직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에서 가장 권위 있고 發行部數가 많은 「로동신문」의 과업에 대해 同紙 창간 25주년 축하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sup>16)</sup>

- ① 全人民을 黨의 唯一思想으로 무장
- ② 社會의 革命化, 勞動階級化
- ③ 文化革命 推進
- ④ 國防力 強化 및 南朝鮮革命과 祖國統一에 대한 方針 貫철
- ⑤ 金日成의 世界革命戰略으로 무장

「로동신문」은 1945年 11月 1日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의 기관지로 발행했던 「正路」를 1946年 8月 29日에 北朝鮮勞動黨의 黨報로 하기위해 「로동신문」으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

## (2) 通 信

通信報道機關으로서는 政務院에 직속된 북한 唯一의 「조선중앙통신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간 「조선중앙통신」, 「사진통신」, 「영문통신」, 「로문통신」, 「불문통신」, 「에스파니아문통신」과 「조선중앙년감」을 비롯한 대내외 宣傳事業에 필요한 출판물을 편집, 발행한다.

또한 소련의 「타스통신」, 中共의 「신화사통신」을 비롯한 各國의 通信

註 16) 로동신문 (1970.12.21)

을 수신하여 보도하는 동시에 對外放送과 대내방송을 실시한다.

대외통신으로서는 亞·阿·中南美·歐洲方面에 英語放送, 亞·阿·歐洲方面에 佛語放送, 中南美方面에 서반아어放送, 東歐方面에 露語放送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노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한국어, 서반아어 등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유럽을 대상으로 11개의 주파수로 送信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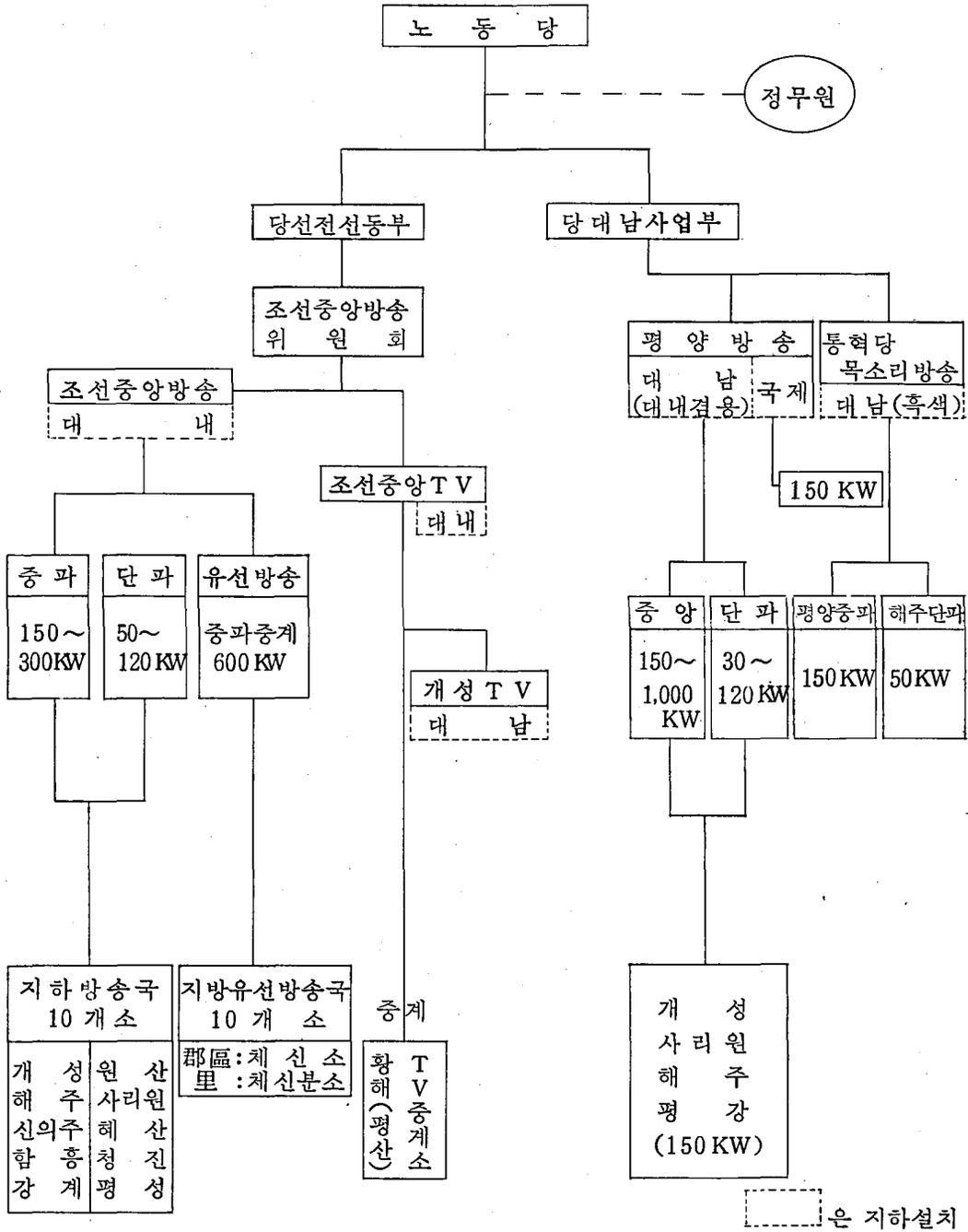
### (3) 放 送

방송의 任務는 신문과 같이 黨의 강력한 思想的 武器로 되어 있다. 表面上으로는 政務院 直屬의 中央放送委員會의 指導에 의해 運營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實際로는 勞動黨과 政務院의 二元體系로 되어 있다. 즉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黨과 政務院의 指導·監督에 따라 放送을 管장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黨에서 任命한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放送 內容에 대해 黨의 宣傳煽動部와 對南事業部の 指示 統制를 받고 있다.

TV放送은 1969年부터 正規放送을 시작하였으며, 1974年 4月 15日부터 天然色 TV도 방영하기 시작했다.

放送體系에서 특이한 것은 「평양방송」에 對南心理戰放送이 별도로 설치되어 中央黨 對南事業部가 이를 內面的으로 직접 통제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 黑色放送으로서 「統一革命黨 목소리 放送」이 있는데, 이는 1968年 4月부터 「南朝鮮解放放送」이라는 이름으로 방송해 오다가 1970年 6月 1日에 그명칭을 「통일혁명당 목소리방송」으로 변경한 것이다. 그리고 開城에 對南心理戰을 目的으로 TV방송국을 설치하여 1971年 4月 15日부터 방영하고 있다.

北韓放送體系



出處：北韓總覽(北韓研究所，1983)

#### (4) 出 版

출판사업은 黨의 강력한 선전 선동 수단의 하나로서 金日成의 다음과 같은 敎示에 따라서 그 事業方向을 정하고 있다. 즉 金日成은 「……………혁명군대가 무기를 가져야만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혁명조직은 출판물과 같은 그러한 예리하고도 전투적인 사상적 무기를 가져야 대중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sup>17)</sup>고 했다.

주요 출판기관으로서는 思想革命과 관련된 圖書出版을 주로하는 「조선로동당출판사」, 「금성청년출판사」 등과 과학지식 보급을 위한 「사회과학출판사」, 「과학원출판사」 및 문예작품 도서만을 취급하는 「문예출판사」 등이 있다.

또한 교육도서를 출판하는 教育委員會 傘下의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고등교육도서출판사」, 「외국문교육도서출판사」와 海外宣傳冊子出版을 하고 있는 「외국문출판사」가 있다.

## 7. 社會·文化의 問題點

이상으로 북한의 社會·文化 實態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대략 살펴보았다. 다음은 북한공산체제의 特性으로 볼 수 있는 문제점을 다른 공산 국가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검토하기로 한다.

---

註 17) 朝鮮中央年鑑(1971년판), p. 272.

## 가. 思想의 劃一化

오늘날 金日成集團이 그들의 공산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강행하는 思想教養事業의 方式은 다른 공산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가장 강압적이며 非人間的이다.

유고슬라비아의 경우를 보면, 이 나라가 多民族國家인데다 특수한 地理的 환경의 영향도 있겠으나 歷史的으로 형성된 固有文化의 多樣性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宗教도 正教, 카톨릭教, 回教 등 세 가지가 共存하지만, 유고 共產黨이 宗教問題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거나 말살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뿐 아니라 유고공산당은 1958年 4月 第7次 黨大會에서 채택한 新綱領에서 黨의 指導的 役割을 絶對視하는 것을 否定하고 있다. 즉 공산당에 의한 政治權力의 絶對的 強占을 보편적 不變의 原則으로 내세우는 教條主義는 不當하다는 것이며, 人間을 政治目的에 종속시키는 것에 反對하면서, 社會主義의 至上目標가 個個人의 幸福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1964年 12月에 있는 第8次 黨大會에서는 黨員들에게 黨幹部와 黨의 決議를 비판하는 것도 허용했다.

폴란드에서는 소련의 壓力과 干涉때문에 자주 수난을 겪고 있지만, 종교 활동과 知識人의 活動이 돋보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나라에는 1萬個가 넘는 教會가 있으며 카톨릭 祝祭日이 여전히 국경일로 인정되어 復活節이나 성탄절 때면 그 나라를 방문한 外國人들이 공산국가에 와 있다는 것을 잊을 정도로 盛大한 祝祭行事를 벌이고 있다. 폴란드에는 전통적인 民族宗教가 엄존하고 있으며 카톨릭教가 여전히 國民들의 精神的 支柱가 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바르샤바에는 神

學아카데미도 있고 바르샤바 南西쪽에 있는 「찬스트·호부오」라는 小都市에는 카톨릭 總本山인 寺院이 있는데 每年 8月이 되면 西方側에서도 數萬名의 巡禮者가 모여든다는 것이다. 18)

知識人들의 活動과 言論自由에 있어서도 이미 他界한 아담·샤프教授의 주목할 만한 활동이 立證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들 나라는 같은 공산국가이면서도 북한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유고와 폴란드, 東獨 등에서는 西方社會의 신문, 잡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中共에서도 抑壓당했던 宗教活動이 서서히 復活되고 신문 내용이 대중화되어 가고 있다. 19)

그러나 북한에서는 言論의 自由는 커녕 宗教가 완전히 말살되고 그 대신 「金日成主義」라는 絶對的 「信仰」과 黨만이 있을 뿐이며, 住民들은 每日 「熱誠黨員」들의 입을 통해서 「教主」인 金日成의 主體思想이라는 「教理」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方針으로서의 「教示」를 政治學習이란 名目으로 說教당해야 한다.

信仰이란 人間의 內面生活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自由는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人間이면 누구나 天賦的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信仰을 전파하는 活動의 自由가 없는 북한의 헌법 제 54 조는 종교활동을 탄압하는 것 밖에는 아무런 意義가 없는 것이다.

공산국가에서 思想的 統制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나, 그러한 통제는 黨 指導部가 제시한 政治思想이나 決定을 黨員들에게 信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一般的 傾向이며, 북한처럼 全住民에게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北韓共產集團은 憲法에서도 思想的 劃一化를 분명히 하고 있다. 즉 「全

註 18) 加藤雅彦, 東ヨ-ロツバ, 日本放送協會, 1977, pp. 199~204.

19) 東亞日報, (1979. 8. 3)

體人民의 政治思想的 統一」(第2條)과 「朝鮮勞動黨의 主體思想을 自己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고」(第4條), 「思想革命을 強化하여 온 社會를 革命化, 勞動階級화한다」(第11條)고 규정하고 있다.

1974年부터는 「온 社會를 主體思想으로 一色化하자」고 선언하여 唯一思想體系 確立의 方針을 명확히 했다. 그리하여 주민들에게 「金日成의 永生不滅의 主體思想을 자기 뼈와 살로 만들자」 또는 「首領의 革命思想대로 思考하고 行動하라」고 요구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首領에 대한 끝없는 忠實性으로 가슴과 가슴을 뜨겁게 불태우는 것이 基本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理由에서 北韓住民들은 男女老少할 것 없이 각종 조직을 통해서 최소한 每日 2시간 이상의 政治학습을 받는 것이 日課로 되어 있다.

즉 報道, 出版 등 매스·미디어를 勞動黨이 독점하고 있는 북한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外部世界와의 情報가 完全 차단된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日常生活에서 金日成思想만을 「配給」받으며 「首領」의 思想意志대로 思考하고 행동하도록 強요당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勞動力을 提供하는 대가로 基本生活에 必要한 最少限의 物資와 教育과 醫療 혜택의 機會를 分配받게 될 뿐 아니라 行動指針으로서의 思想도 배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唯一思想體系의 確立이라는 것은 「思想配給制」를 확립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공산집단은 主體思想이란 「사람이 자기 머리로 思考하고 판단하여 자주적 창조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基本立場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와는 正反對로 오직 金日成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대로 思考하고 行動해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強제하고 있다.

그들의 말을 빌리면,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大衆活動의 意識化와 組

織化가 요청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黨의 唯一思想과 唯一意志에 기초한 統一的 中央集權的 계획성있는 指導가 절실하다는 것인데, 그러한 指導는 「首領」의 存在에 의해서만 保障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首領」은 풍부한 革命鬭爭의 경험을 바탕으로 黨員과 大衆의 意思를 集大成하는 「유일한 最高頭腦」이며, 首領과 黨, 階級, 大衆은 不可分의 一體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首領의 思想은 數百萬 大衆意思의 「最高表現」이니 黨의 「唯一思想」이라고 強辯하면서 主體思想一色化運動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있다. 심지어는 「革命家가 잠이 모자라서는 살 수 있으나 金日成主義로 확고히 무장하지 못하면 영원히 죽고 만다」<sup>20)</sup>고 金日成主義의 절대성을 주장하고 있으니 그 정도를 짐작할 만하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宗教抹殺과 이에 代置된 金日成主義라는 새로운 「教理」에 의해서 金日成이 요구하는 이른바 共產主義的 「主體型」의 人間改造가 進行되어 왔고 새로운 세대들은 탁아소, 유치원에서 「主體型」의 人間으로 구조되어 왔다.

그러면 북한공산집단이 思想의 劃一化를 통한 集團主義原則의 관철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그들의 政治·經濟的 사정과 對南戰略이라는 側面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주민들이 外部의 思想이나 宗教의 영향을 받게 되면 비판력이 생기어 金日成의 날조된 배경과 허구적인 公산체제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金日成 1人獨裁體制를 방어하고 이를 세습화하기 위해서는 排他的이며 排外的인 方法으로 金日成을 神格化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思想의

註 20) 찬리마 (1975.년 10월호), p. 53.

획일화를 강행하고 있다.

둘째, 낮은 技術水準과 빈약한 資本을 바탕으로 하여 폐쇄적 自給自足體制를 유지해 나가자면, 生産性を 높이기 위해서 耐乏을 강요하고 勞動力을 착취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히 支配者의 絶對權力을 계속 強化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對南赤化野慾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全社會를 兵營化하고 全住民을 金日成思想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金日成의 命令이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들격할 수 있는 전투적 충성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조주의적 체제유지방식은 住民들의 思考를 극도로 硬化시키고 社會, 經濟 發展을 가로막는 決定的 障礙요인이 됨으로써 멀지 않아 限界點에 이를 것이며, 결국 다른 공산국가들 처럼 새로운 政策轉換과 變化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 나. 社會의 密閉化

일반적으로 공산체제가 폐쇄적인 성격을 갖게 된 原因中の 하나는 冷戰體制와도 관련이 있었다고 하겠다. 스탈린時代에는 모스크바를 통하지 않고 共產國家들 相互間에 直接 接觸하는 것도 禁忌로 되어 있었으며 더우기 西方圈과의 접촉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이른바 「鐵의 帳幕」이 엄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스탈린 死亡後 東歐共產諸國은 급속히 開放化되어 현재는 東歐圈間에는 비자없이도 왕래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거리가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西方側 旅行者들에게 까지도 經濟協力 또는 觀光誘致의 일환책으로 門戶를 크게 開放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觀光에 의한 外貨收入을 위하여 아드리아해안의 민간인들에게 民泊까지 許容하고 個人經營의 음식점 개업도 政府가 支援하고 있다. 심지어 75萬 以上の 노동자들이 高賃金을 찾아 西方側에 진출하고 있어 기술인력의 流出을 염려할 정도이니 그 開放性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공산권의 변화와 관련해서 特記할 만한 사례는 불가리아의 觀光政策이다. 불가리아는 「小소련」으로 불리울 정도로 親소의 傾向이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으나 기적적으로 觀光自由化에 成功을 하고 있다. 1953年 스탈린死亡 後부터 國營旅行社가 중심이 되어 黑海岸 開發計劃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의 情勢下에서는 극히 대담한 조치였다. 오늘날 속칭 「붉은 리비에라」라고 불리우는 여름의 黑海 休養地에는 西方觀光客이 쇄도하여 自由化가 가장 뒤진 불가리아라고는 상상도 못할 珍風景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헝가리 역시 1961年의 新路線 宣言以後 국민의 海外旅行이 자유롭게 허용되어 1978년에는 헝가리인의 海外旅行者數가 35萬名에 달했으며 이 나라를 訪問한 西方人の 數도 120萬名에 이르렀다고 한다. 더우기 1956年 헝가리 동란시에 西方側으로 도피했던 20萬 難民中 自進歸國者 7萬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外國에 영주하고 있는데, 이들에게까지도 一時 歸國하여 近親者를 相逢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離散家族 問題가 해결된 셈이다.

東歐에서 가장 폐쇄적이며 後進的인 알바니아까지도 1966年부터 서방측에 門戶를 開放하여 觀光客 誘致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들도 어려운 經濟事情을 克服하기 위해서는 孤立政策으로부터의 轉換이 불가피했을 것이며 技術과 資本이 貧弱한 그들로서는 天然資源이라도 活用하여 外資를 얻고자 하는것이 당연할 것이다.

中共은 鄧小平 登場 이후 의욕적인 4大現代化를 추진하기 위해 門戶開放을 서두르고 있다. 예를 들면 대만과의 관계로 外國人에게는 일체 開放하지 않던 福建省까지도 觀光名所로 改造하는가 하면, 北京 13陵 근처에는 골프장을 만들고 主要都市에는 觀光호텔을 건축하는 등 開放을 위한 準備가 한창이다. 그리고 西歐를 비롯하여 美國, 日本, 캐나다에 많은 유학생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中共은 毛澤東 死亡과 이른바 4人幫打倒 以後 급격하게 추진된 近代化過程에서 적지 않은 모순점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前主席 華國鋒도 언급했듯이 野心的인 近代化 計劃을 무리하게 推進하여 産業間의 不均衡을 초래한 것도 문제점이지만, 近代化의 早期達成을 위해 鄧小平이 주장한 實用主義 路線과 開放政策은 드디어 「民主主義의 自由保障」을 요구하면서 데모와 파업을 일삼는 急進派를 등장시켰고, 이는 급기야 마르크스主義와 毛澤東思想을 正面으로 否定하는 사태까지 유발시켜, 급격한 「民主化」要求에 制動이 걸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狀況은 左右의 思想鬭爭段階에서 벗어나 「社會主義的 民主主義」를 發展시켜 安定 團結을 도모하고 近代化를 밀고 나간다는 中共黨 第11期 中央委員會 第3回全體會議(78.12.18 ~ 12.22)의 決議 이후의 民主化 推進過程에서 나타났는데, 中共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課題로 보인다. 이러한 경험적 事例은 일반적으로 閉鎖性을 長期間 유지해 온 共產社會가 開放化와 近代化를 추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中共의 이같은 開放化過程에서 나타나는 問題點으로 보아 극단적인 폐쇄성을 特性으로 하는 북한공산집단이 現代化를 주장하면서도 現體制를 유지하기 위해서 開放化를 두려워하는 理由를 알만도 하다.

그러나 中共은 全國人民代表大會 第5期 第2次會議(79.6.18~7.1)의 諸 決定에서 지난 30年間の 革命的 소용돌이와 혼란의 無秩序한 時代를 清算하고 비록 制限된 條件下에서 일지라도 적어도 理論的으로는 實用主義路 線에 따라 民主的인 法體制의 整備와 一部 市場經濟原理를 도입하는 등 近代化와 開放化를 指向하는 의욕을 보여주는 한편, 1979年 8月에는 40萬 의 勞動人力을 이탈리아 등에 수출하기로 계약하는 등 많은 人力輸出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다른 공산국가들의 일반적 傾向과는 달리 북한은 時代潮流에 逆行하여 閉鎖社會를 固守하고 있다. 그들은 外國에서의 長期 留學은 물론 技術訓練도 核心階層에 해당하는 高位幹部의 子弟에게만 허용하고 있으며, 非共產圈國家에 유학을 보내는 경우에는 先進文物의 影響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는 國家를 피하고 북한보다도 못사는 後進國家에 보내고 있다. 또한 外國技術者의 招請까지도 두려워하는 정도이니 一般住民들이 外國旅行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며, 특별히 초청된 外國人과 外交官까지도 一般住民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북한내에서의 여행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經濟的 困境과 過重한 外債에 시달리면서도 그들은 金剛山 등 북한의 아름다운 觀光資源을 外國人에게 自由롭게 開放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을 出身成分과 黨性에 따라 분류하여 차별대우를 하기 때문에 階層間 移動이나 職場移動도 할 수 없다. 이로 말미암아 身分에 따른 差別은 中世의 封建社會를 방불케 한다.<sup>21)</sup>

註 21) N Nena Vreeland et al. Area Handbook for North Korea (DA Pam, 550-81), FAS of American University, 1976, pp. 67-71.

그러면 그들이 北韓社會를 이상과 같이 밀폐화하는 까닭이 무엇인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그것은 첫째, 北韓共產集團으로서는 날조된 革命傳統과 이에 기초하여 구축된 허구적인 金日成 神格化 體制와 世襲化 策動을 그대로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外來思潮와 文物의 浸透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經濟的으로는 落後되고 生活水準이 낮은 現實에서 北韓住民들을 기만하여 온 이른바 人民의 「地上樂園」을 對外的으로 比較한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될 것이다. 세째, 外來思潮는 住民들을 機械的 人間으로 만드는데 妨害가 될 뿐만 아니라 모순에 가득찬 北韓공산체제의 存立을 위협하는 비판의 準據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도 經濟의 落後性을 탈피하고 歷史의 進展에서 나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開放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最近에 開放化의 조짐이 部分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들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심각한 진통을 겪어야 할 것이다.

## 다. 體制의 軍事化

北韓共產集團은 모든 分野에서 軍事目的을 最優先으로 하며 全體制와 全地域을 軍事化한 極端的인 軍國主義的 集團이다.

北韓憲法 第 14 條에는 「全人民의 全國家的 防衛體制에 의거하여 自衛的 軍事路線을 貫徹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共產化 初期부터 北韓을 「民主革命基地」로 強化하겠다고 다짐한 北韓共產集團은 1962年 12月 14日 黨中央委員會(4期5次會議)에서 이른바 4大軍事路線(全民의 武裝化, 全國土의 要塞化, 全軍의 幹部化, 全軍의 現代化)에 의한 軍事力 強化를 결정

하였으며, 뒤이어 1964年 2月 27日 黨中央委員會(4期8次會議)에서는 赤化妄想을 撲滅하기 위한 「3大革命力量強化」의 일환으로 북한 全域을 對南赤化를 위한 「革命基地」로 強化할 것을 宣言하였다.<sup>22)</sup> 北韓共產集團이 이와 같이 軍事路線을 貫철하기 위하여 戰爭危機感을 造成하여 住民들에게 對南敵愾心을 적극 고취하는 한편 住民生活을 극도로 희생시켜 가면서 戰爭準備에 광분하여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에서는 「全民의 武裝化」方針에 따라 유치원에게까지 사격장을 마련하여 어린이들에게 총을 다루는 訓練을 실시하고 있다. 더우기 軍高位幹部들이 黨政治局委員 또는 비서를 겸직하고 있고 黨政治局委員 中에는 軍幹部가 약 3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最高人民會議 代議員으로도 선출되고 있다. 또한 모든 작업이나 활동도 抗日遊擊隊式이니 또는 速度戰, 突擊戰, 電擊戰, ○○日戰鬥, ○○高地占領 등의 전투적 용어를 갖다 붙여 軍隊式으로 휘몰아치고 있다. 學校教育에서는 軍事訓練을, 體育에서는 國防體育를 적극 強化하고 있는데 이는 軍事動員體制인 北韓社會가 兵營化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지역에 建設되는 施設과 生産되는 物資는 軍事目的을 위한 것이 많다. 하나의 예로서 평양의 地下鐵道 住民들의 交通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建設되었다기보다는 그 구조로 보아 「全國土의 要塞化」를 위한 施設로 評價된다.

그뿐 아니라 북한은 非戰時에 세계에서 가장 과중한 比率의 軍事的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북한은 우리가 經濟建設에 열중하고 있었던 것과는 對照的으로, 1960年

註 22) 김일성,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번간 발행, 東京, 구월서방, 1975), pp. 262-283 참조.

代부터 每年 總歲出豫算의 19~33% 정도를 軍事費로 支出하는 전시경제 체를 지속하면서 軍事建設을 강행하여 韓半島의 긴장을 가중시켜 왔다.

1972년부터는 南北韓間의 관계변화에 대응하여 名目上 軍事費를 예산의 17% 以下로 줄인 것처럼 하여 다른 歲出項目에 配分하여 위장평화 공세를 전개하여 왔다.

이러한 支出은 北韓經濟構造의 性格으로 보아서 GNP에 대한 軍事費 負擔率이 1981년부터 24%를 상회하는 것으로 推計되고 있다. 거기에서 人口에 대한 兵力比率도 世界的으로 最高水準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같은 極端的 軍國主義體制인 北韓의 動向을 우리는 銳意 注視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 8. 北韓社會의 變化展望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가 統一을 위해 상대하고 설득해야 하는 북한공산집단이 같은 공산권에서도 가장 강압적인 방법으로, 反民族的이며 異端的인 體制를 形成하여 유지해 왔고 지금도 이를 固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북한사회가 장차 어떠한 方向으로 가게 될 것인가를 간략히 展望해 보기로 한다.

현재의 추세로 보아 우리의 國力伸長과 自由民主體制의 健全한 發展이 점차적으로 북한을 압도하게 될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북한공산집단은 體制維持의 名分인 對南赤化革命이 實現될 수 없는 妄想이라는 것을 점차적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더우기 그들은 북한 社會를 종전처럼 극단적

으로 閉鎖해서 유지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니, 住民들에게 一方的으로 宣傳하여 온 북한 즉 「社會主義樂園」이라는 虛像은, 急速度로 先進化되어 가는 우리 韓國의 「빛나는 實像」앞에 빛을 잃게 될 것이라는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공산집단이 「온 社會를 主體思想으로 一色化하자」고 떠들면서 金日成·金正日 父子에게 代를 이어 忠誠하도록 강요하고 있지만 「主體思想」으로 住民들을 먹여 살리고 生活水準을 向上시켜 줄 수가 없다는 것은 自明하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때 技術革命을 강조하더니 그 副作用을 염려하여서인지 뒤이어 思想·技術·文化의 「3大革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으며, 1980年 10月 勞動黨 第6次大會에서는 이른바 「人民經濟의 主體化·現代化·科學化」와 「온 社會의 인텔리化」問題를 제기했다.

「思想革命」이나 「主體化」는 모두가 金日成이 내놓은 이데올로기의 側面을 강조한 것이지만 「技術革命」과 「現代化」, 「科學化」등은 결국 工業化·先進化에 의한 產業社會를 指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意味한다. 「인텔리化」도 金日成이 원하는 이른바 「主體型」의 새로운 共產主義者로 머물러 있지는 않고 產業社會의 인텔리로 점차 變質되어 갈 것이다.

물론 극도로 硬直化된 북한의 理念體系로 볼 때, 短期的으로는 새로운 變化의 可能性이 희박하며 오히려 現體制 維持를 위해 閉鎖政策을 強化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長期的으로 보면 북한이 선택할 政策方向은 軍備增強 위주의 產業構造에서 住民의 生活水準 向上을 위한 經濟構造로의 轉換, 즉 先進化된 產業社會를 指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產業化 過程에서는 그에 따르는 專門的인 分業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 社會階層이 多元化되고, 大衆의 知的 水準의 向上에 따른 慾求도 上昇

하게 되어 階層間的 利害도 多元化되는 것이 一般의 現象이다. 북한도 産業化過程에서 必須的인 테크노크라트階層의 進出이 近年에 와서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技術革新을 위한 보다 水準 높은 教育의 普及과 資本 및 技術導入을 위한 社會開放과 情報交流은 勞動階層의 「인텔리화」를 促進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르는 社會變動 추세는 北韓體制로 하여금 初期에는 一時的으로 社會統制를 強化케 할 것이지만 內外的 狀況適應을 위한 社會開放과 教條的인 이데올로기의 修正을 불가피하게 할 가능성도 전망할 수 있다.<sup>23)</sup>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우선 북한공산집단이 하루 속히 무모한 「南朝鮮革命」路線을 포기하고 북한 住民들의 生活向上을 위한 經濟建設에 注力하면서 南北關係 改善을 위한 우리의 努力에 同參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註 23) 「소련의 社會實態」- 세미나결과보고서 -, 국토통일원, 1976, pp. 16 ~ 19  
 (특히 日本 東京大 辻村 明교수의 주제발표 내용 참조)  
 菊地昌典 編, ソビエト史 研究入門, 日本東京大學出版會, 1976, pp. 368~372  
 참조.

<附錄 1>

住民成分 調查事業 實施狀況

區 分	時 期	內 容
中央黨集中 指導事業	'58.12 ~ '60.12	○ 公開鬭爭과 小組鬭爭展開 ○ 不純分子 索出處斷 및 산간벽지로 강제이주
住 民 再登錄事業	'66.4 ~ '67.3	○ 公安사찰기관원 등을 行政・生産單位에 파견 成分調查, 100 萬名 勞農赤衛隊 무장을 위 한 住民成分分類 ○ 直系 3 代, 本家・妻家・外家 6 寸까지 內查
51 階 層 分類事業	'67 ~ '70.9	○ 住民再登錄事業結果를 토대로 全住民을 51 階層으로 分類
住民了解 事業	'72.2 ~ '74	○ 南北對話와 관련 住民動態 把握 ○ 全住民을 半信半疑者, 變節者, 믿을 수 있 는 者로 分類
公 民 證 對照事業	'80.1 ~ 現在	○ 金正日指示로 公民證 대조 및 再交付 ○ 不純階層에 대한 監視 및 統制 강화
越北者 및 外 國歸化人階 層分類事業	'80.4 ~ 現在	○ 越北者 및 外國歸化人을 13 階層으로 分類 ○ 階層分類에 의한 監視資料의 體系化로 감 시 및 통제기능 강화

〈附錄 2〉

成 分 分 類 與 待 遇

區 分	對 象	(80年) 比 率	待 遇
核心階層 (支配階層)	○ 革命戰士 遺家族 ○ 被殺·戰死者 家族 ○ 黨·行政幹部 家族 ○ 軍幹部 家族	28%	○ 黨·政權機關·軍 幹部登用 ○ 他階層斗 分離,特惠措置 (進學,昇進,配給,居住, 醫療)
動搖階層 (基本階層)	○ 一般勞動者·農民 家族 ○ 一般事務員 家族 ※ 社會主義體制의 基本群 衆	45%	○ 各種 下級幹部 技術者 等 進出 ○ 極少數 核心層으로 昇格
敵對階層 (複雜階層)	○ 地主·資本家 家族 ○ 日帝公職者, 宗教人 家族 ○ 越南·附逆者, 捕虜 家族 ○ 肅清·犯罪者 家族	27%	○ 有害·重 勞動에 從事 ○ 進學, 入學, 入黨 封鎖 彈壓 ○ 制裁, 監視, 包攝對象으 로 分類 · 制裁: 強制移住, 隔離 收容 · 監視: 指名하여 恒時 動態監視 · 包攝: 集中的 教養, 洗腦 ○ 極少數 基本層으로 再 分類(子女)

資料: 北韓概要, 國土統一院, 1980.

< 附錄 3 >

51 個 部類

( 內外通信 77年 22號 參考 )

順位	區 分	分 類 對 象	黨 의 施 策
1	勞 動 者 ( 基本出身 )	8.15 解放 前後를 막론하고 出身 및 社會成分이 勞動者였던 者 ( 貧農, 雇農, 勞動者 )	勞動黨의 核心階層으로 看做
2	雇農(머슴)	代代로 머슴살이를 하던 者	核心階層으로 看做
3	貧 農	過去 自作農으로는 生計가 困難 하여 50%는 雜役으로 生計를 維持한 農民	核心階層으로 看做
4	事 務 員	8.15 이후 黨·政權·行政·經 濟·文化·教育機關에서 勤務 하고 있는 者	核心階層으로 看做
5	8.15 以後 養成된 인 텔리	8.15 이후 北韓 또는 共產圈 國家들에서 高等教育을 받은 者	이 중 留學한 者는 監視對象이 며 기타 國內에서 教育을 履修 한 者는 核心階層으로 分類
6	革命遺家族	抗日鬪爭에서 犧牲된 者의 家族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核心階層으로 看做</li> <li>· 黨·政權機關·軍 幹部登用</li> <li>· 服務能力이 없는 對象에게 는 最高의 社會保障 惠澤 을 賦與</li> </ul>
7	愛國烈士 遺 家 族	6.25 戰爭 당시 非戰鬥員으로 犧牲된 者의 家族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核心階層으로 看做</li> <li>· 黨·政權機關·軍 幹部로 登用</li> <li>· 服務能力이 없는 對象 에게는 最高의 社會保障 惠澤을 賦與하도록 되어 있음.</li> </ul>
8	被殺者家族	6.25 당시 被殺된 者의 家族	基本階層으로 分類

順位	區 分	分 類 對 象	黨 의 政 策
9	戰死者家族	6.25 당시 戰鬥에서 死亡한 者의 家族	基本階層으로 分類
10	後方家族	北傀軍 現役 將兵의 家族	"
11	榮譽軍人	6.25 당시 負傷한 除隊 傷痍軍人	"
12	勞 動 者 (8.15 이후)	8.15 解放 이후 이른바 社會主義革命 過程에서 勞動者로 轉落된 過去 中小企業家·商工業者·接客業者·인텔리·富農	過去の 出身成分과 現在行動에 따라 監視, 監督을 強化
13	富 農	· 머슴을 1名以上 두고 農事를 하던 農民 · 農繁期에 臨時雇傭人을 두고 營農하던 農民	反抗要素가 濃厚한 階層으로 看做, 監視對象
14	民族資本家	民族資本에 의한 商工業者	反抗要素가 많은 對象으로 分類, 一般監視對象
15	地 主	· 1946年 土地改革當時 5町步以上の 土地를 沒收당한 者 · 3町步까지를 耕作했으나 別途로 精米所 또는 商工業을 營爲한 者	特殊監視對象
16	親日·親美主義者	親日·親美的인 行爲를 한 者	徹底한 監視對象
17	反動官僚輩	日帝下 行政 및 權力機關에 從事한 者	"

順位	區分	分類對象	黨의 政策
18	越南者家族 (第1部類)	富農, 地主, 民族資本家, 親日, 親美, 反動官僚輩 出身으로 6.25 動亂 당시 越南한 者의 家族	對象의 最近動向에 따라 一般 監視對象 또는 特殊監視對象으로 分類
19	越南者家族 (第2部類)	勞動者, 農民의 基本出身成分으로서 6.25 動亂을 前後하여 犯法行爲를 하고 越南한 者의 家族	一般監視對象으로 分類
20	黜黨者	黨員으로서 任務遂行上 잘못이 있어 黨員資格이 剝奪된 者	黜黨事由에 따라 一般 또는 特殊監視對象
21	撤職者	幹部로 登用되었다가 罷職당한 者	責罰의 一種으로 經歷欄에 記載
22	敵機關 服務者	6.25 動亂時 治安隊, 韓青, 警察 등에 服務하다 自首한 者	黜黨者와 같은 措置
23	逮捕, 投獄 者家族	刑罰을 받기 위해 投獄된 者의 家族	黜黨者와 같은 措置
24	間諜關係者	浸透 또는 間諜으로 逮捕된 者 또는 間諜事件에 連累되어 적발된 者	黜黨者와 같은 措置
25	反黨·反革 命宗派分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3年 南勞黨派 肅清에 관련된 者</li> <li>· 기타 反金日成派로 肅清된 者</li> </ul>	黜黨者와 같은 措置
26	處斷者家族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傀政權 樹立이후 犯法行爲 또는 反黨行爲로 因해 處斷된 者의 家族</li> </ul>	黜黨者와 같은 措置

順位	區 分	分 類 對 象	黨 의 政 策
27	出 所 者 政 治 犯	政治犯으로서 刑期가 滿了되어 出所한 者	黜黨者와 같은 措置
28	安逸·浮華 放蕩한 者	社會階層을 不問하고 安逸·浮 華放蕩한 者	有事時 反革命階層으로 轉換 가능한 對象으로 規定, 一般監視對象으로 分類
29	接待婦 및 迷信崇拜者	무당·점장이·창녀·기생 등의 出身者	"
30	經濟事 犯	절도, 강도, 橫領 등으로 服役 後 出所한 者, 기타 虞犯者	"
31	民主黨 員	過去 民主黨員으로 活動했거 나 그 家族	黨員時節의 職責에 따라 一般· 特殊監視對象
32	天 道 教 靑 友 黨 員	過去 天道教 靑友黨員이었던 者	"
33	中共歸還民	57年 東北地方에서 歸還한 者	黨員으로 歸還한 者를 除外 한 나머지 對象을 監視對象으 로 分類
34	日本歸還民	北送된 在日僑胞	朝總聯系極烈分子는 黨에 入 黨시키고 나머지는 監視 對象 으로 分類
35	入 北 者	8.15 이후 越北한 者	8.15 이전 入北者 除外코 나머 지는 徹底한 監視對象으로 分類
36	8.15以前 養成된인텔리	日帝下 高等教育을 받은 者	一部만을 監視對象으로 分類
37	基 督 教 人	從前 基督教 信奉者	一般 또는 特殊監視對象으로 分類
38	佛 教 信 者	從前 佛教徒	"

順位	區 分	分 類 對 象	黨 의 施 策
39	天主教信者	從前 天主教徒	一般 또는 特殊監視對象으로 分類
40	儒學者 및 地方有志	過去 儒學者 및 地方有志로 待遇받던 者	一般監視對象으로 分類
41	中 農	自己所有農地로 겨우 生計를 維持하던 農民	動搖階層으로 看做하고 包攝教養에 注力
42	小 商 人	一定한 商業施設이 없이 場所를 移動하면서 營業을 하여 生計를 維持한 者	一部 부르조아思想이 內包되어 있는 對象으로 간주, 包攝教養에 注力
43	中 商 人	一定한 居處와 商業施設을 所有하고 獨自的으로 營業하여 生計를 維持한 者	動搖階層으로 看做, 說得, 教養對象으로 包含
44	手 工 業 人	小道具와 自體努力으로 生計를 維持한 者	包攝 教養에 注力
45	小 工 場 主	小工場을 所有하고 있던 者	一般監視對象으로 分類
46	下 層 接客業者	小規模 서비스業으로 生計를 維持한 者	包攝教養에 注力
47	中 產 層 接客業者	自體建物과 施設을 갖고 약간의 雇傭人을 두고 生計를 維持한 者	動搖階層으로서 包攝教養이 可能的한 對象으로 看做
48	越南者家族 (第3部類)	勞動者·農民의 基本出身으로서 犯法行爲가 없이 越南한 者의 家族	包攝教養에 注力
49	無 所 屬	어느 黨에도 加入하지 않은 者	包攝教養對象으로 分類
50	勞 動 黨 員	黨 員	基本核心階層으로 看做하고 幹部 (各部門)로 登用
51	資 本 家	1946年 産業國有化 당시 個人 財産을 完全 沒收당한 者	徹底한 監視對象으로 分類

# 目 次

1. 序 論 .....	179
2. 共產主義에 있어서의 教育 .....	180
가. 共產主義의 教育觀 .....	180
나. 類型으로 본 政治教化 .....	181
3. 北韓의 教育理念과 目標 .....	183
가. 教育理念과 目標 .....	183
나. 教育理念의 來歷 .....	186
4. 「社會主義教育」의 內容과 方法 .....	188
가. 「社會主義教育」의 內容 .....	188
나. 「社會主義教育」의 方法 .....	191
5. 北韓의 教育政策 및 制度 .....	192
가. 教育政策 및 制度上의 一般的 特徵 .....	192
나. 教育行政體系 및 學校教育體系 .....	199
다. 金日成偶像化와 教科書內容 .....	204
라. 大學進學과 卒業後의 職場配置 .....	206
6. 結 論 .....	207
가. 「社會主義 教育學」의 非學問的 性格 .....	207
나. 北韓의 政治思想教育의 딜레마 .....	208
다. 우리의 對處 .....	209



## 1. 序 論

그리스의 哲人 「플라톤」(B.C. 427~B.C. 347)은 「어떤 國家를 願하면 그에 알맞는 教育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國家와 教育과의 密接한 相關關係를 說破한 名言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 社會, 한 나라의 教育實態를 보고 그 社會 그 國家의 참모습을 알 수 있으며 그 國家의 將來까지를 豫測할 수 있다는 말도 된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北韓共產集團과 北韓住民이 갖고 있는 價値觀. 思考方式과 行動樣式 그리고 그릇된 對南韓觀도 그들 教育의 所産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北韓의 實態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그들의 教育을 重要視해야 할 理由를 發見하게 되는 것이다.

北韓의 教育을 概觀하면 그들의 教育은 「마르크스」(1818~1883)의 階級史觀, 「레닌」(1870~1924)의 革命의 手段으로서의 教育觀, 그리고 「스탈린」(1879~1953)의 全體主義的 政治教化(Politization)에 그 理念的 바탕을 두고 소련의 教育政策과 制度를 모방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革命을 遂行하기 위한 政治道具로서의 反民族的, 反民主的, 非人間的인 性格을 明白히 띠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1848年의 「共產黨宣言」以來 지난 130餘年 동안 그들 나름대로의 理論的, 實踐的 體系를 形成하고 北韓에서만도 38年間 北韓住民을 支配한 實體로 되어있음에는 틀림 없다.

이에 北韓教育의 理念的, 制度的 바탕인 共產主義教育觀과 政治教化類型을 概觀하고 그들의 教育理念과 目標, 教育內容과 方法, 教育政策과 制度를 살펴 본 다음 그 實相과 虛像을 糾明·批判하고자 한다.

## 2. 共產主義에 있어서의 教育

### 가. 共產主義의 教育觀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 教育을 階級鬭爭의 手段 또는 過程으로 보고 教育者를 職業的 革命家, 階級意志의 代行者 또는 政治的 宣傳煽動員으로 보며 學校는 共產主義의 先導機關으로 定義하고 있다. 이것은 教育을 政治手段 또는 政治道具로서 惡用하려는 共產主義者들의 教育觀에서 나온 것이다.

원래 教育이란 그 語源에서 보는 바와 같이 各個人이 타고난 素質을 啓發하여 向上, 發展시키는 것이다. 英語의 Education은 라틴語의 Educare에 語源을 두고 있는 바 이는 「끄집어 낸다」는 뜻이다. 곧 素質을 啓發한다는 意味이다.

한편 獨語의 Erziehung은 「끌어올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各個人의 潛在能力을 向上, 發展시킨다는 意味를 含蓄하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韓共產主義者들은 共產主義者들의 教育觀에다 革命性을 더욱 強調하고 있다. 그 具體的인 例를 보면 教育은 思想文化教養의 武器이며 教員은 후대들을 革命의 계승자, 共產主義者로 키우는 職業的 革命家, 한편 教育機關은 思想革命의 基本手段, 또는 主要한 武器로 規定하고 있다.

이처럼 教育機關을 思想革命을 遂行하는 基本手段 또는 主要한 武器임을 公言하고 있다는 것은 教育이 政治의 手段, 道具로 完全히 轉落하였다는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이것은 各個人이 타고난 素質, 個性, 創意力, 潛在能力을 開發하여 健全한 民主市民으로 育成하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는 우리의 民主教育과는 正面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 南北韓 教育의 本質比較

區 分	韓 國	北 韓
教 育 觀	人 本 主 義 (素質, 個性, 創意力)	全 體 主 義 (定 型 鑄 造)
志 向	民 族 主 義	革 命 化

이와 같은 教育觀의 本質的 差異로 말미암아 南北韓의 教育理念과 目標, 教育政策과 制度에 있어서도 현격한 差異를 나타내게 마련이다. 特히 分斷된 祖國을 民族史的 傳統性에 입각해서 平和統一을 志向해야하는 오늘의 時點에서 볼 때 우리의 民族史觀과는 正面으로 배치되는 北韓의 「共產主義的 새 人間」을 만들어내기 위한 人間革命化의 教育은 民族反逆行爲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나. 類型으로 본 政治教化

前述한 바와 같이 國家와 教育은 어느 政治社會體制에 있어서나 密接한 關聯을 맺고 있다. 國家는 그가 志向하는 理念과 目標에 모든 成員으로 하여금 歸屬, 參與, 協調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教育에 期待하며 또 그렇게 作用하려고 한다. 그러나 원래 教育은 그 나라의 文化體制에 從屬되는 部分概念이며 教育 그 自體도 그 나라 社會의 文化的 所産이다. 그렇기 때문에 自由民主社會에서의 教育은 政治的 中立性이 保障되고 文化體制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教育에 影響을 주며 統制·調整한다. 따라서 國家教育 못지 않게 家庭教育, 社會教育, 宗教教育 등의 社會·文化的 教育 機能이 重視되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이것이 本然의 一般教育(General

Education)이다.

한편 한 나라가 그의 政治理念을 구현함에 있어서 教育에 作用하는 경우 通常 法律의 制定과 같은 社會總意의 集約過程을 거쳐 公式的, 意圖的으로 教育에 干與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既存 文化體制를 거치는 外的, 間接的 統制機能을 갖는데 不過하다. 이는 自由民主國家에 있어서의 廣義의 政治教育(Political Education)의 模型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共產主義 또는 全體主義國家에서는 既存 文化體制나 秩序, 價値와 相容될 수 없는 異端的인 政治思想, 政治體制를 強要하기 위하여 文化體制가 갖는 本然의 教育에 대한 內的, 無意圖的인 影響과 統制機能을 차단, 배제하고 代身 政治體制가 教育을 完全히 掌握하여 統制한다. 왜냐하면 既存의 價値觀, 慣習, 社會關係, 文化的 志向 등 從來의 傳統文化體制가 異質的인 政治體制의 定着에 妨害가 되고 나아가 이에 끈질기게 抵抗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共產主義, 全體主義의 教育類型을 政治教化(Politization)라고 한다.

레닌은 「政治에서 分離된 教育은 無用하다」고 하였고 김일성은 「어떤 과학이나 다 혁명에 복종해야지…………… 혁명에 이바지하지 않는 지식은 소용이 없다」라고 하였다.

오늘날 北韓을 包含한 모든 共產主義體制에서 早期教育, 義務教育, 集團主義教育을 擴大·強化하고 있는 것은 眞正한 教育的 見地에서가 아니라 家庭, 社會가 지니고 있는 美風良俗 등 傳統文化體制에서 被教育者를 떼어내어 異端的 政治體制內에 收容 統制하려는 反教育的, 非人道的 政治教化의 一環策이다.

그러나 이러한 人爲的이며 反教育的인 政治教化라 하더라도 이것이 長期間 繼續되는 경우 이에서 養成된 人材가 社會의 各分野에 浸透되어 쌓이

며 순환되기 때문에 過去의 政治, 文化體制와의 隔差와 異質性이 緩和되고 이른바 體制內的 同質性이 造成되어 마침내는 政治教化라는 無理한 教育手段을 쓰지않아도 되는 狀態가 온다.

이처럼 北韓에서 體制內的 同質化가 形成되면 될수록 民族的 異質化는 深化되기 마련이며 오늘의 南北韓間의 各分野에 걸쳐 造成되어 있는 異質化實態는 다름 아닌 北韓에서 38年間 實施된 政治教化의 結果이다.

그러나 多幸스러운 것은 北韓에서 金日成集團이 政治教化에 主力하여 왔음에도 不拘하고 그들이 意圖하고 있는 바대로 그것이 順調롭게 進行되지 못하고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 3. 北韓의 教育理念과 目標

#### 가. 教育理念과 目標

北韓의 教育理念과 目標는 人間을 ①革命化, ②勞動階級化, ③共產主義化하여 이른바 「共產主義的 새 人間」(共產主義的 革命人材)을 주조해내는데 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共產主義的 새 人間」이라 함은 이른바「共和國北半部」에서 社會主義建設과 南朝鮮革命에 必要한 人間을 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金日成의 命令과 指示에 無條件, 絶對적으로 服從하는 人材를 뜻하는 것이다. 金日成은 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 全朝鮮에 社會主義, 共產主義를 建設하기 위하여 鬪爭하는 것 만큼 教育學도 이에 服從하여야 한다.」(「社會主義教育學에 대하여」, 1975. p. 313)

北韓의 이른바 「社會主義憲法」에 의하면 「國家는 社會主義教育學의 原理를 具現하여 後代들로 하여금 社會와 人民을 위하여 鬭爭하는 堅決한 革命家로, 知·德·體를 갖춘 共產主義的 새 人間으로 키운다」(第39條)로 되어 있다.

여기에 나오는 「社會主義教育學의 原理」라는 말은 1968.3.14 北韓의 「教育部門일군들」 앞에서 한 金日成의 演說에서 由來되었다. 同演說에서 그는 北韓社會에 共產主義의 敵對思想인 「낯은 思想」, 「個人主義와 利己主義」, 「부르조아와 資本主義思想」이 만연되어 있다고 규탄하고 이러한 敵對思想이 나타나게 된것은 「教育事業에서 부르조아적 教育方法이 適用되어 왔기 때문이다. 즉 …… 教育機關들에서 共產主義 것도 아니고 資本主義 것도 아닌 범벅教育을 하여왔기 때문이다」라고 指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教育事業을 改善하기 위해서는 教育學부터 바로 잡아야한다고 하며 이른 바 「社會主義教育學의 原理」라는 것을 提示하였는 바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을 社會와 人民을 위하여 적극 服務하도록 하며 革命化, 勞動階級化, 共產主義化 하는 것이 곧 ……社會主義社會에서의 教育學의 原理이며 基本이다.」

그리하여 이 「社會主義教育學의 原理」는 그 後 北韓에서 教育을 통한 思想革命의 基本指針으로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어 1971.12.27에 開催된 「全國教員大會」에서 金日成은 「社會主義 教育學에 대해서는 아직 누구도 完成된 理論을 내놓은 것이 없다. 또한 우리가 본따올만한 社會主義教育學의 本보기를 만들어놓은 나라도 없다」고 指摘하면서 社會主義教育學을 獨創적으로 完成해야할 것이라고 強調하였다.

이러한 過程을 거쳐 1977.9.5 上記 「社會主義教育學의 原理」를 具現하기 위한 教育內容, 教育方法, 教育制度 등 北韓教育의 基本方向을 規定한 教育綱領 「社會主義教育에 관한 提제」라는 이름으로 公表되었다. 同提

제는 5 個章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上記의 北韓의 教育理念과 目標를 具現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의 金日成의 教育에 관한 敎示를 一定한 틀에 맞추어 옮겨다 놓은 것이다. 第1章의 「社會主義教育學의 基本原理」에서는 소위 「共產主義的 革命人材 養成을 目的으로 사람들의 革命化, 勞動階級化, 共產主義化를 그들의 教育理念으로 設定하고, 第2章의 「社會主義教育의 內容」에서는 ①革命的 世界觀이 서고 金日成의 主體思想으로 武裝시키기 위한 政治思想教育의 強化 ②專門家育成을 위한 科學技術教育 ③國防 및 勞動과 生産을 뒷받침 할 體育教育을 規定하여, 이른바 知·德·體教育이라 일컫고 있다. 그리고 第3章의 「社會主義教育의 方法」에서는 ①理論教育和 實踐教育, 教育和 生産勞動의 結合, ②組織生活과 社會政治活動의 強化와 ③學習, 勞動, 實習, 組織生活 등을 통한 人間改造方法을, 第4章 「社會主義教育制度」에서는 義務教育, 成人教育, 就學前兒童教育 등을, 第5章 「教育機關의 任務와 役割」에서는 ①學校의 使命과 任務 ②敎員의 位置와 役割 ③教育事業에 대한 党的 指導와 統制를 規定하고 있다.

또 北韓共產集團은 上記 「社會主義教育에 관한 提제」에서 이른바 「社會主義教育學의 4大原則으로서 ①党性, 勞動階級性的의 具現原則 ②主體確立의 原則 ③教育和 革命實踐의 結合原則 ④教育事業에 대한 責任과 組織進行原則을 提示하고 있다.

그리고 上記 「社會主義教育에 관한 提제」를 「金日成의 主體思想을 具現한 主體의 教育綱領이며 共產主義的 革命人材教育에 참다운 길을 明示한 教育綱領」이라고 추켜세우고 同提제公布日을 「教育節」로 制定하고 每年 이날에 記念行事를 開催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國民教育憲章과 上記 北韓의 「社會主義教育에 관한 提제」를 比較해 보면 北韓의 그것이 얼마나 反教育的인 個性抹殺의 教育綱

領인가가 明白해 진다.

우리의 教育理念을 成文化한 國民教育憲章은 教育의 理念과 目的만을 言及하고 教育의 方法論에 關해서는 說明이 없다. 이것은 教師 또는 學校別로 보다 나은 教育方法을 研究. 摸索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反面 北韓의 「社會主義教育에 關한 提제」는 理念과 目標, 教育理論 및 教育內容과 方法 등을 具體的으로 規定하여 教育의 모든 것을 劃一化시켜놓고 있다.

## 나. 教育理念의 來歷

北韓의 教育理念은 원래 마르크스以來의 共產主義 教育觀에 바탕을 두고 특히 「레닌」과 「스타린」에 의해서 形成된 「소비에트 教育學」의 理念體系를 直導入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教育理念을 「知·德·體를 갖춘 全面的으로 發達한 人格의 形成」에 두었는데 共產革命을 必然의 論理로서 把握한 그로서는 教育의 重要性을 強調할 必要가 없었으며 다만 當時 西歐에서 널리 알려졌던 教育學者 페스탈로찌(1746~1827)의 全人教育論을 援用하였을 뿐이다. 페스탈로찌는 「教育은 人間의 生來의 根本力인 精神力(Head), 道德力(Heart)과 身體力(Hand)의 3力을 調和있게 發展시키는 것」이라고 하여 知·德·體의 全人教育의 重要性을 主唱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를 實踐하였다.

이와 같은 마르크스의 教育理念은 제1인터내셔널(1866)의 決議에도 反映되었는 바 그중의 「教育의 3大카테고리」에는 ①知的 教育 ②全面的 技術教育과 ③體育과 軍事訓練을 통한 身體發達을 規定하고 있다. 여기에 有給 生産勞動이 結付되는 것을 所望스러운 教育形態로 보았을 뿐이다.

그러나 共產革命을 人爲的인 造作的 論理로 본 레닌에 있어서는 共產主義教育의 目標을 「私有財産의 心理와 民族主義的, 宗教的, 기타 낡은 先入見으로 부터 解放된 先進的 人間의 養成」에 두었으며 1919年3月 第8次 共產黨大會에서 採擇한 共產黨綱領에서도 學校의 任務를 「勤勞大衆속의 反프롤레타리아·非프롤레타리아層에 대한 理念的, 組織的, 教育的 影響力의 先導者로서 共產主義 社會를 建設할 수 있는 새 世代를 養成하는 일」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들 마르크스·레닌의 教育觀과 教育理念은 스탈린의 執權 28年間(1926 ~ 1953)에 ①政治面에서 全體主義的 統制 ②經濟面에서의 全體主義的 動員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③教育面에서의 全體主義的 政治敎化的 「소비에트教育學」으로 體系化되었으며, 이 소비에트教育學을 8.15 解放以後 그대로 北韓에서 直導入하여 教育에 適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北韓에서의 教育理論은 몇 차례의 迂餘曲折끝에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 推移를 보면 다음과 같다.

第1期는 8.15 解放以後부터 1950年代까지로서, 스탈린에 의해 體系化 된 소비에트教育學 理論을 直受容한 時期이다. 소비에트教育學은 마르크스·레닌의 教育觀과 教育理念을 土臺로 스탈린이 落後된 蘇聯에서 共產獨裁를 定着시키기 위해 教育的 힘을 빌린 政治敎化的 理論이다.

第2期는 1960年代로서 北韓이 蘇聯으로 부터 直導入한 소비에트教育學에 대한 회의와 함께 反발을 하기 시작한 時期이다. 1953年의 스탈린의 死亡, 이어서 展開된 스탈린格下運動과 中·蘇理念紛爭의 渦中에서 困窮에 빠진 金日成은 이른바 「獨自路線」이라는 自救策을 펴지 않을 수 없었으며 스탈린의 「소비에트教育學」에서부터 離脫하여 金日成의 永久執權과 「南朝鮮革命」을 위한 獨自的인 教育理論을 만들어 낸 過渡期라고 할 수 있다.

第3期는 1970年代以來 오늘에 이르는 소위「社會主義 教育學」을 本格的으로 適用한 時期로서 그 內容과 背景은 앞에서 說明한바와 같다.

#### 4. 「社會主義教育」의 內容과 方法

北韓의 「社會主義教育에 관한 테제」는 그 教育方法과 內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社會主義教育의 內容과 方法은 사람들을 革命化, 勞動階級化, 共產主義化하기 위한 것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教育條件과 手段은 사람들의 思想을 改造하는데 服從하여야 한다.」

이 말을 풀이하면 社會主義教育의 內容과 方法은 勿論 教育制度는 人間을 改造하여 革命化, 勞動階級化, 共產主義化된 「共產主義的 새 人間」(共產主義的 革命 人材)를 만들어내는데로 志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北韓의 모든 教育은 오직 이 하나의 目標을 達成하기 위해서 存在한다고 할 수가 있다. 人間을 어떻게 改造하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教育內容이자 教育方法인 것이다.

##### 가. 「社會主義教育」의 內容

「社會主義教育」의 主要內容은 「革命的 원수를 미워하도록 교양하는 것」과 「集團主義적으로 教育教養」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 (1) 人間을 憎惡하는 教育

一種의 意識化 教育이다. 金日成의 主張에 따르면 「靑少年들을 열렬한

革命家로, 참다운 共產主義者로 키우는 것은 이들을 革命的 世界觀이 선 사람으로 키운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前提하고 「革命的 世界觀形成」의 3 段階論을 指示하고 있다.

첫째 段階：資本主義社會의 反動的 本質과 부패상을 暴露·認識시키는 段階

둘째 段階：上記 認識에 基礎하여 搾取階級과 搾取社會를 미워하는 思想을 키우는 段階

셋째 段階：搾取 階級과 社會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이를 打倒하고 社會主義,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기 위해 끝까지 鬪爭하겠다는 革命的 覺悟를 가지는 段階

여기서 우리가 注目해야 할 點은 첫째 憎惡하도록 가르치는 그 對象이 바로 우리 大韓民國 國民이라는 點이며 또 하나는 같은 民族成員間에 敵愾心を 고취하는 이러한 人間憎惡教育은 같은 共產國家인 中共이나 蘇聯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點이다.

원래 教育學의 根本目標은 人間의 無限한 潛在能力中에서도 人間性的 開發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北韓이 이렇듯 人間憎惡教育을 強調하고 있다는 것은 人類共通의 念願에 正面으로 배치되며 民主教育에 대한 挑戰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民族成員이 서로 憎惡하도록 教育을 한다는 것은 南北韓의 異質化와 敵愾心を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民族의 同質化와 民族和合에 심각한 問題點을 惹起하게 될 것임이 틀림없다.

이것이 北韓教育의 가장 큰 問題點으로 되어 있다.

## (2) 集團主義的으로 教育教養

「社會主義教育에 관한 提제」에 의하면 「集團主義는 社會主義, 共產主義

社會生活의 基礎이며 共產主義者들의 活動原則이다…… “하나를 全體를 위하여, 全體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集團主義原則에 따라 일하고 배우고 생활하며…… 黨과 革命의 利益을 위하여 몸바쳐 鬪爭하도록 教養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이러한 集團主義教育에는 蘇聯의 마카렌코(Makarenko:1888~1939)의 理論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 文筆人인 同時에 教育學者였던 그는 浮浪兒收容所 責任者로 있을 때의 體驗을 土臺로 導出한 「集團主義教育 3段階發展過程」에서 第1段階에서는 教師의 確固한 信念과 이에 바탕을 둔 斷乎한 要求가 必要하며 第2段階에서는 周邊의 積極分子를 糾合하여 核을 形成함으로써 同調勢力化하여야 하며 第3段階에서는 全成員의 自己規律化를 圖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金日成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즉 「사람들을 共產主義로 教養하는데 있어서 核心을 키우고 그에게 依據하는 것이 必要하다…… 學生들속에서도 核心을 키워야 한다. 核心隊列을 계속 擴大強化해 나가면 모두가 共產主義的으로 教養할 수 있다.」(「社會主義教育學에 대하여」, 1975, p. 82)

그런데 問題는 現在 北韓社會에서 上記와 같은 「集團主義原則」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으나 全體를 위한 하나는 있어도 하나를 위한 全體는 없다는 事實이다. J.Dewey의 教育哲學에 基礎하고 있는 西歐資本主義社會의 教育觀은 集團보다 個人을 優先視하는 價値觀이다. 다시 말하면 教育의 最大課題는 個個人이 지닌 潛在能力을 最大한 開發하여 民主市民으로서의 役割을 遂行하게 하는데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集團主義教育에서는 個人의 犧牲이 큰 問題로 되며, 따라서 北韓의 教育은 個人의 犧牲위에서만 存立할 수 있는 非人間的인 것이다.

上記 以外에 北韓은 「社會主義教育」의 內容으로서 「革命的 客觀主義」, 「共產主義勝利의 確信」, 「勞動을 사랑하는 精神」,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精神」 등을 提示하고 있다.

## 나. 「社會主義教育」의 方法

「社會主義教育」의 方法에서 가장 強調되고 있는 것은 「理論教育和 實踐教育, 教育和 生産勞動의 結合」, 「組織生活, 社會政治活動의 強化」등이다.

「理論教育和 實踐教育, 教育和 生産勞動의 結合」은 眞正한 教育目的에서 가 아니라 ①學生들을 無料로 生産勞動에 任意의 時期와 任意의 場所에 動員시키며 ②勞動을 시키지 않고서는 學生들을 「革命化」, 「勞動階級化」시킬 수 없다는 着想에서 이를 強力히 推進하고 있다.

다음 「組織生活, 社會政治活動의 強化」를 強調하는 底意는 「組織生活은 思想鍛練의 용광로이며 革命的 教養의 學校이다」라는 그들의 定義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組織生活에서는 利己主義, 個人主義가 容해되어 없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組織生活을 強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監視. 監督, 動員이 容易하고 批判과 自我批判 및 告發을 권장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이 外에 「社會主義教育」의 方法으로서 「깨우쳐주는 교수교양」, 「學校教育和 社會教育의 結合」, 「學校前 教育, 學校教育, 成人教育의 並進」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教育方法이라는 것은 앞에서 言及한 「共產主義的 새 人間」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焦點을 맞추고 있는데 不過하다.

## 5. 北韓의 教育政策 및 制度

### 가. 教育政策 및 制度上的 一般的 特徵

教育政策과 教育制度는 教育理念과 教育目標을 具現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이다. 共產主義의 教育觀을 바탕으로 한 政治教化體制로서의 北韓의 教育體制는 물론 共產圈 共通의 體制的 特徵도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北韓教育 特有的 形態로 변모된 것도 있다. 여기서는 北韓의 教育政策 및 制度上的 一般的 特徵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勞動黨에 의한 徹底한 統制

教育은 勞動黨이 完全히 掌握하여 철저한 統制를 하고 있다. 教育은 勞動黨의 政策遂行의 手段 또는 한 날 道具에 不過하다. 그들은 機會 있을 때 마다 「每時期 提示되는 黨政策을 敏感하게 反映할 수 있도록 教育의 內容과 方法을 고쳐야 한다」고 主張하여 教育의 黨에의 隸屬을 強調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黨에서 教育政策을 決定한다는 것도 形式에 不過하며 其實은 金日成의 恣意的인 敎示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敎示를 뒷받침하고 要式化한 것이 黨의 教育政策이고 最高人民會議 法令이며 中央人民委員會의 政令 및 決定 또는 政務院의 決定·指示 등 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不朽의 教育總書」라고 일컬어 자랑하고 있는 「社會主義教育에 관한 提제」는 더 말할나위도 없다.

教育政策뿐만 아니라 그 政策의 施行過程에서도 中央黨을 비롯하여 管轄地域黨과 各級學校에 設置되어 있는 學校黨委員會를 통하여 監督과 統制를

받는다. 이 경우 勞動黨의 外廓團體인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 職業總同盟, 女性同盟, 少年團 등의 各級組織에 의한 二重三重的 감시와 規制가 따르게 되는 것은 勿論이다. 심지어 黨이 學校의 教育行政과 經理分野에까지 干涉하는 일까지 非一非再하게 일어나고 있다.

## (2) 政治思想教育의 優先

學校教育에서는 勿論 一般職場教育에서도 政治思想教育을 最優先視하고 있다. 「社會主義教育에 관한 提제」에서는 政治思想教育의 重要性을 다음과 같이 強調하고 있다. 「社會主義, 共產主義를 建設하기 위하여서는……思想的 要塞과 物質的 要塞를 占領하기 위한 鬭爭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共產主義의 두 要塞를 占領하는데서 思想的 要塞를 占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즉 이것은 經濟建設을 제아무리 잘 하더라도 政治思想教育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虛事로 돌아간다는 論理인 것이다.

政治思想教育중에서도 特히 北韓에서는 金日成의 主體思想·唯一思想教育을 비롯하여 金日成偶像化를 위하여 造作된 革命傳統 教養등, 歪曲된 思想教育을 強化하여 이를 強要하고 있다. 參考로 北韓과 東歐圈 共產國家의 政治思想教育 優先順位를 比較해 보기로 한다.

다음 比較表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北韓의 政治思想教育은 金日成과 그 家系의 偶像化와 그들에 대한 忠誠을 至上課題로 삼고 있다.

이것은 教育을 政治에 隸屬시킨데서 온 當然한 歸結이지만 北韓의 教育은 黨의 統制와 指示에 따라 政治的 宣傳煽動 및 大衆操作의 役割까지 맡도록 되어 있다. 敎員과 學生을 黨의 政治宣傳煽動委員化하고 特히 學生들에게는 「黨政策宣傳隊」라는 것을 組織하여 政治社會活動을 하도록 強要하고 있다.

政治思想教育 優先順位比較(北韓과 東歐圈)

順位	北 韓	東 歐 圈
1	金日成에의 忠誠	社會主義 建設
2	主體思想 및 唯一思想	反帝國主義
3	革命傳統 教養	社會主義 道德
4	階級教養(反民族性)	社會主義的 愛國主義
5	反帝國主義	反個人主義
6	共產主義 道德	社會主義 聯邦
7	集團主義 教養	反民族主義
8	社會主義的 愛國主義	反스탈린主義

※東歐에 있어서의 政治社會化, Ivan Volgyes, 뉴욕, 1975, p.29.

教育政策의 最高管掌部署가 初期에는 勞動黨中央委員會의 「宣傳煽動部」였다는 事實이 이와 같은 事情을 잘 말해주고 있다. (現在는 「科學 및 學校教育部」)

그들의 人民保健法(80.4.2施行)에 의하면 「保健일군은 衛生知職을 보급하며, 사람들의 病을 고치는 醫師役割을 하는 것과 함께 人民들을 朝鮮勞動黨의 두리에 묶어 세우는 宣傳教養者의 役割을 하여야 한다」(第41條)고 하였으니 教育을 政治的 宣傳煽動과 密着시키는 것은 어쩌면 當然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學生勞力動員의 強化

理論教育과 實踐教育, 教育과 生産勞動을 結合함으로써 新 知識을 갖는 「共產主義的 革命人材」를 키운다는 구실밑에 學生들에게 勞力動員을 強要

하고 있다.

北韓에서는 政權樹立以來 學生勞力動員이 強制되어오자 1959年부터 「學生社會義務勞動制」가 制度化되었다. 그러나 다음 表의 規定上 義務勞動時間과는 關係없이, 實際로는 大學 및 高等專門學校의 學生은 年間 14週間以上, 高等中學校의 高等班學生은 10~12週間, 中等班과 人民學校 學生까지도 4~6週間以上 動員되고 있다. 그 위에 「80年代速度創造運動」등의 各種社會主義 競爭運動을 展開하는 過程에서 그 以上の 勞動의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北韓의 소위 「社會主義憲法」(第 29條)에는 「16歲以下の少年勞動은 禁止」하는 條項이 있음에도 人民經濟計劃遂行에서 不足되는 勞動力의 補充, 季節性和 時間性を 要하는 緊急한 課題를 解決한다는 名目으로 人民學校學生으로 부터 大學生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各種形態의 生産勞動에 動員하고 있다.

따라서 分析된 바에 따르면 學生들의 義務勞動으로 生産·建設된 것을 換價하면 이들 學生이 免除받는 義務教育費와 授業料의 3倍에 達한다고 한다. 學生勞力動員이 얼마나 重勞動인가를 알 수 있고 또 얼마나 苛酷하게 搾取當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教育에 있어서 生産·勞動·實習의 重要性을 主張한 것은 레닌과 그의 妻 크롭스카야(Kropyskaya, 1869~1939)로서 그들은 生産技術教育의 理論을 體系化하였다.

北韓에서는 「國家는 人民教育事業과 民族幹部養成事業을 다른 모든 事業에 앞세우며 一般教育和 技術教育, 教育和 生産勞動을 밀접히 結合시킨다」(憲法第 40條)고 規定하여 學生들의 勞動力 搾取의 制度的 保障裝置를 해놓고 있다.

學生社會義務勞動時間(規定上)

區 分	大 學	高等專校	高中(高)	高中(中)	人民校
工業勞動	4	4	2	2	
建設勞動	4	4	4	2	
農業勞動	2	2	2	2	2
計	10 週	10 週	8 週	6 週	2 週

(4) 早期教育和 義務教育的 外形的 擴張

北韓에서는 1976 年에 就學前兒童의 託兒所生活과 幼稚園教育을 義務化한 소위 「어린이 保育教養法」이라는 것을 制定하였다.

이에 의하면 週託兒所와 月託兒所가 設置되며 希望者에 限하여 어린이를 託兒所에 收容하여 키우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生後 30 日부터 義務的으로 託兒所에 넣도록 되어 있다.

한편 幼稚園은 2 年制로서 낮은 班 1 年과 높은 班 1 年으로 나누어지며 滿 4 歲부터 5 歲까지의 어린이들에게 學校에 갈 準備教育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높은 班 課程부터 義務教育으로 간주하여 高等中學校까지 11 年制 義務教育을 實施하고 있다.

이처럼 北韓이 就學前 兒童의 早期教育을 強化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대한 파블로프의 條件反射的인 洗腦教育의 效果提高, 家庭등 既存 傳統文化體制로부터의 隔離收容, 婦女子의 勞力動員의 極大化를 圖謀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다. 따라서 教育的 次元보다는 政治的 次元에서 內實 없는 外形的 擴張을 서둘러 왔다고 評價되며 對南 및 國際的 宣傳效果를 노린 底

意도 간과할 수 없다.

또 한편으로 共產圈의 義務教育은 無償教育이라는 側面보다는 體制離脫防止를 위한 收容의 側面에 높은 比重을 두고 있다. 北韓의 경우 1956년에 初等義務教育을 實施한다고 公表하였으나 1959年3月 「學生社會義務勞動制」를 펴고 난뒤 같은 해 4월에 各級學校學生들에 대한 授業料의 免除를 實施한 點으로 보아 義務와 無償은 同一概念이 아니며 11年制義務教育과 授業料의 免除는 學生들의 勞力動員의 代價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런데도 北韓은 11年制義務教育과 無償教育을 크게 자랑하고 있으나 이것은 個人的 生産手段이 박탈되고 私有財産을 認定치 않는 「社會主義體制」에서는 그 길밖에 없는 것으로서 이를 宣傳하는 것은 「税金이 없다」는 자랑만큼이나 虛僞的인 것이다.

#### (5) 軍事訓練에 置重하는 教育

教育用語가 軍事用語化하고 學校의 編成, 裝備도 常備軍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리하여 政治, 教育, 軍事의 一元體制가 이루어져 있다.

北韓에서는 4大軍事路線에 의하여 全域이 兵營化, 要塞化되었지만 특히 靑少年에 대한 軍事訓練을 強化하여 金日成에 대한 忠誠心, 服從心, 大韓民國國民에 대한 敵愾心 등을 鼓吹하고 戰技, 戰術을 연마하여 軍의 幹部化 近衛隊化를 圖謀하고 있다. 이를 위해 高等中學校 高等班以上の 各級學校 學生을 對象으로 하는 軍事訓練에 있어서는 正規軍 못지않은 教育訓練을 實施한다. 1~2學年은 週當 7~8時間, 3~4學年은 5~6時間의 校內 訓練以外에 每學期末에 1~2週의 野外訓練을 實施하고 卒業前 40餘日의 入營訓練이 實施되는 바 1962年부터 軍事科目合格優先主義가 採擇되어 卒

業資格의 前提가 된다.

大學의 경우 1959. 8. 1에 發足한 大學勞農赤衛隊는 1974年에 教導隊로 改編되어 全大學의 常備戰鬪兵力化가 이루어지고 卒業과 同時에 豫備軍官資格을 얻는다. 그 編成, 軍種 및 兵科에 있어서도 學校單位는 聯隊, 學部(全學年)單位는 大隊, 學年學部單位는 中隊, 學級單位는 小隊로 編成하고 그 指揮官은 各級黨委員長이 맡는다. 그리고 各 大學別 特性과 專攻에 따라 軍種과 兵科가 賦與되는 바 例를 들면 金日成大學은 步兵, 金策工業大學은 砲兵, 元山水產大學은 海軍 등으로 區分된다.

南北韓 學生軍事教育實態를 보면 다음의 「南北韓 學生軍事教育實態 比較」와 같다.

南北韓大學生軍事教育實態 比較

區 分	韓 國	北 韓
目 的	自主國防思想 涵養 體力·健全精神 鍊마	共產主義 革命精神 培養 常備戰鬪兵力化·指揮官 養成
指 揮 體 系	文敎部管掌(團長=長官) ※國防部 學生軍事教育團은 教育 만 實施	勞動黨 軍事部 指揮統制下에 教 育委員會와 人民武力部가 共同管 掌
兵 力 裝 備	學徒護國團 35 萬 個人火器	大學教導隊 17 萬 實戰用 個人 및 共用火器
教 育 時 間	校內訓練 128 時間( 2 年間 ) 現場實習 40 時間( " ) 入營訓練 40 時間( " ) 計 208 時間( " )	校內訓練 960 時間( 4 年間 ) 入營訓練 1,780 時間( " ) 計 2,740 時間( " )

區分	韓 國	北 韓
教育 內容	一般軍事學( 32 % ) 戰術學( 26 % ) 火器學( 18 % ) 評價·查閱등( 24 % )	政治學習( 40 % ) 戰術訓練( 30 % ) 共用火器( 20 % ) 特殊訓練 등( 10 % )
女學生 軍事 教育	없 음	男學生과 同一한 教導隊 編成訓 練( 但 入營集體訓練만 免除 )
兵役上 惠澤	在學中 訓練時間 相應의 現役 服務 短縮	在學中 現役服務 相應의 軍事教 育 履修 豫備軍官資格 賦與( 合格者 )
特 徵	校內教育 置重( 北의 1/13 ) 士兵水準의 一般教育	入營集體訓練 置重 初級指揮官水準의 正規軍軍事教育

끝으로 北韓教育의 그 밖의 特徵으로서 ①中央集權主義 ②命令主義 ③劃一主義 ④閉鎖性 ⑤宗教教育의 禁止 ⑥私立學校의 不在 등 여러가지를 들 수 있다.

## 나. 教育行政體系 및 學校教育體系

### (1) 教育行政 및 統制體系

北韓의 教育體制는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勞動黨의 監視와 統制下에 놓여 있다. 教育政策의 樹立과 總括的 指導·統制는 勞動黨 中央委員會의 「科學 및 學校教育部」에서 管掌하고, 政務院 傘下의 教育委員會가 政策執行과 教育行政을 統轄한다.

教育委員會 밑에 高等教育部와 普通教育部가 있는 바 前者는 一般大學을,

後者는 師範大學과 教員大學을 包含하여 그 밖의 各級學校를 分掌한다. 北韓에서 唯一한 綜合大學인 金日成大學은 政務院直屬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도 形式的인 것이며 實際에 있어서는 萬景臺革命學院과 마찬가지로 「黨의 學校」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北韓에서는 金策工業大學을 비롯한 平壤醫學大學, 金亨稷師範大學 등 몇개의 水準級 特殊大學만을 中央(教育委員會)에서 管掌하고 그 밖의 많은 大學을 地方級大學이라하여 市道單位 行政機關에서 管掌하고 있는 것도 特色中の 하나이다. 入學·卒業者 配置 등 特定問題는 市郡單位 行政機關에서도 大學에 干與한다.

소위 「일하면서 배우는」 成人教育機關으로 工場大學, 農場大學, 漁場大學 鑛山大學등이 있는데 이들 大學은 政務院傘下の 關係經濟部가 教育委員會와 協議·運營하도록 되어 있다.

北韓에서는 오늘날 186個大學이 있다고 宣傳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産業體附設 成人學校와 輕工業, 食料工業, 船舶工業 등 우리 나라 大學의 專攻學科에 該當하는 單科大學, 그리고 教員大學 등을 包含한 것이다.

다음 教育行政 및 統制體系圖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一線의 各級學校는 各級黨과 外廓團體, 各級行政機關에 의하여 四重五重으로 統制·監視되고 있다. 大學의 最高實權者는 學長이 아니라 이를 監視하는 大學黨委員長(黨責)인 副學長이며 그가 實質的인 權限을 가지고 있다.



一般學校에 있어서 幼稚園은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2年制로서 만 4歲부터 5歲까지 收容, 낮은 班. 높은 班으로 나누어지며 높은 班은 義務制이다. 人民學校는 4年制, 高等中學校는 中等班 4年과 高等班 2年の 6年制이며 一般大學(師範大學 包含)은 4~6年制이다. 人民學校 教員을 養成하는 教員大學은 3年制이고 高等專門學校는 3年制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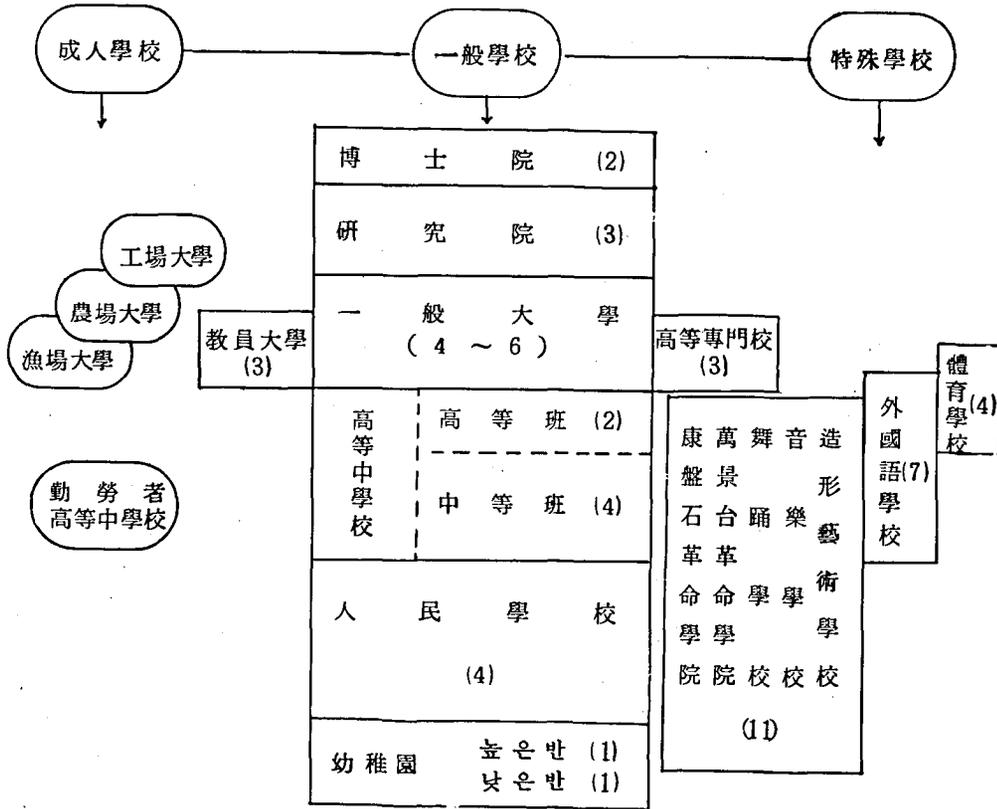
그 위에 우리 나라의 大學院 碩士課程에 該當하는 研究院이 3年制이고 우리의 博士課程과 같은 博士院이 2年制이다. 大學 卒業者에게는 教員, 醫師, 藥師 등의 該當資格이 주어지거나 人文社會系에서는 專門家(地理學專門家, 歷史學專門家 등), 理工系에서는 技師資格(建築技師, 紡績技師, 化學技師 등)이 賦與될뿐 學位制度는 없고 研究院을 마쳐야 學士學位가 授與된다.

特殊學校로는 萬景臺革命學院과 같은 特權層의 子女가 들어가는 教育機關과 무용, 音樂, 造形藝術 등의 藝體能系學校가 있는데 이들은 거의 幼稚園(높은 班) 課程부터 高等中學校 課程까지의 11年制로 되어 있다. 海外 宣傳活動을 위해 外國에 보내는 特技者를 養成하는 이들 特殊學校에의 選拔에 있어서는 出身成分, 思想性 등이 重要視된다. 그런데 이것은 長期間 一定한 틀속에서 學生들을 訓練시킬 수 있는 制度的 利點을 갖고 있다. 이밖에 7年制의 外國語學校와 4年制의 體育學校도 特殊學校에 屬한다.

成人學校로는 前述한 바의 工場大學, 農場大學, 漁場大學과 勤勞者 高等中學校가 있는데 1975年以來 高等中學校까지의 義務教育制를 자랑하는 北韓에서 아직도 勤勞者 高等中學校가 남아있다는 것은 그들의 宣傳과 現實間에 相當한 隔差가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以上을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學校教育體系圖



그 밖의 党·政權機關 및 党的 外廓團體 幹部教育機關으로는 ①마르크스·레닌主義學院 ②金日成 高級党學校 ③共產大學 ④人民經濟大學 ⑤國際關係大學 ⑥社勞靑大學 등과 ⑦各種 軍官學校가 있다..

## 다. 金日成偶像化와 教科書內容

우선 金日成과 그의 家系の 偶像化를 위해 學校名稱을 바꾼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 學校改名과 偶像化 造作事例

學 校 名	內 譯
金日成綜合大學	1946. 9. 1 命名 設立
金日成高級黨學校	1972. 4.15 中央高級黨學校改名
金日成放送大學	1972. 4.15 命名 設立
金亨稷師範大學	1975. 3.23 平壤第1師大 改名
康盤石革命學院	1975. 4.19 南浦革命學院 改名
金正淑師範大學	1981. 8.17 惠山第2師大 改名
金正淑女子高等中學校	1981. 8.17 新波女高中 改名

北韓의 教科書와 教材는 眞理를 歪曲하고 있는 反道德的, 反情緒的, 反教育的인 內容으로 되어 있는 바 生産·技術教育을 除外한다면 그 2大本流는 ①金日成 偶像化를 위한 「主體思想」과 「革命傳統」教養을 위주로하는 政治思想教育和 對南敵對思想 및 反美思想을 고취하는 內容으로 되어 있으며 이의 反教育的 性格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歷史의 歪曲과 捏造

唯物史觀, 階級史觀의 圖式에 따라 우리의 古代史와 中世史는 勿論 世界

史까지도 歪曲·變造되고 特히 金日成과 그의 家系偶像化를 위해 우리의 近代史가 온통 歪曲·捏造되어 있다.

## (2) 自然科學과 數學에 政治思想性 注入

人文科學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自然科學과 數學에서까지도 政治思想性을 注入하여 金日成의偶像化·神格化, 社會主義體制의 優越性, 韓國과 美國에 대한 敵愾心을 鼓吹시키는데 利用하고 있는 바 그 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

### 教科書 內容(例)

#### ○ 金日成偶像化·革命傳統敎養

-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원수님 은덕(人民校 4, 國語)
- 해바라기 태양을 따르듯 수령님교시에 따라 생활한다.(高中 3, 國語)

#### ○ 社會主義의 優越性 敎養

- 공화국 영웅이야기책, 1일에 15분×3일=? (人民校 4, 算數)
- 남조선 실업자수와 증가율(高中 1, 代數)

#### ○ 階級·革命意識 鼓吹

- 어린이에 대한 지주의 만행(공산주의 도덕)
- 욕심장이 지주를 인민들이 죽여버렸다.(공산주의 도덕)
- 충성·노동으로 꿀과 젖이 흐른다.(人民校 3, 國語)

#### ○ 反美思想鼓吹

- 명성 아버지 얼굴 흠집은 미국놈이……(人民校 3, 國語)
- 미국놈 탱크 50대중 인민군이 30대를 까부셨다. 앞으로 몇대를 더 까부셔야 하는가?(人民校 1, 算數)

### (3) 反教育的 煽動用語의 常用

反教育的 煽動用語가 教材에 쓰이고 많은 用語를 戰鬪的인 軍事用語로 바꾸고 있다. 「놈」, 「까부시다」, 「죽여버리다」 등은 前者의 例이고 高地 占領, 突擊隊, 決死隊, 主力軍, 大部隊, 戰鬪, 武器, 指揮部, 戰取物, 基地 등은 後者の 例이다.

또 한편에서는 이른 바 革命的인 新語가 만들어지고 어휘의 概念도 變質되어가고 있다. 「일본새」(일하는 모양), 「方式上學」(실지로 사업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 「以身作則」(실천적 모범) 등은 前者의 例이고, 「討論」, 「團結」, 「合作」, 「招待所」, 「接待婦」, 「民主」, 「民族」 등은 後者の 例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그들이 言語를 「革命과 建設의 모든 分野에서 大衆을 革命鬪爭에로 불러일으키는 組織動員의 武器이며, 社會主義文化를 南朝鮮革命發展段階에 맞추어 浸透시키는 武器」(1956. 5. 金日成 敎示)라고 定義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

## 라. 大學進學과 卒業後의 職場配置

北韓에 있어서의 大學進學은 다음과 같은 3個의 類型으로 分類된다. ① 黨·政權機關 幹部의 子弟인 高等中學校 卒業者(이들에게는 거의 卒業과 同時에 大學에 進學하는 特典이 賦與되어 있다.) ② 高等中學校 卒業後 軍에 入隊하여 2~5年間 服務한 者로 軍(黨)大學推薦委員會의 추천을 받은 者 ③ 高等中學校 卒業後 職場에 2~5年間 勤務한 者로 職場(黨)의 大學推薦委員會의 추천을 받은 者이다. 이 3個部類의 比率는 첫째 部類가 10%, 둘째 部類가 70%, 셋째 部類는 20%정도이다.

1980年度부터 당해년도 高等中學校 卒業者 全員을 對象으로 試驗을 치르는 「國家考査制」가 實施되고 있으나 이것은 그동안의 出身成分爲主의 大學推薦으로 優秀學生의 脫落과 住民의 不滿이 쌓이고 人力資源管理에도 問題點이 생겼기 때문에 形式的으로 實施되고 있을뿐 成分中心의 推薦이 決定的인 役割을 하는 點에 있어서는 從前과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國家考査」에 合格하고 党的 추천을 받은 者에 대한 選拔基準은 出身 및 社會成分 3분의 1, 政治組織生活 3분의 1, 試驗成績이 3분의 1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敵對階層」出身의 子女나 政治組織生活에 충실하지 않은 者는 大學進學을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 그리고 大學에 進學하는 者라 할지라도 志望에 의한 學科選擇은 거의 不可能하고 오직 党的 人力養成計劃에 의거 配置된다.

卒業後의 職場配置에 있어서도 個人의 希望이나 要求는 完全히 無視되고 中央級 大學의 人文系는 中央黨에서, 自然系는 政務院에서 決定하며 市道級 大學은 党的 方針에 따라 市郡人民委員會가 決定한다. 이 때 一般的으로 黨幹部의 子弟는 政權機關(統治分野)에 配置되고 平黨員의 子弟는 아무리 學業成績이 優秀해도 地方의 下級機關, 企業所, 研究機關에, 그 밖의 卒業者는 山間僻地나 協同農場에 配置된다.

## 6. 結 論

### 가. 「社會主義 教育學」의 非學問的 性格

北韓에서 獨創的으로 만들어냈다는 소위 「社會主義 教育學」과 그것에

基礎하여 教育綱領으로 내놓은 「社會主義教育에 관한 테제」는 文字 그대로 金日成 個人的 命令과 教示만으로 一貫되어 있다. 한마디로 金日成의 獨斷論이다. 즉 客觀的인 研究節次나 實驗을 통한 科學的인 檢證도 없이 金日成의 말을 絶對唯一한 最高理論으로 삼고 여타의 어떤 理論이나 論議는 存在할 수가 없다.

學問이란 끊임없는 批判과 회의의 連續속에서만 發展을 圖謀할 수 있고 그 存在意義를 찾을 수 있다는 點을 감안한다면 特定人的 發言을 絶對視하는 北韓의 「社會主義 教育學」이라는 것은 出發부터가 非教育的이며 反學問的이다.

## 나. 北韓의 政治思想教育의 딜레마

北韓의 教育이 反教育的이며 反民主的이며 個人的 犧牲을 전제로하는 非人間的인 것이기 때문에 教育을 통한 思想革命은 일대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으며 限界點에 도달해 있다.

그 딜레마의 하나는 北韓共産集團이 敵對視하고 있는 이른바 낡은 思想, 利己主義, 個人主義 그리고 부르조아 思想이라는 것이 實際에 있어서는 自然스러운 人間本性的 發露이기 때문에 어떠한 方法이나 手段을 통해서도 根絶할 수 없다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修正主義의 浸濕이 가해져 이러한 「敵對思想」의 出現을 촉진하고 있다.

딜레마의 또 하나는 北韓에서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 대한 思想革命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나타나고 있다. 이들 靑少年들에게 「착취 사회」와 「착취계급」을 증오하는 政治思想教育을 제아무리 시킨다해도 北韓에서 地主나 資本家를 한번도 보지못하고 자란 世代에게 이것이 生動하

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北韓共產集團이 지난 38年間이나 人間改造와 思想革命에 全力投球를 하여 왔음에도 所期の 目的을 達成하지 못한 것은 바로 以上の 두가지 理由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最近에 와서 北韓共產集團이 北韓內에 革命的 背信者, 變節者가 있음을 警告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機會主義者들의 策動이 계속되고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는 條件에서 思想教養事業을 寸時도 소홀히 할 수 없다.」(로동신문 社說)

「革命傳統을 올바르게 繼承發展시키지 못할 때는 革命的 背信者, 變節者들 에 의해 革命이 籠絡당하고 黨이 變質되어 피로써 爭取한 革命的 戰取物 마저 危險에 빠뜨리게 된다.」(中央放送, 1982.5.19)

「社會主義 偉業을 말아먹고 革命的 戰取物을 말살하려는 안팎의 원수들 의 策動이 날이 갈수록 더욱 교활해지고 악랄해 지고 있다.」(로동신문, 1982.1.23)

한마디로 北韓共產主義集團은 현재 숙청과 계급투쟁을 의미하는 思想革命을 도대체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하는 커다란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 다. 우리의 對處

그러나 우리를 敵對視하며 南北韓의 異質化를 더욱 심화시키는 北韓의 教育이 우리 國家安全保障과 民族和合, 더 나아가서 우리의 平和統一에 큰 위협을 주며 沮害要因으로 되고 있음을 警戒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志向하는 國力伸張과 祖國의 平和統一基盤을 다지기 위해 우리의 民主·民族教育制度를 補完·發展시키고 恒時 確固한 安保態勢를 갖추어 北韓共產集團의 赤化企圖와 挑發을 抑制하면서 北韓을 壓倒하는 國力을 培養하여 우리의 對話와 平和統一提議에 應해오지 않을 수 없도록 슬기롭게 對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祖國의 번영과 統一을 가져오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 V. 北韓의 軍事·外交

尹 炳 益

(統一研修所 教授)



# 目 次

1. 序 言 .....	215
2. 北韓의 對中·蘇關係와 軍事路線 .....	219
3. 駐韓美軍問題 .....	229
4. 「主體思想」 및 統一方案의 宣傳·煽動 .....	234
5. 經濟外交 .....	240
6. 結 言 .....	245



## 1. 序 言

우리는 通常 「戰爭」과 「平和」를 따로 떼어서 생각하여 왔다. 「戰爭」이 지나가면 「平和」가 오고, 「平和」가 지나가면 「戰爭」이 오는 것으로 「二元論」的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은 西方側 사람들이 가져 온 國際情勢觀이다. 네덜란드의 國際法學者였던 그로티우스(Grotius, Hugo:1583~1645)는 일찌기 「戰爭과 平和의 法」이란 유명한 冊을 썼는데 이 책이 바로 現代國際法の 始初가 되었던 바, 現代國際法은 그로티우스의 책이름이 명백히 말해 주듯이 國家間의 關係를 「戰時關係」와 「平時關係」로 나누어 二元論的 立場에서 規範化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西方國際政治學者중에는 國際關係現象을 「戰爭」과 「平和」라는 觀點에서 分析해 보려는 사람이 많다.

이상과 같이 「戰爭」과 「平和」의 問題를 二元論的 立場에서 보려는 思考와는 달리 “같은 連續線上的 問題”로 一元論的 立場에서 보려는 思考가 있다. 「戰爭論」(Vom Kriege)이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진 프로시아의 戰略家 크라우제비츠(Clauswitz, Karl:1780~1831)는 “戰爭은 政治의 다른 手段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겨 오늘날도 近代戰略理論의 어버이격으로 존경받고 있다. 「戰爭」을 「政治」의 連續線위에서 보았다.

그런데 크라우제비츠의 見解를 가장 잘 受容하여 共產主義의 戰略·戰術理論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다름아닌 레닌(Lenin, Nikolai:1870~1924)이다. 레닌은 크라우제비츠가 「戰爭」을 「政治」의 連續線위에서 본 立場과 똑 같이 「暴力을 政治의 手段」으로 삼아 볼셰비키革命을 성공시켰다. 레닌이래 共產主義者들은 「戰爭」과 「平和」의 問題를 西方側의 國際政治學者들과 같이 二元的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戰略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戰術的인 差異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北韓의 軍事와 外交를 한데 묶어 取扱한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날 北韓共產集團은 北韓땅에서 「社會主義革命」을 完成시키고, 이른바 「南半部」에서 「人民民主主義革命」을 完成한다는 명백한 戰略目標를 갖고 있다. 1972年의 이른바 「社會主義憲法」은 第5條에서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規定하고, 1980年10月 改正된 이른바 「朝鮮勞動黨規約」은 그 前文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상 「社會主義憲法」과 특히 「勞動黨規約」에 明示된 바와 같이 北韓 共產集團은 北半部에서의 社會主義의 完成과 「南半部」에서의 「人民民主主義革命」의 實現이라는 當面戰略目標와, 全韓半島의 이른바 主體思想化와 共產主義社會의 建設이라는 最終戰略目標를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北韓에서의 「社會主義革命力量」과 南韓에서의 「人民民主主義革命力量」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들 兩大革命力量을 支援하는 것이 「國際革命力量」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社會主義革命力量」, 「人民民主主義革命力量」 그리고 「國際革命力量」이 1964年 2月 勞動黨中央委員會 第4期 第8次 全員會議와 1965年 4月 金日成이 인도네시아를 訪問하였을 때, 알 아르함社會科學院에서 행한 演說에서 露骨的으로 밝힌바 있는 이른바 「3大革命力量」이다.

北韓共產集團은 이들 3大革命力量이 相互 有機的인 聯關關係를 맺고 있다고 보고 있다. 「國際革命力量」이 강화되어야 北韓의 「社會主義革命力量」이

강화되고,北韓의 「社會主義革命力量」이 강화되어야 「南半部」의 「人民民主主義革命力量」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國際革命力量」이 강화되면 「南半部」의 「人民民主主義革命力量」도 강화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共產集團은 「國際革命力量」을 강화하기 위한 「外交」와, 「南朝鮮社會의 人民民主主義革命力量」이 성숙되어 결정적인 時期가 조성되면 일거에 全韓半島를 共產化하기 위한 手段으로서의 「軍事」는 마치 종이의 앞뒤면과도 같이 不可分の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늘날 北韓共產黨集團은 對南軍事挑發의 誘惑을 버리지 못하면서도 全面戰을 감행할 수 있는 情勢가 성숙되지 못한 狀況속에서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에 優先順位를 두고 있다. 따라서 「南半部」를 「人民民主主義革命」으로 誘導하기 위하여 有利한 環境을 造成하고, 革命의 國際的 支援勢力을 確保하는 일은 오늘날 北韓共產集團이 추구하고 있는 「外交」의 課題이다. 따라서 北韓共產集團의 外交는 經濟的 利得追求를 主要內容으로 하는 「實利外交」이기 보다는 「人民民主主義革命」情勢의 造成과 그 主動勢力 確保를 目的으로 하는 「名分外交」의 性格이 강하며, 따라서 政治的 宣傳·煽動이 外交의 核心內容이 되고 있다. 그리고 黨·政府·人民의 세次元에서 總力戰 概念으로 外交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外交의 對象國家를 1950年代의 共產圈中心에서 1960年代의 中立圈—이른바 불력不加擔圈—으로, 그리고 1970年代부터는 自由圈으로까지 多邊化시킨 것도 「南半部의 人民民主主義革命」을 誘導하기 위한 戰略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한편, 1980年代 北韓共產集團의 外交與件은 國際情勢의 側面과 南北韓情勢의 側面에서 다같이 심각한 挑戰을 받고 있다. 國際情勢의 側面에서는 ①蘇聯의 軍事的 威脅에 직면하고 있는 美國은 世界軍事戰略의 觀點에서 韓國의 比重을 全面的으로 재인식하고 對韓安保公約을 전례없이 강화하고 있으며 ②

이른바 「脣齒關係論」에 따라 對北韓 密着政策을 추진해 온 中共은 實用主義路線에 따른 對美接近政策의 맥락에서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對韓國關係를 증진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③中共의 實用主義路線은 北韓의 體制的變化를 要求하는 壓力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北韓情勢의 側面에서는 金日成父子世襲體制構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政治的 葛藤, 經濟的 構造的 矛盾으로 인한 人民生活의 落後性 그리고 閉鎖體制의 限界性 등 날로 노출되어가는 北韓의 體制的矛盾과 民主主義의 土着化, 先進經濟에로의 發展 그리고 아시아競技大會, 올림픽開催로 인한 國威의 宣揚 등으로 南北韓사이의 體制競爭에서 大韓民國의 결정적 優位가 표면화되어 가고 있다.

이상과 같은 分析을 土臺로 北韓共產集團이 추구하여 온 軍事·外交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向方을 검토하고자 한다. 물론 軍事와 外交實態를 따로 따로 설명하는 方法도 있고, 外交의 경우도 共產圈, 中立圈, 自由圈 그리고 UN外交 등 圈域別로 각각 설명하는 方法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共產主義戰略의 특성이기도 한 軍事와 外交의 有機的 聯關性을 고려하고, 한편 北韓共產集團의 戰略·戰術的 目標를 명백히 把握하기 위하여 北韓의 軍事와 外交를 ①北韓의 對中·蘇關係와 軍事路線, ②駐韓美軍問題, ③「主體思想」및 統一方案의 宣傳·煽動 그리고 ④經濟外交 등 4個分野로 나누어 說明하고자 한다. ①項에서는 北韓과 中·蘇사이의 이른바 北方三角關係의 歷史的 展開過程과 北韓의 對南軍事政策을 설명하고, ②項과 ③項은 이른바 「南半部」에서의 「人民民主主義革命」을 誘發시키기 위한 情勢造成과 革命의 國際的 支援勢力을 형성하기 위한 問題를 다루며 ④項은 「實利外交」로서의 經濟外交를 설명하고자 한다.

## 2. 北韓의 對中·蘇關係와 軍事路線

北韓共產集團은 1950年6月25日, 같은 民族의 가슴에 銃을 쏘아 南侵을 감행하여 千秋에 씻지 못할 罪를 범하고서도 오히려 우리 大韓民國이 北侵하였다라고 지금까지 뻔뻔스럽게 떠들어 대면서, 오늘날도 機會만 잡으면 第2의 6.25南侵을 감행하려고 虎視眈眈 血眼이 되어 있다. 더우기 지난 1983년에는 汶山川 月城 그리고 鬱陵島 近海로 武裝공비를 浸透시키고, 우리나라의 年例的인 팀스 피리트 '83 防禦訓練에 準戰時狀態를 선포하는 등 법석을 떨면서 1969年 金新朝事件과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투입사건 이래 최대로 韓半島情勢를 긴장시키더니 마침내 버마 아웅산國立墓所 暗殺爆發事件을 저질러 놓고서도「南朝鮮의 自作劇」이라고 파렴치한 宣傳을 감행하였다. 이와 같이 北韓共產集團은 韓半島情勢를 의도적으로 긴장시켰으며, 蘇聯戰鬪機의 KAL機 격추사건에서는 全世界의 輿論과 中共의 對蘇비난을 外面하고 蘇聯을 擁護하는 강경자세를 견지하였다. 따라서 北方三角關係속에서 北韓共產集團의 앞으로의 향배를 分析하는 것은 그들의 對南戰略을 理解하는데 關鍵이 될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앞서 北方三角關係의 역사적 발자취를 살펴보기로 한다.

第2次 世界大戰이 끝나자 蘇聯軍 少佐階級章을 달고 北韓땅에 발을 디딘 金日成은 1948年 9月9日, 蘇聯의 각본에 따라 이른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을 樹立하였으며, 역시 蘇聯의 각본에 따라 6.25南侵戰爭을 일으켰다. 다시 말하면 당시 金日成은 蘇聯의 對極東政策을 충실히 수행하는 完全한 괴뢰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蘇聯軍은 日本軍의 敗色이 짙어지자 進격적으로 참전하여 1945年 8月, 38度線以南까지 進격해 내려왔으나, 38度線을 軍事分界線으로 하여 그 以北地域의 日本軍降伏은 蘇聯軍이 접수하고, 그 以南地域은 美軍이 각

각 접수하자는 美國의 제의를 순순히 받아들여 蘇聯軍이 38度線 以北으로 퇴진하였던바, 이것은 日本本土를 美國과 共同分割하려는 궁궁이 속에서였으며, 그後 對美交渉에서 뜻대로 되지 않자 韓半島에서 領土的 補償을 노리던 중, 마침 1950年1月 美國이 極東情勢를 誤判하고 韓半島를 美國의 極東防衛線에서 배제시키는 「애치슨宣言」을 發表하자 蘇聯은 때를 놓칠세라 金日成을 앞세워 韓國戰爭을 일으켰다. 그런데 흐루시초프回顧錄에 따르면 金日成은 1949年 스탈린앞에 여러차례 불러간 자리에서 南侵을 하면 勝利할 수 있다고 다짐하였다.

그러나 韓國戰爭을 계기로 蘇聯과 그의 충실한走狗인 金日成 사이에 不和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蘇聯은 金日成을 앞세워 韓國戰爭을 일으켰으나 美國이 「애치슨宣言」을 뒤엎고 유엔것발아래 즉각 參戰하여 戰線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蘇聯은 微溫的으로 戰爭을 支援하다 마침내 休戰提議를 하고 더우기 1953年 스탈린이 죽자 金日成도 어쩔 수 없이 休戰協定에 署名할 수 밖에 없어 결국 「南朝鮮共產化」의 꿈이 霧散되었기 때문이다.

金日成과 蘇聯과의 關係는 1956年 第20次 蘇聯共產黨大會를 계기로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이 대회에서 스탈린의 뒤를 이은 흐루시초프는 ①資本主義國家와 共產主義國家사이에 반드시 戰爭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이른바 「戰爭可避論」을 내세워 兩陣營사이의 「平和共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②레닌이 주장하였던 “職業革命家에 의한 暴力革命” 방식이 아니고 資本主義社會의 議會民主主義過程에서 共產黨이 多數議席을 占함으로써 共產政權을 樹立할 수 있다고 하면서 스탈린式 共產主義를 공격하여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正統性을 주장하는 中共과의 사이에 理念紛爭의 싹이 트기 始作하였다. 그런데 中·蘇理念紛爭이 本格化되자 스탈린式 共產主義를 北韓에 移植한 작은 스탈린格인 金日成은 흐루시초프路線을 따를 수가 없었으며,

결국 共產主義革命過程이 비슷한 段階에 처해 있기도한 中共쪽으로 기울게 되자 이를 계기로 金日成과 蘇聯과의 關係는 더욱 멀어 지게 되었다.

그런데 金日成의 蘇聯에 대한 不信은 1962年 쿠바事態와 中·印國境紛爭을 계기로 더욱 深化되었다. 당시 케네디美國大統領이 쿠바에 蘇聯미사일을 배치하면 쿠바를 海上封鎖하겠다고 壓力을 가하자 蘇聯은 이에 굴복하여 미사일配置를 철회하였으며, 또 蘇聯은 中·印國境紛爭이 일어나자 非共產國家인 印度를 지지하는 立場을 취함으로써 中共을 包圍하려는 戰略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金日成은 1961年 7月 中·蘇 兩國과 각각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軍事同盟條約—을 이미 맺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北韓 나름대로 獨自的인 軍事力을 강화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하여 1962年 12月 勞動黨 第4期 第5次 全員會議에서 「全人民의 武裝化」, 「全國土의 要塞化」, 「全軍의 幹部化」 그리고 「裝備의 現代化」를 內容으로 하는 이른바 「4大軍事路線」을 採擇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상과 같이 蘇聯의 괴뢰政權으로 出發한 北韓共產政權과 蘇聯과의 關係는 韓國戰爭, 中·蘇理念紛爭 그리고 쿠바事態와 中·印國境紛爭을 거치는 동안 계속 冷却되어 왔다. 물론 蘇聯은 韓半島統一問題에 대하여 北韓의 立場을 지지하고 있고, 北韓의 經濟建設에 參與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北韓의 對蘇債務 償還期間을 연기해 주기도 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親中共의이며, 스탈린時代가 무색할 정도로 金日成우상화정책을 추구하며, 그리고 「코메콘」—蘇聯을 中心으로한 共產圈經濟機構—에서 벗어나 重工業優先政策을 비롯하여 獨自的 經濟路線을 걷고 있는 北韓共產集團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여 왔다.

金日成은 이와 같은 蘇聯의 態度에 대해 選擇的으로 對應하면서도 대체로 이른바 「蘇聯의 支配主義」政策에 반대해 왔다. 金日成은 캄보디아의

노르돔시하누크를 지지하여 소련의 앞잡이인 베트남의 캄보디아에 대한 軍事・政治的 介入을 반대하고 있으며, 1979年 蘇聯軍의 아프가니스탄 侵攻後 이를 支持하는 東歐共產國家들의 決議에 대해 루마니아와 함께 署名을 拒否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北韓共產集團은 베트남과의 關係를 回復하였는가 하면, 蘇聯의 代理戰爭을 도맡아 하고 있는 쿠바와 緊密한 關係를 維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쿠바와 같이 蘇聯의 代役을 世界到處에서 떠맡고 있다.

그리고 1978年 12月 31日 이른바 「蘇聯船舶의 羅津港 使用에 관한 議定書」가 체결되어 (모스크바放送, 1979.1.4) 韓半島에서 不凍港을 確保하려는 帝政러시아 이래의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의 宿願이 풀어지자 北韓共產集團과 蘇聯과의 關係는 서서히 回復되어 1983년에는 北韓共產集團이 蘇聯戰團機의 KAL機 격추만행을 지지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한편 北韓共產集團과 中共은 그 동안 전반적으로 密着關係를 유지해 오고 있다. 中共은 제 2차 세계대전중 中共軍에 편입되어 있던 韓人古兵들을 1948년부터 北韓에 歸還시켜 韓國戰爭 前夜에는 實戰經驗을 쌓은 中共軍出身 北傀軍이 3할이상을 占하였다. 그리고 毛澤東은 1949年末부터 1950年初에 걸쳐 蘇聯을 訪問하였는 바, 당시 蘇聯軍이 進駐하고 있었던 滿洲地域을 返還받는 問題와 蘇聯으로 부터 經濟援助를 받는 問題 등을 스탈린과 論議한 바 있는데 이 때 毛澤東과 스탈린은 韓國戰爭을 陰謀 했을 것이라는 主張이 있기도 하다.

여하튼 中共은 韓國戰爭中 北韓共產集團은 전면적으로 支援하였다. 1950年 10月 2日 深夜 當時 周恩來中共首相은 北京駐在印度大使 파니카를 中共外務省으로 불러 “만일 韓國軍이 아니라 UN軍이 38度線을 넘어 北上하는 경우 中共軍은 戰爭에 介入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실상 最後通牒을 宣稱하였다. 과연 1950年 10月 유엔軍이 38度線을 넘자, 11月 26~27日

第4野戰軍司令官 林彪麾下の 中共軍이 韓國戰線에 나타났으며, 그리하여 中共은 1953年7月27日 韓半島休戰協定の 當事國이 되어 지금도 軍事停戰會議에서 한쪽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韓國戰에 介入한 中共軍은 休戰協定이 締結된 이후에도 北韓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1958年2月, 平壤을 訪問한 周恩來中共首相과 北韓當局사이에 協議가 이루어져 1958年4月30日부터 10月16日 사이에 北韓에서 撤收하였다. 그러나 中共은 1961年 以來 北韓과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軍事同盟條約-을 維持하고 있으며, 특히 이 條約은 韓半島에서 戰爭이 일어나면 中共은 “自動即刻介入”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北韓과 中共은 韓國戰爭을 계기로 이른바 “血盟의 關係”가 되었다. 韓國戰爭에서 死亡한 毛澤東의 長男(모안영)墓는 아직도 北韓에 있어 北韓과 中共사이의 「血盟關係」를 象徴的으로 代辯하고 있다. 1978年 主席이 되어 첫 外國나들이로 平壤에 온 華國鋒에게 北韓當局은 “北魏軍”과 “中共人民支援軍”이 얼싸안고 있는 銅像을 贈物하였는데 그 銅像에는 “너와 나는 피로 맺은 同志”라는 글귀가 새겨져있다고 한다. 그리고 北韓共產集團과 中共은 相互關係를 “脣齒關係”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특히 中共은 이른바 「脣亡齒寒」이라고 하여 北韓을 中共安保의 死活的 存在로 규정하고 北韓地域(나아가서 全韓半島)을 자기나라를 防禦하기 위한 同一安保圈, 혹은 「外境」으로 생각하여 北韓과 密着關係를 維持해 오고 있다. 그리고 北韓共產集團도 中·蘇紛爭의 틈바귀에서 양다리 外交”를 해오면서 시달리다가 1966年부터 이른바 「自主路線」을 표방하여 脫出口를 찾으려고 하면서도 ①韓國戰爭時期의 中共의 대대적지원, ②共產主義發展段階의 類似性 그리고 ③地理的·歷史的·文化的關係로 사실상 蘇聯보다 中共便으로 많이 기울어져 왔다.

물론 北韓共產集團과 中共과의 關係가 항상 좋았던 것만은 아니다. 특히 1960年代 中盤, 中共의 이른바 「文化大革命期」동안은 北韓과 中共과의 關係가 아주 험악하였었다. 天安門廣場에 金日成을 비난하는 漫畫가 등장했고 白頭山領有權紛爭도 절정에 이르렀다. 이 때 中共은 親蘇路線을 걷고 있다고 본 北韓에게 白頭山領有權을 주장함으로써 壓力을 加하였다. 中共은 白頭山附近의 北韓領土를 韓國戰爭中の 支援에 대한 代價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1967年末, 1968年12月, 1969年3月에는 白頭山에 대한 領有權을 둘러싸고 軍事的 衝突마저 일어났다는 說도 있다. 그러나 「文化大革命」이 한고비 지나고 北韓과 中共과의 關係가 回復되기 시작하자 白頭山領有權紛爭도 일단락되어 이 무렵 「朝鮮中央年鑑」에는 金日成이 白頭山 天池 옆에 서 있는 寫眞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1980年10月 난데없이 中共의 「北京晚報」, 「光明日報」 등이 “天池怪物出現說”을 보도하면서 “中共東北方의 朝鮮國境에 가까운 長白山(白頭山)에 있는 天池 式으로 표현하여 文脈上 天池를 中共領化시키고 있다. 결국 北韓과 中共은 「天池」를 둘로 갈라 國境線을 劃定한 듯하다.

한편 北韓은 1970年代에 들어와 中共이 美·日兩國과 國交를 正常化시키자 中共의 自由世界로의 社會開放政策이 北韓體制에 미치는 波及效果를 封鎖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가운데 中共과 미묘한 葛藤關係를 維持하게 된다. 金日成은 1980年10月 「勞動黨6次全党大會」에서도 “共產主義 國家가 帝國主義와 無原則적으로 妥協해서는 안된다”라고 거의 露骨的으로 中共의 對美·日接近政策을 공격하고 있다.

이와 같은 北韓과 中共사이의 미묘한 軋轢關係는 1981年末 趙紫陽 中共首相의 平壤訪問으로 비롯된 兩側 高位層의 一連의 相互訪問으로 무르익기 시작하여, 1982年 金日成의 70回 生日 後 鄧小平, 胡耀邦의 極秘裡

의 平壤訪問과 1982年9月 金日成의 中共答訪으로 더욱 해소되어 다시 密着化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北韓과 中共사이의 密着關係는 서로 政策路線上的 隔差가 벌어짐으로써 限界點에 이를 것으로 展望된다. 北韓共產集團은 특히 1980年10月 6次勞動黨大會에서 金日成父子世襲體制를 굳힌 이래로 教條主義的인 政策路線으로 치달고 있는 것에 反하여, 中共은 특히 1982年9月 第12次共產黨大會에서 毛澤東式 1人支配體制를 부인하고 市場經濟的 要素를 加味하는 등 實用主義路線으로 政策을 修正하고 있어 비록 中共이 北韓의 蘇聯으로의 경사를 막기 위해 金日成父子世襲體制를 默認하고 있는 實情이나 北韓과 中共 사이는 앞으로 政策路線上的 葛藤이 深化될 것으로 判斷되기 때문이다. 1982年9月 金日成이 中共을 訪問하였을 때 鄧小平은 金日成을 實用主義路線이 實施되고 있는 四川省으로 안내하였으며, 이곳을 둘러본 다음 金日成은 社會主義現代化路線에 感銘을 받았다고 實吐하면서도, "마르크스·레닌主義를 中共의 現實에 創造的으로 適用"한 것이 社會主義現代化路線이라고 解釋을 달면서 "우리는 우리식대로 산다"고 뼈있는 말을 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北韓共產集團과 中共사이가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듯 하면서도 사실상 內面的으로는 政策路線上的 葛藤이 深化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상으로 北韓共產集團과 中·蘇사이의 이른바 北方三角關係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간단히 살펴 보았다. 北韓共產集團은 그동안 中·蘇紛爭의 틈바귀에서 이른바 "양다리外交"를 하여 그 나름대로 生存論理를 발견한 가운데서도 歷史的·地理的·政治的 要因 등으로 中共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음이 사실이나 北韓의 教條主義와 中共의 實用主義路線 사이에 심각한 政策路線上的 葛藤要因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았다. 한편 北韓共產集團과 蘇聯

과의 關係는 예상보다는 훨씬 더 서먹 서먹하면서도, 北韓共產集團은 특히 經濟的·軍事的 側面에서 蘇聯에 依存할 수 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基本與件 밑에서 北韓共產集團은 앞으로 對南戰略 수행면에서 “親中共路線”이나 아니면 “親蘇路線”이나 하는 理論的 模型을 생각할 수 있다. 實用主義路線에 따라 對美·日接近政策을 추구하고 있는 中共은 最近 鄧小平·胡耀邦의 증언과 같이 韓半島에서의 戰爭再發을 원하지 않고 있음으로, 北韓共產集團이 親中共路線을 따를 경우 그의 對南戰略方向은 中共과 美國 사이의 軍事的衝突을 회피 할 수 있는 이른바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으로 制限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北韓共產集團이 親蘇路線을 따를 경우 그의 對南戰略方向은 蘇聯의 世界軍事戰略의 맥락에 따라 對南軍事挑發의 길을 택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狀況속에서 北韓共產集團과 蘇聯과의 關係가 軍事的密着으로 發展되지 않을까 念慮된다. 물론 MIG23을 비롯한 最新 軍裝備에 대한 北韓側 要求를 모스크바가 들어주리라는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蘇聯으로서는 美·日·中共間의 軍事的 紐帶가 심화되어가는 東北亞情勢 속에서 對北韓 軍事密着을 통한 對應措置를 생각할 것이며, 이에 北韓共產集團이 편승할 경우 最惡의 事態로 「第2의 韓國戰爭」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 못할 것이다.

韓國戰爭이 일어난지 30餘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韓半島는 세계에서 가장 高密度 軍事化된 地域中の 하나이다. 특히 北韓共產集團은 그 동안 軍事力을 대폭적으로 增強시켜 왔다. 「國際戰略問題研究所」(IISS)는 「1983~84年度 軍事力比較」에서 北韓의 總兵力은 78萬4,500名으로 韓國의 62萬餘名에 비해 16萬名이 많다고 지적하는 등 駐韓美軍을 除外하면 北韓共產集團이 전반적으로 優勢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區分	北 韓	韓 國
總兵力	78萬4,500名	62萬餘名
탱크	2,500臺	1,200臺
戰鬥機	740臺 (MIG21:160臺)	450臺
各種艦艇	448隻 (潛水艦:21隻 高速魚雷艇:182隻)	101隻

資料: IISS「1983~84」軍事力比較。

물론, 이 報告書는 韓國이 군사적열세를 메우기 위해 機械化步兵師團, 미사일積載快速艇 및 爆擊機戰隊를 증강시키고, 潛水艦을 비롯, 코베트艦 數隻 그리고 F16A戰鬥機 30臺와 각종 航空機를 발주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南北韓의 軍事力比較는 우리 軍裝備의 質的優位를 마땅히 고려하여야 하나, 여하튼 北韓共產集團의 軍事力이 무시 못할 수준에 이르렀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北韓共產集團은 1961~66年間 軍事費 支出을 全體豫算의 平均 20%線으로 증가시켰고, 1967~1972年間에는 30%線으로 대폭 증가시켰다. 그 뒤 南北對話時期부터 豫算上의 軍事費는 다소 減少되었으며, 最近의 北韓側 公式統計에 따르면 1979年은 全體豫算의 15.1%, 1980年에는 14.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專門家들은 軍事費를 人民經濟費 등 他豫算項目 속에 僞裝시킨 것으로 分析하고 있다.

北韓共產集團은 韓國戰爭後 機會있을때마다 大小規模의 對南軍事挑發을 감행

하여 왔으나 특히 앞으로는 金日成父子世襲體制의 構築과 國內經濟事情의 惡化에 따른 不滿要因을 對外的으로 發散시키고, 北韓의 體制的劣勢를 對內外的으로 입증시키는 계기가 될 우리나라의 '88올림픽을 霧散시키기 위한 霧圍氣를 만들고, 더우기 南北韓 軍事力競爭에서 優位를 상실할 것이라는 초조감 때문에 對南軍事挑發을 감행할 可能性이 농후하다.

오늘날 北韓共產集團은 駐韓美軍이 주둔하고 있는 狀況속에서도 北韓全域에 分散配置되어 있는 탱크를 비롯한 모든 軍事力을 平壤·元山間의 高速道路 등을 이용하여 休戰線一帶로 신속히 집결시킨 다음 우리의 막강한 國軍과 駐韓美軍이 集中配置되어 있는 前方地域을 「땅굴」을 통하여 통과함으로써 우리의 首都圈을 奇襲攻擊할 수 있는 速戰速決을 내용으로 한 이른바 「主體戰略」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그들은 사실상 韓國戰爭時期부터 우리의 首都圈을 중심으로 한 漢江以北地域만을 軍事的으로 占領하면 「全南朝鮮」을 赤化할 수 있다는 作戰概念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의 首都圈이 敵에게 露出되어 있는 特殊狀況은 오늘날도 北韓共產集團을 誘惑케 하는 우리의 중요한 脆弱點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北韓共產集團은 유사시 陸海空 3面에서 南韓에 침투, 후방에서 게릴라戰을 감행할 목적으로 空輸, 輕步兵, 狙擊旅團 등을 網羅한 10萬名 이상의 特攻隊를 양성하여 AN2 輕輸送機 250餘臺를 비롯한 小型 潛水艦, 快速艇 등 각종 浸透裝備를 갖추어 놓고, 게릴라要員들을 完全武裝한채 400m 이상 수영할 수 있도록 訓練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룻밤새 3백리를 走破하는 休戰線-서울間 突破訓練, 그리고 特殊地域에 대한 陸上海上, 空中침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北韓共產集團은 1983年 버마 아웅산國立墓所 暗殺爆發事件이 成功하였더라면, 特攻隊를 투입하려고 하였으니 실로 可恐할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北韓共產集團은 그들의 對南赤化企圖가 악랄하면 할 수록 우리 大韓民國의 軍事力은 더욱 더 증강되고 對應戰略 또한 치밀하여 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世界軍事戰略的 側面에서 韓半島의 重要性을 完全 再評價하고 있는 美國의 對韓公約은 더욱 강화되어 駐韓美軍을 철수시켰던 韓國戰爭前夜나 닉슨-카터美行政府 당시의 韓半島軍事情勢와는 상황이 判異함을 北韓共產集團은 直視하여야 할 것이다

### 3. 駐韓美軍問題

北韓共產集團은 駐韓美軍의 存在를 “눈에 가시”格으로 생각하고 있다. 駐韓美軍이 있음으로 이른바 「南朝鮮」을 軍事占領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南朝鮮에서의 人民民主主義革命」이 결정적으로 制約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北韓共產集團의 最大目標中の 하나는 駐韓美軍을 撤收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모든 外交力量을 집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北韓共產集團이 내세우고 있는 對南 宣傳·煽動口號中 駐韓美軍撤收問題가 끼지않은 곳이 없는바, 가령 「高麗民主聯邦共和國」을 수립하자고 統一問題를 말할 때도 駐韓美軍의 撤收를 이른바 「先決條件」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면 北韓共產集團이 이 問題에 대하여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있는가를 알수 있다. 특히 1983年의 경우, 「首領노릇」을 實習하고 있는 金正日의 것으로 판단되지만, 종래의 常套的인 統一口號보다 駐韓美軍撤收問題를 앞세웠던 사실을 주목할만 하다. 北韓共產集團은 「新年辭」의 1/3정도를 반드시 統一問題로 채우던 관례를 깨고 一言半句 言及을 하지 않았으며 1月18日, 全斗煥大統領께서 國政演說을 통하여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을 다시 강조하고

南北韓當局最高責任者會談의 議題 4 個項을 제의하자마자, 北韓共產集團은 이른바 「南北韓政黨社會團體連席會議」를 逆提議하면서 종래와는 달리 統一問題가 아니라 駐韓美軍撤收問題만을 論議하자고 해오는가 하면, 우리의 年例的 防禦訓練인 「팀 스피리트 '83 訓練」이 시작되는 2月1日, 난데없이 「準戰時狀態」를 선포하는 이른바 最高司令官命令 「〇〇1號」를 발하여 北傀正規軍은 물론 勞農赤衛隊를 비롯, 온 北城 땅을 動員態勢로 내몰아 법석을 떨었다. (5月16日 해제)

이것은 韓半島情勢를 긴장시켜 駐韓美軍問題를 부각시키려는 의도적 술책으로서 駐韓美軍撤收主張이 北韓政權수립이래 常套的 宣傳口號이기는 하나, 「10.26 事態」이후의 政治・社會的混亂을 극복하고 눈부신 發展을 하고 있는 이른바 「南朝鮮」情勢下에서, 美文化院爆破事件과 더불어 駐韓美軍撤收主張의 強度를 대폭적으로 높임으로써 韓國民의 反美感情을 촉발시키기 위한 北韓 共產集團의 새로운 企圖로 판단된다

물론 北韓共產集團은 駐韓美軍撤收를 주장하면서 허울좋은 名分을 내걸어 왔다. 祖國을 統一하려면 먼저 “南朝鮮이 美帝의 強占으로 부터 解放되어야 하며, 그러려면 駐韓美軍이 撤收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엇때문에 南朝鮮當局은 民族自主적으로 統一하자고 하면서 駐韓美軍을 붙들고 있느냐”고 詰難하여 왔다. 北韓共產集團의 이상과 같은 主張은 한낱 臆說에 지나지 않는다.

첫째, 駐韓美軍이 존재한다고 하여 우리 大韓民國이 美國의 植民地라고 몰아부치는 것은 거짓말을 밥먹듯 하고 있는 北韓共產集團만이 할 수 있는 臆說이다. 오늘날 世界軍事狀況下에서 자기 힘만으로 國防을 하는 나라는 美・蘇뿐이며 이들도 集團防衛體制를 형성하고 있음으로 엄격히 말한다면 자기 힘만으로 國防을 하는 것은 아니다. 北韓共產集團의 주장대로 말한

다면 日本도 美國의 植民地이며, 東獨은 蘇聯의 植民地이어야 한다. 植民地 아닌 나라가 없다. 北韓共產集團도 1961년부터 中·蘇兩國과 軍事同盟條約을 체결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들 兩國과 國境線을 맞대고 韓半島에서 戰爭이 일어나면 中共軍, 나아가서 蘇聯軍이 즉각 介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결국 中·蘇의 二重植民地라는 論理가 된다.

두말할 必要조차 없이 駐韓美軍은 1950年 北韓共產集團이 韓國戰爭을 일으킴으로써 끌어들였으며, 休戰協定이 체결된 다음 1954年 主權國家사이의 韓·美相互防衛條約에 따라 韓·美兩國의 國家利益의 必要性에 의하여 韓半島에 머무르고 있기때문에, 그의 役割이 끝났다고 판단되면 兩國의 協議에 따라 언제든지 撤收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大韓民國은 北韓共產集團이 우리의 統一方案인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속에 담겨져 있는 「南北韓 基本關係 暫定協定」에 應해오고 韓半島의 平和定着에 긍정적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駐韓美軍의 存在를 必要로 하지 않으며 그의 撤收를 즉각 要求할 것이다. 따라서 北韓共產集團이 진정 駐韓美軍의 撤收를 바란다면 하루 빨리 韓半島의 平和定着에 應해 와야 할 것이다.

둘째, 駐韓美軍은 결코 韓半島統一의 장애요소가 아니다. 北韓共產集團이 駐韓美軍의 撤收를 그토록 要求하는 것은 1973年 北越南平和條約에 따라 駐越美軍이 撤收하자 전면 軍事挑發을 감행했던 越南赤化의 實例가 생생히 말해주듯이 南北韓사이의 軍事力不均衡을 이루어 하루 아침에 全韓半島를 共產化하기 위한 術策에 지나지 않는다. 統一은 南北韓사이의 對話를 통하여 平和的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방이 타방을 軍事的으로 征服할 수 없는 軍事力均衡狀態의 維持야 말로 平和統一의 基本條件이다. 「나토」와 「바르샤바條約機構」사이의 軍事力均衡이 東·西獨間의 基本條約

과 平和共存關係의 先決條件이 되었듯이 오늘날 駐韓美軍의 存在는 南北韓 軍事力均衡의 지렛대 역할을 함으로써 北韓共產集團의 對南武力挑發을 견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南北對話의 牽引役割을 하고 있다.

세째, 北韓共產集團은 1974年3月25日, 이른바 最高人民會議 名의로 「美議會 上·下兩院에 보내는 便紙」를 採擇한 이래 “韓半島 停戰協定の 當事者인 北韓과 美國 사이에 平和協定을 체결하여 1953年 停戰協定을 代置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이른바 「越南戰 協商모델」에 따른 對美直接協商戰術로서 우리 “韓國이 停戰協定當事國이 아니므로 美國이 韓半島 軍事問題의 主人”이라는 臆說을 바닥에 깔고 하는 수작이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休戰協定은 韓國戰爭을 休戰시키기 위한 交戰 雙方 軍事司令官 사이의 協定으로서 당시 유엔軍司令官이 休戰協定에 署名하였다 고 하여 美國이 곧 韓半島 軍事問題의 主人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韓半島 軍事問題의 第1次的 當事者는 좋은 싫든 우리 韓國과 北韓共產集團이다. 오늘날 우리 民族의 統一問題를 民族自主的으로 해결하자고 외치면서 바로 統一問題의 한 部分인 韓半島軍事問題를 美國하고만 해결해야 한다는 北韓共產集團의 臆說이야말로 가장 反民族의이며 反統一的인 것이다.

한편, 北韓共產集團은 駐韓美軍의 撤收問題에 대하여 中·蘇兩國의 支持를 얻어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中·蘇兩國은 駐韓美軍이 撤收하면 韓半島의 軍事力均衡이 破壞됨으로 韓半島의 情勢安定에 否定的 機能을 할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中·蘇紛爭 狀況속에서 北韓의 눈치를 보아야 할 처지임으로 北韓共產集團의 駐韓美軍撤收 主張을 競爭的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인데, 특히 蘇聯의 경우는 北韓을 앞세워 全韓半島에로 軍事的 膨脹을 기도하려는 長期戰略과 脈絡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駐韓美軍撤收에 대한 中·蘇兩國의 名分的 支持만으로는 실속이 없다고 판단한 北韓共產集團은 駐韓美軍撤收를 유엔決議로 관철시키려고 기도하였으며, 支持票를 동원하기 위하여 非同盟圈 接近工作을 치열하게 전개하였다. 특히 北韓共產集團은 1975年 8月 페루의 首相 리마에서 개최된 非同盟外相會議에서 非同盟會議에 單獨으로 加入하는데 성공하였다. 당시 우리 政府도 北韓共產集團이 일방적으로 非同盟會議에 加入됨으로써 야기될 非同盟國의 對韓國關係 惡化를 예방하고, 당장 다가 올 第30次 UN總會에서의 韓國問題 討議에 미칠 影響을 極小化시키기 위하여 非同盟會議에의 南北韓 同時加入을 추진하였으나, 1975年 4月 越南이 共產화된 직후이어서 非同盟圈에 反帝·反植民主義의 熱氣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國際環境의 響影으로 인하여 北韓共產集團에게 일방적인 勝利를 안겨 주었다.

이러한 國際的 雰圍氣의 延長線위에서 同年 第30次 UN總會에서는 “모든 直接當事者가 休戰協定 代案 및 恒久的 平和保障을 위한 協商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內容의 西方側決議案과 “韓國休戰協定の 실제적 當事者 (Real Parties)는 北韓과 美國이기 때문에 韓國을 參與시키지 말고 美 北韓間에 平和協定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內容의 共產側決議案이 통과됨으로써, 相互 矛盾되고 二律背反的인 案이 동시에 통과된 결과가 되어 「韓國問題」에 대해서 UN이 할 수 있는 役割의 限界性을 나타내고 말았다.

北韓共產集團은 1976年에는 駐韓美軍撤收問題를 비롯한 韓半島問題를 UN으로 끌고 갈려고 對UN 工作의 前哨戰으로 그해 8月, 스리랑카의 首都 콜롬보에서 개최된 第5次 非同盟頂上會議에 金日成이 직접 參與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北韓과 스리랑카는 1971年 콜롬보駐在 北韓大使 황영우 등 大使館員들이 反政府 게릴라들에게 武器와 資金을 지원한 혐의로 추방당한

사건이 발생한 이래 外交關係가 단절된 상태이어서, 스리랑카政府의 방해로 金日成의 非同盟頂上會議 參與計劃이水泡로 돌아갔고, 이어서 板門店 도끼 蠻行事件으로 北韓에 대한 國際輿論이 극도로 惡化됨으로써 UN總會의 票 對決에서 勝算이 없다고 판단한 北韓共產集團은 이미 上程되어 있는 共產 側 決議案을 철회시켰으며, 이에 韓半島問題의 無謀한 UN對決을 止揚하고 南北對話를 통한 實質的 解決을 주장해 왔던 우리의 主張에 따라 西方側 도 總會에 上程하려던 決議案을 철회시켰으므로 第30次 總會를 마지막으로 오늘날까지 韓半島問題가 UN總會에 上程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北韓共產集團은 第30次 UN總會에서 “美·北韓間에 平和協定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共產側決議案만이 단독으로 可決된양 宣傳하면서 “美帝는 UN總會의 決議를 무시하고 韓半島에 주둔하고 있다.”고 發狂의인 宣傳을 해오고 있다.

#### 4. 「主體思想」 및 統一方案의 宣傳·煽動

오늘날 北韓共產集團은 北韓政權의 政治的 權威를 격상시키고 「南半部」의 「人民民主主義革命力量」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이른바 「主體思想」과 「高麗民主聯邦共和國」案을 對內外的으로 宣傳·煽動하기에 血眼이 되어 있다.

원래 「主體思想」은 北韓 國內政治的 側面에서 보면 金日成이 政治的 基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反對勢力을 主體性이 없는 「宗派分子」로 몰아 肅清하기 위한 政治名分으로 사용되었으며, 오늘날은 金日成父子世襲體制를 구축하는 手段으로까지 동원되고 있으나, 北韓의 對外關係의 側面에서 보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國際主義的 屬性을 앞세운 蘇聯의 影響力 행사에서 벗

어나려는 일종의 「獨自路線」으로 분장될 屬性을 지니고 있다. 1982年 3月, 이른바 「金日成 70回 生日記念 全國主體思想討論會」에 보낸 「主體思想에 대하여」라는 金正日論文은 “金日成이 1930年 6月, 卞倫에서 개최된 共產主義青年同盟(혹은 反帝青年同盟) 幹部會議에서 主體思想의 原理를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北韓共產集團은 1955年 12月, 黨 宣傳·煽動일꾼들 앞에서 행한 “思想事業에서 教條主義와 形式主義를 退治하고 主體를 確立할 데 대하여”라는 金日成演說을 계기로 「主體思想」을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金日成은 이 演說에서 「人民軍 休養所에 걸린 씨비리草原의 그림」, 「人民學校에 걸린 마야뽀쓰끼와 뿌슈진寫眞」 등 蘇聯風을 비난하면서, 北韓의 특수한 條件에 알맞는 政權形態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立場이 1972年 12月 개정된 「社會主義憲法」 第4條에서는 “人民共和國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우리나라의 現實에 創造적으로 적용한 朝鮮勞動黨의 主體思想을 自己 活動의 지도적 指針으로 삼는다.”라고 표현되었다. 그리고 1980年 10月 第6次 黨大會에서 개정된 「朝鮮勞動黨規約」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창조적으로 적용...”云云한 1970年 5次 黨大會規約을 “金日成同志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마르크스·레닌主義黨”云云으로 개정하였으며, 특히 金日成의 「6次 黨大會事業總和報告」에서는 아예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學論조차 하지 않았고, 이후 北韓共產集團은 “金日成이 人類歷史上 처음으로 위대한 思想을 창시하였다”라고 공공연히 宣傳하고 있다.

이것은 北韓社會가 狂亂의 地境에 이르렀음을 端的으로 나타내는 것이나 北韓共產集團의 對外路線과 관련시켜 생각해 볼 때 「主體思想」이 宣傳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면 특히 「反蘇路線」이 밑에 깔려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反蘇路線은 1978年 9月, 北韓政權樹立 第30周年 記念演說에서 “支配主義政策을 追求하는 나라중에는 帝國主義國家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國家도 있다.”고 이른바 「社會帝國主義」를 거론하여 사실상 蘇聯의 膨脹政策을 露骨的으로 非難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와같은 「主體思想」의 한 屬性인 反蘇路線은 이른바 “마르크스·레닌主義를 中國革命의 實踐에 적용하였다.”라고 하는 「毛澤東思想」과 論理的 脈絡을 같이 하고 있음을 특히 指摘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北韓共產集團의 國際情勢觀과 中共의 國際情勢觀, 특히 實用主義路線이 전의 毛澤東時期의 國際情勢觀은 一脈 相通한다. 中共은 美帝國主義와 蘇聯의 「霸權主義」를 한데 묶어 「第1世界」로,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地域의 發展途上國家를 「第3世界」로, 그리고 이들 兩世界의 사이에 위치한 日本 및 東·西歐를 「第2世界」로 규정하고 스스로 「第3世界」의 일원임을 자처하면서 第3世界의 反帝·反霸權鬭爭에 기초한 國際情勢觀을 펴왔다. 이것은 北韓共產集團의 國際情勢觀과 完全히 脈絡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다만 中共이 「世界の 3分論」에 바탕을 두고 있는 대신 北韓共產集團의 國際情勢觀은 이른바 「主體思想」의 基本적 屬性이라고 하는 「自主性」의 有無를 기초로 하여 美·蘇를 비롯한 「支配主義國家」와 「自主性を 擁護하는 國家」로 「世界の 2分論」에 바탕을 두고 있음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北韓共產集團은 “支配主義로 부터 自主性を 擁護하려는 운동이 民族解放運動”이며 이것이 또한 「불력不加擔運動」-非同盟運動-이라고 煽動하면서 非同盟運動의 主導的人物이 사라진 오늘의 현실에서 金日成 自身이 「불력不加擔運動」을 主導해 보려고 온갖 外交力量을 기울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北韓共產集團이 「萬病通治藥」처럼 떠벌리고 있는

4. 「主體思想」 및 統一方案의 宣傳・煽動

이른바 「主體思想」이 對外關係에 적용될 경우 終着驛은 「불러不加擔運動」으로서, 金日成이 對外的으로 「主體思想」을 외쳐대는 속셈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이 第2次 世界大戰後 植民地에서 독립된 대부분의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國家들의 「民族解放」感情을 刺戟・煽動하여 反美・反韓統一戰線을 형성하려는데 있으며, 그러다보니 中共의 「第3世界論」에 따른 國際情勢觀을 模造하게 되었고, 中・蘇紛爭狀況속에서 中共의 그늘 아래 反蘇口號까지 외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金日成이 말끝마다 “統一問題를 民族自主的으로 해결하자”고 떠들면서 이른바 「高麗民主聯邦共和國」수립안을 비롯한 統一問題를 항상 나라 밖으로 끌고 나가 宣傳物로 만들므로써 스스로 외친 民族自主論理에 가장 逆行되는 策動을 감행하고 있는 理由도 우리나라의 統一問題를 「民族解放問題」로 끌고 가 反美・反韓統一戰線을 만들려는 속셈때문이다.

北韓共產集團은 이상과 같은 목적으로 주로 共產圏과 非同盟國國家를 대상으로 北韓內部와 海外에 각각 70餘個의 이른바 「親善協會」를 조직하고 있으며, 1971年부터 1982年까지 10餘年間 80餘回の 親北韓 國際會議을 개최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약 20餘回の 「主體思想」 宣傳集會를 개최하였다.

北韓의 「親善協會」組織 國家數

※ ( )內는 未修交國

地域 區分	計	亞 洲	中東·阿	歐 洲	美 洲	共產圏
北 韓 內	70(12)	13(3)	35(2)	8(2)	7( 5)	7(10)
海 外	77(26)	14(4)	26(2)	14(8)	17(12)	6( 0)

年度別 親北國際會議 開催現況

區 分 \ 年 度		71-75	76	77	78	79	80	81	82.1-5	合計
計		8	6	8	8	8	15	20	11	85
僑胞	對韓謀略		1	1			2	6	4	14
	統一路線					1	1	3	1	6
親北勢力	主體思想	5	1	1	2	1	5	3	2	20
	統一路線	3	3	5	6	5	7	8	4	41
	對韓謀略		1	1		1			1	4

年度別 「主體思想」 宣傳集會 現況

地 域 \ 年 度		71-75	76	77	78	79	80	81	82	計
亞 洲				1	1	1	1	1	1	6
中東・阿		4	1				1		1	7
美 洲		1			1		1	1	1	5
西 歐							2	1		3

그러나 이상과 같이 주로 非同盟圈을 대상으로 「主體思想」 및 統一方案의 宣傳・煽動을 통하여 이른바 「國際的 革命力量」을 강화시키려는 北

韓共產集團의 企圖는 1975年 페루의 首都 리마에서 개최된 非同盟外相會議에서 北韓만이 非同盟圈에 單獨 加入된 것이 絶頂이자 내리막길이 되었다.

왜냐하면 北韓共產集團의 宣傳·煽動 내용이 非現實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企圖가 非同盟運動의 性格變化로 말미암아 먹혀들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非同盟國家들은 國家建設(Nation Building)의 初期段階에서는 나라안의 政治的統合이 急先務였던 것이며, 이 時期에 있어서는 “民族解放感情”에 호소하는 것이 가장 效果的이었던 바 「主體思想」類의 政治名分이 사실상 필요하였다. 그러나 1960年代에 대부분 政治的獨立을 달성한 非同盟國家들은 1980年代에 접어들면서 國家建設의 第2段階에 들어섰으며, 어떻게 하면 經濟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關心이 집중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非同盟運動의 課題는 초기의 「政治問題」로 부터 先·後進國間의 國際經濟秩序의 再編 등 이른바 「南北問題」로 比重이 옮겨가고 있다.

오늘날 北韓共產集團은 「自立經濟」云云하면서 「主體思想」이 經濟建設의 妙方이라도 되는 듯이 對內外的인 宣傳·煽動을 하고 있으나, 北韓經濟를 經濟建設의 모델로 삼으려는 非同盟國家는 한나라도 없을 것이다. 여기에 바로 「主體思想」의 基本的 限界點이 있다. 사실 「主體思想」은 “사람이 모든 것의 主人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大命題밑에 「自主性」, 「創造性」, 「意識性」이란 主體思想의 3大屬性을 내세워 大衆(人民)動員方式에 의하여 經濟를 建設하려는 戰略性을 내포하고 있으나, 北韓共產體制의 構造의 矛盾으로 말미암아 北韓住民의 「自主性」, 「創造性」과 「意識性」이 말살된 상황밑에서 北韓經濟는 발전가능성을 完全히 상실한 채, 「主體思想」은 金日成父子世襲體制를 合理化시키려는 政治名分의 機能으로 타락하고 말

았다.

여기에 바로 北韓共產集團의 苦悶이 있으며, 非同盟外交의 限界性이 있다. 사실상 北韓共產集團의 理念的 模型이었던 中共은 「毛澤東思想」을 褪色시키고 「實用主義路線」으로 政策修正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으나 北韓共產集團은 金日成父子世襲體制의 固守를 위하여 그리고 이른바 「南朝鮮赤化」를 위하여 1983年 버마 아웅산國立墓所 暗殺爆發事件이 말해주듯이 國際關係의 惡化도 아랑곳 없이 斷末魔의 發惡을 하고 있다.

## 5. 經濟外交

지금까지 살펴본 이른바 「主體思想」과 「高麗民主聯邦共和國」方案의 宣傳·煽動을 중심으로 한 北韓共產集團의 「名分外交」와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살펴보려는 「實利外交」로서의 經濟外交도 限界狀況에 이르렀다. 오늘날 北韓經濟의 現實을 經濟外交의 觀點에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蘇聯과 中共으로 부터 얻을 것이 별로 없자 1970年代부터 西歐·日本 등 自由世界로 눈을 돌려 보았으나 「主體思想」이란 제 울가미에 묶여 毛澤東式自力更生路線에서 헤매고 있는 狀態”라고 말할 수 있다.

北韓共產集團은 政權樹立 이전인 1946年 12月 이미 「建國思想總動員運動」을 벌였으며, 1956年 12月 黨全員會議에서는 「千里馬運動」을, 그리고 1975年末부터는 思想·技術·文化의 이른바 「3大革命 붉은 旗 爭取運動」을 벌이고 특히 「主體思想」에서 「自立的 經濟」를 내세워 마치 北韓經濟를 다른 나라의 援助없이 獨自的으로 建設하고 있는듯이 宣傳·煽動에

血眼이 되어 있으나, 사실상 政權樹立이래 中·蘇兩國으로 부터 相當量의 經濟支援을 받아 왔다.

最近 北韓當局의 일방적 宣傳에 신물이 난 蘇聯의 「타스」通信은 “蘇聯은 그동안 北韓에게 北蒼火力發電所, 勝利化學工場, 金策製鐵所 등 60 餘 個所의 工場을 建設하여 주었으며, 數千名의 北韓技術者를 訓練시켜 주었다.” 고 폭로하고, 지금 進行중인 第2次 經濟開發 7 個年計劃期間 中에도 淸津火力, 金策製鐵冷間壓延工場 등의 建設과 北蒼火力, 茂山·安州炭鑛 등의 擴張工事 등을 支援하고 있다고 力說하고 있다. 그리고 蘇聯은 1979 年 11 月, 極東地域 開發을 목적으로 異例的으로 「極東 자바이칼地方建設省」을 新設하였는 바, 앞으로 제 2 시베리아鐵道の 竣工과 더불어 蘇聯의 極東地域開發이 進전 되면 蘇聯은 北韓의 勞動力提供은 물론, 極東·시베리아地方의 蘇聯住民에게 野菜 등 食料品提供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蘇聯의 北韓 羅津港使用權 獲得과 淸津 領事館 開設로 北韓의 咸鏡北道地方과 蘇聯의 極東地域間에 經濟的 結束이 深化될 것으로 專門家들은 分析하고 있다.

한편, 北韓에 대한 經濟援助 및 貿易現況을 일체 발설하지 않고 있던 中共의 人民日報도 蘇聯의 暴露에 뒤질세라 1979 年 10 月 19 日, 「新華社 通信 訪朝代表團」의 記事를 빌어 “戰後 30 餘年間 中共은 烽火化學工場, 平壤地下鐵, 淸川江火力發電所 그리고 興南化學肥料聯合企業所 등을 建設해 주었다.” 고 밝히고 있다. 그 동안 蘇聯의 對北韓經濟支援이 咸鏡北道地域에 집중된 반면 中共의 支援은 大體로 北韓의 西部地域에 집중되어서 狼林山脈을 境界로 北韓에 대한 中·蘇의 經濟的影響圈이 형성되는 듯 하더니, 1983 年부터 中共의 東北部 黑龍江省 等地的 農産物이 淸津港을 經由하여 日本에 輸出되는 問題가 現實化됨으로써 (1860 年 北京條約과 1886 年 璦

春條約에 의한 蘇聯의 對中共封鎖壁이 무너짐) 羅津港과 清津港 일원에서 中·蘇勢力사이의 牽制와 葛藤이 심화될 것이다.

한편 北韓의 對中·蘇交易은 1970年부터 전반적으로 매년 增加趨勢에 있으며, 交易規模는 中共보다 蘇聯과의 交易量이 약간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970年以後 中共과의 交易量이 크게 增加된데 비해 蘇聯과의 交易量은 起伏이 심한 가운데 增加率이 鈍化되고 있다. 그리고 北韓은 鐵鑛石, 無煙炭, 시멘트 등을 주로 輸出하고, 中共으로 부터 코크스炭 大豆, 棉花를, 蘇聯에서는 機械設備 등을 輸入하고 있으며 中·蘇兩國으로부터 原油 및 製品을 供給받고 있다.

年度別 北韓의 對中·蘇貿易推移

(單位: 1 百萬달러)

區分	나라	年度					
		70	75	76	77	78	79
總額	中	105.6	368.6	258.0	320.0	440.0	?
	蘇	373.2	468.5	398.5	446.0	552.5	763.0
輸入	中	55.6	176.5	152.0	156.0	210.0	?
	蘇	230.0	258.8	241.1	223.5	357.9	365.0
輸出	中	50.0	192.1	106.0	164.0	230.0	?
	蘇	143.2	209.7	157.4	222.5	294.6	398.0

中・蘇의 對北韓原油供給実績

(單位：萬噸)

國別 \ 年度	71	75	76	77	78	79	80
蘇 聯	40	111	106	114	100	80	60
中 共	50	50	90	100	125	100	80

그리고 北韓共產集團은 政權樹立 이래 重工業中心의 經濟建設政策을 추구한 結果 北韓을 「코메콘」에 가입시켜 北韓經濟를 蘇聯經濟圈속에 편입시키려는 蘇聯과의 사이에 衝突이 불가피하였다. 이런 가운데 北韓共產集團은 1962년부터 「4大軍事路線」의 추진에 따라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의 重壓을 받음으로써 1961년부터의 第1次 經濟開發 7個年計劃을 3個年延長할 수 밖에 없었으며, 1971年 부터의 6個年經濟開發計劃은 1975年 9月 早期達成되었다고 公表까지 하여 놓고, 이른바 「産業間的 緊張을 해소시키기 위한 緩衝期間」이 必要하다고 하여 1976~1977年間的 調整期間을 거쳐 1978年에야 비로소 第2次 經濟開發 7個年計劃에 들어가는 喜劇을 演出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北韓의 經濟開發計劃이 결국 失敗로 끝나게 된 主原因은 北韓經濟體制的 構造的矛盾뿐만 아니라 中・蘇兩國으로 부터의 經濟支援이 順調롭지 못한 때문이다. 北韓共產集團은 올해 1984年으로 第2次 經濟開發 7個年計劃 最終年度를 맞았으나 目標達成이 불투명한 狀況이며, 더욱이 1980年 10月 6次 勞動黨大會 黨事業總和報告에서 金日成이 제시한 經濟開發 10大展望目標와 뒤섞이여 이것도 저것도 다 뒤틀어져 가고 있다.

한편, 北韓共產集團은 이상과 같이 中・蘇로 부터의 經濟協力이 不充分해

지자 1970 年代에 들어와서 부터는 西歐諸國과 外交關係를 수립하고 佛蘭西·伊太利와는 通商代表部를 開設하여 交易·借款導入 등 經濟關係를 맺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日本과 民間레 벨의 貿易關係를 본격적으로 진전시켜 가고 있다.

北韓의 對日貿易実績

(單位: 1千달러)

年 度	輸 出	輸 入	收 支
1971	30,059	28,907	1,152
72	38,311	93,443	-55,132
73	72,318	100,160	-27,842
74	108,824	251,914	-143,090
75	64,839	180,629	-115,790
76	71,627	96,056	-24,429
77	66,618	125,097	-58,479
78	106,862	183,347	-76,485
79 (1~8月)	110,498	176,591	-66,093

그러나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그동안 自由經濟와 接觸한 北韓經濟의 總決算은 1983 年末 現在 外債 總 35 億달러의 累債 뿐으로서, 北韓共產集團은 外債償還壓力에 시달리다 못해 外交官에게 國際密輸行爲를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83 年 9 月에는 對外工作基金을 조달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의 빈에 설립된 北韓出資銀行에게 北韓中央銀行인 「대성

은행」으로 부터 僞幣送金事件을 일으키는 등 國際的 醜態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 6. 結 言

以上으로 北韓共產集團의 軍事와 外交實態를 ①北韓의 對中·蘇關係와 軍事路線 ②駐韓美軍問題 ③「主體思想」 및 統一方案의 宣傳·煽動 그리고 ④經濟外交 등의 項目으로 나누어 각각 살펴 보았다. 거듭 말하거니와 軍事와 外交는 우리나라를 赤化하기 위한 戰術的 次元의 것으로서 종이의 앞뒤面과 다를 바 없다.

오늘날 北韓共產集團의 軍事와 外交는 한마디로 말하여 限界狀況에 이르렀다. 韓·美間 安保紐帶가 어느 때 보다도 強化되고, 社會主義 現代化計劃을 추진하고 있는 中共이 韓半島에서의 戰爭을 원하지 않는 등 東北亞情勢의 轉換으로 말미암아 北韓共產集團이 하루 아침에 全韓半島를 軍事的으로 占領하는 일이 쉽지 않게 되었으며, 「主體思想」과 「高麗民主聯邦共和國」方案을 앞세운 宣傳·煽動으로 이른바 「國際革命力量」을 강화하여 「南半部에서 人民主義革命」與件을 조성해 보려는 企圖가 특히 非同盟圈의 性格變化로 잘 먹혀들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北韓共產集團은 「朝總聯」을 對南工作基地로 활용하여 왔고, 巴야흐로 美國에 「第2의 朝總聯」을 만들려고 在美同胞에 대하여 치열한 工作을 전개하고 있으나, 그들 宣傳·煽動의 欺瞞性이 폭로되고 우리나라의 政治·經濟的 發展에 따른 南北韓體制의 優劣이 가려짐으로써 北韓共產集團의 氣勢는 꺾이고 있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1982年1月22日 우리

가 이른바 「高麗民主聯邦共和國創立方案」을 完全히 理論的·現實的으로 壓倒할 수 있는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제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서 北韓共產集團의 宣傳·煽動外交는 이제 決定打를 맞은 셈이다.

그리고 北韓共產集團의 經濟外交도 限界點에 이르렀다. 北韓共產集團은 中共의 實用主義路線에서 배우려 하지 않고 社會主義經濟體制的 構造的矛盾을 그대로 안고 對外的 社會開放을 거부한 채 이루어지는 自由世界와의 部分的經濟關係가 오히려 外債의 累積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軍事·外交的破綻속에서, 계속 벌어져 가는 南北韓의 力量隔差에 초조해진 北韓共產集團은 지난해 버마 아웅산國立墓所 暗殺爆發事件을 일으키는 등 최후 發惡으로 치닫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볼 때 北韓共產集團은 앞으로 1980年代가 지나는 동안 ①蘇聯과 손을 잡고 다시 한번 同族相殘의 第2의 韓國戰爭을 일으킬 것이나, ②아니면 中共이 「毛澤東思想」을 褪色시키고 「實用主義路線」을 따르듯이 「主體思想」을 버리고 閉鎖社會를 개방하여 經濟發展을 도모하고 南北韓關係를 정상화시킬 것이나의 중대한 政策選擇의 岐路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따져 볼 때 1980年代야 말로 우리 民族史의 轉機가 될 것이다. 우리는 國民總和로써 豫想되는 北韓共產集團의 모든 對南挑發을 根源的으로 封鎖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하루 빨리 民族的 良心으로 되돌아 와 南北對話에 應해오도록 만들고 우선 1986年 아시아競技大會와 1988年 올림픽廣場을 南北韓間의 和合과 團結의 廣場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길만이 우리 民族이 統一로 가는 길이요, 永遠히 잘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 北 韓 實 態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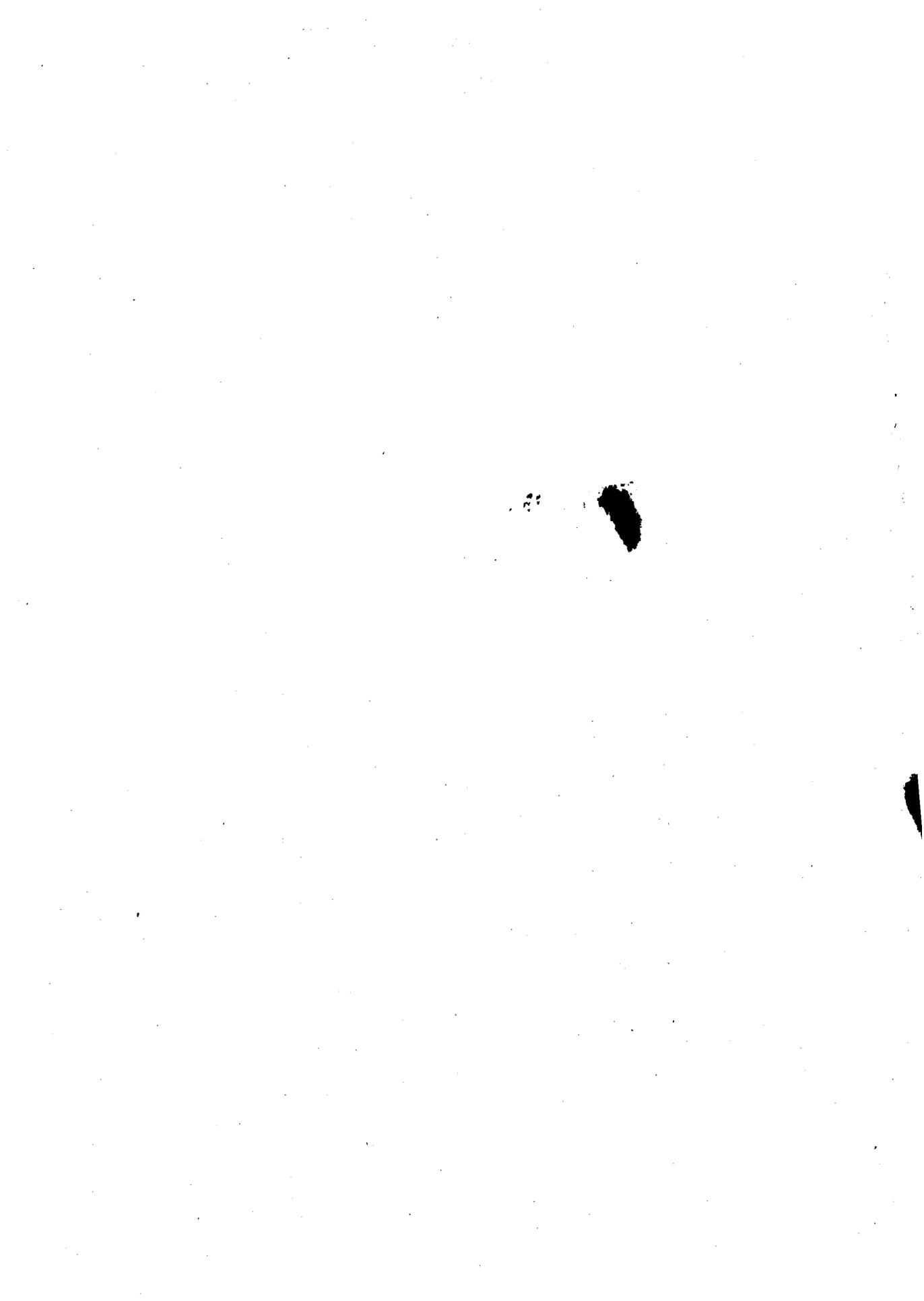
---

1984年 1月 25日 印刷  
1984年 1月 31日 發行

發 行 處   國 土 統 一 院  
          統 一 研 究 所

---

---



# IV. 北 韓 의 教 育

金 炳 璘

(統一研修所 教授)

